

석사학위논문

베트남 중급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 방법 연구

- 동음어 및 의미 투명성 활용을 중심으로 -

2026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교 육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관 투 타 오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은희

베트남 중급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 방법 연구

- 동음어 및 의미 투명성 활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ino-Korean Vocabulary Teaching Methods for
Intermediate Vietnamese Learners

-Focusing on the use of homonyms and semantic
transparency-

202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전공

관 투 타 오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은희

베트남 중급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 방법 연구

- 동음어 및 의미 투명성 활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ino-Korean Vocabulary Teaching Methods for
Intermediate Vietnamese Learners

-Focusing on the use of homonyms and semantic
transparency-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전공

관 투 타 오

판투타오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5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노정은 (인)

심사위원 이은희 (인)

심사위원 김윤주 (인)

국 문 초 록

베트남 중급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 방법 연구 - 동음어 및 의미 투명성 활용을 중심으로 -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교 육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관 투 타 오

본 논문은 베트남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자어 교육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특히, 한·베 동음어 및 의미의 투명성을 활용한 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과 베트남에는 한자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한자어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따라서 한자어 교육은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에서는 한자어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제 적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휘 학습에서 한자어가 지닌 잠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자어 교육은 주로 전통적인 어휘 교육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의미 암기나 한자음의 유사성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은 음의 유사성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의미를 수동적으로 추론하게 되며, 동음어로 인한 오류 발생 경우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음어를 활용한 교육 방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학습자가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한자어의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교육 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한자어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장기적인 기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자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고, 본 논문에서 사용된 연구 방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검토를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한자어 관련 개념과 특성을 분석하여 논문의 이론적 기초 배경을 마련하였다. 본 장에서는 한·베 한자어의 특성을 대조 분석하고, 한자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베트남 학습자에게 익숙하지 않는 ‘의미 투명성’ 개념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베트남 학습자가 한자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오류를 분석하였다. 또한, 동음어 및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학습자의 한자어 학습 요구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현재 베트남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였다. 학습자 설문 조사는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기본 정보, 한자어 교육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학습 시 빈번한 오류, 한자어 학습에 대한 요구, 한·베 동음어 활용 방법의 선호도, 그리고 의미 투명성 활용 방법의 선호도. 교재 분석은 베트남에서 널리 사용되는 『서울대 한국어』, 『연세 한국어』,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세 가지 교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학습자 요구와 교재를 분석한 결과는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본 연구의 교육 방안에 반영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선 장들에서 제시된 이론적 배경과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한자어 교육 방안을 설계하였다. 통합 어휘 수업의 교수요목 예시를 제시하고, 수업 운영의 기본 원리를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교육 방법을 활용하는 수업 모형과 예시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논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한자어 교육 방안은 향후 한자어 교육 발전에

기여하며, 베트남 학습자가 한국어 어휘 학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한국어 교육, 한국 한자어, 베트남 한자어, 중급 학습자, 교육 방안, 한자어 교육 방법, 동음어, 의미 투명성

목 차

| | |
|--|----|
| I. 서론 | 1 |
|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
| 1.2 선행연구 | 3 |
| 1.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10 |
| II. 한국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의 특성 비교 대조 및 한자어 학습 | 12 |
| 2.1 한국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 특성 | 12 |
| 2.1.1 한국 한자어의 특성 | 12 |
| 2.1.2 베트남 한자어의 특성 | 15 |
| 2.2 한국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의 유사성과 차이점 | 18 |
| 2.2.1 음운 체계 유사성과 차이점 | 18 |
| 2.2.2 형태적 유사성과 차이점 | 32 |
| 2.2.3 구조적 유사성과 차이점 | 42 |
| 2.3 한자어 학습과 의미 투명성 | 55 |
| III. 한자어 교수·학습 방법 | 61 |
| 3.1 베트남 학습자의 한자어 학습의 어려움 | 61 |

| | |
|-------------------------------|-----|
| 3.2 동음어를 활용한 학습 방법 | 65 |
| 3.3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방법 | 70 |
| 3.4 학습자 요구 및 한국어 교재 분석 | 74 |
| 3.4.1 학습자 요구분석 | 74 |
| 3.4.2 한국어 교재 분석 | 89 |
| IV. 한자어 교육 방안 설계 | 104 |
| 4.1 한자어 교육의 원리와 교수요목 | 104 |
| 4.2 한자어 교육 방안의 실제 | 108 |
| 4.2.1 동음어를 활용한 교육 방안 | 109 |
| 4.2.2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교육 방안 | 116 |
| V. 결론 | 124 |
| 참 고 문 헌 | 128 |
| ABSTRACT | 133 |

표 목 차

| | |
|---|----|
| [표 1] 『표준국어대사전(1999)』 수록 어휘의 어종별 통계 | 1 |
| [표 2] 한국 한자어의 초성 자음체계 | 21 |
| [표 3] 한국 한자어의 중성 모음체계 | 23 |
| [표 4] 한국 한자어의 중성체계 | 24 |
| [표 5] 베트남 한자어의 초성 자음체계 | 26 |
| [표 6] 베트남 한자어의 주단순모음 체계 | 27 |
| [표 7] 베트남 한자어의 중성체계 | 28 |
| [표 8] 베트남의 성조체계 표기 | 29 |
| [표 9] 한·베 한자어에서 유사하게 발음되는 초성과 비율 | 30 |
| [표 10] 한·베 한자어의 유사하게 발음되는 중성과 비율 | 31 |
| [표 11] 한-베 한자음 중성 대조 | 32 |
| [표 12] 한-베 완전 동형동의어 | 34 |
| [표 13] 한-베 다음절 이형동의어 | 43 |
| [표 14] 음절 수 대응하지 않는 경우 예시 | 44 |
| [표 15] 한국 어휘 체계의 한자어의 단일어 | 45 |
| [표 16] 의미 투명성의 정의 | 58 |
| [표 17] 한자어의 의미 투명성 분류 | 60 |
| [표 18] 언어권별 어휘 오류 비교표 | 65 |
| [표 19] 베트남 학습자의 어휘 오류 유형 비율 | 65 |
| [표 20] 한·베 한자어의 초·중·중성 대응 예시 | 70 |
| [표 21] 설문지 내용 구성 | 78 |
| [표 22] 기본 인적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 83 |

| | |
|---|-----|
| [표 23] 한자어 교육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조사 결과 | 83 |
| [표 24] 한자어 교육에 대한 요구에 관한 조사 결과 | 85 |
| [표 25] 한자어 학습 시 오류에 관한 조사 결과 | 87 |
| [표 26] 동음어를 활용한 한자어 학습에 대한 선호도에 관한 조사 결과 | 89 |
| [표 27]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한자어 교수학습에 대한 선호도에 관한 조사 결과 | 90 |
| [표 28] 베트남 내 대학 한국어 학과 교재 사용 현황 | 93 |
| [표 29] 교재 선정 기준 | 94 |
| [표 30] 분석 교재 | 95 |
| [표 31] 교재 분석 기준 | 97 |
| [표 32] 어휘 제시 방법 분석 결과 | 99 |
| [표 33] 한자어 제시 방법 분석 결과 | 101 |
| [표 34] 동음어 및 의미 투명성 제시 방법 분석 결과 | 102 |
| [표 35] 어휘 학습 활동 제시 분석 결과 | 104 |
| [표 36] 어휘 수업의 예시 교수요목 | 109 |
| [표 37] 동음어를 활용한 예시 학습 지도안 | 119 |
| [표 38]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예시 학습 지도안 | 122 |

그림 목 차

| | |
|---------------------------------------|-----|
| <그림1> 베트남 한자어의 음절 구조 | 29 |
| <그림2> 한국어의 의미 범위가 더 큰 동형 부분어의어 | 37 |
| <그림3> 베트남어의 의미 범위가 더 큰 동형 부분어의어 | 39 |
| <그림4> 양국어의 일부 의미가 공통적인 부분 동의어 | 40 |
| <그림5> 양국의 한자어 조어법에 따른 분류 | 44 |
| <그림6-1> 교재 2 어휘 제시 방식 예시 | 99 |
| <그림6-2> 교재 2 어휘 제시 방식 예시 | 100 |
| <그림6-3> 교재 3 어휘 제시 방식 예시 | 100 |
| <그림7-1> 교재1 한자어 제시 방식 예시 | 101 |
| <그림7-2> 교재2 한자어 제시 방식 예시 | 102 |
| <그림7-3> 교재3 한자어 제시 방식 예시 | 102 |
| <그림8-1> 교재 1 학습 활동 제시 분석 결과 | 105 |
| <그림8-2> 교재 2 학습 활동 제시 분석 결과 | 105 |
| <그림9> 동음어를 활용한 한자어 수업의 모형 | 113 |
| <그림10>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한자어 수업의 모형 | 121 |

I.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어휘는 외국어 학습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네 가지 기능뿐만 아니라 언어적 사고 능력 발달에도 기초가 된다. 이는 여러 언어학 연구와 이론을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Wilkins(1972:111)는 문화적 지식의 부족한 것은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어휘 지식의 부족은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Ellis(1994:63)는 모국어 화자가 학습자의 문법 오류보다 어휘 오류를 더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또한 Schmitt(2000:117)는 학습자가 단어의 기본 의미를 이해할 경우, 더 많은 언어 입력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듣기와 읽기 능력을 더욱 향상된다고 언급하였다. Schmitt(2000:123)는 어휘 학습이 유창한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문법 구조의 습득과 문화적 이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단어로는 ‘세배’(설 인사), ‘송편’(떡국), ‘정’(정서적 유대감) 등 있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이선웅(2019:15~16)는 풍부한 어휘력은 학습자가 의사소통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력과 외국어 사용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한국어에서 한자어는 현대 어휘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학문적, 행정적, 전문 영역의 담화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러한 한자어의 분포 현황은 아래의 <표 1>와 같다.

[표 1 『표준국어대사전(1999)』 수록 어휘의 어종별 통계 (구본관 2014:398쪽)]

| | 고유어 | 한자어 | 외래어 | 기타(혼합 형태) | 합계 |
|------|---------|---------|--------|-----------|---------|
| 표제어 | 111,299 | 251,478 | 23,196 | 54,289 | 440,262 |
| 부표제어 | 20,672 | 46,438 | 165 | 1,234 | 68,509 |
| 합계 | 131,971 | 297,916 | 23,361 | 55,523 | 508,771 |
| 백분율 | 25.9% | 58.5% | 4.7% | 10.9% | 100% |

<표1>을 보면, 한자어를 체계적으로 이해와 숙달은 학습자가 어휘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적 관계를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다. 게다가, 학문적 글쓰기 능력, 전문 개념의 이해력 및 읽기 능력을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한자어 학습은 여전히 베트남 학습자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의미의 추상성, 동음이의어 현상, 그리고 한·베 어휘 형성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다수의 학습자는 의미적 연계나 문맥적 이해를 수반하지 않은 기계적 암기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 방식은 한자어의 효과적인 습득과 활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베트남 학습자는 한자어 습득에서 장점이 있다. 이는 베트남어의 약 60~70%가 한자에서 비롯되어 발음, 구조, 의미 측면에서 일정한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한자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실제로 현재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중급 학습자가 일상적인 의사소통 중심의 단계에서 학문적·전문적 학습 언어 사용 단계로 넘어가므로, 어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한자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베트남 중급 학습자를 위한 적합한 한자어 학습 방법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자어는 한국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언어 이해력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베트남어는 한자어와 구조와 의미 면에서 유사성이 높아 베트남 학습자가 한자어를 습득하는 데 유리한 언어적 조건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은 부족하다. 셋째, 현재의 한자어 교육은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 효율이 낮고, 교재와 교육 방법과 제한적이어서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베트남 학습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한자어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베트남인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자어 교육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며, 특히 동음어 활용한 방법과 의미 투명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방안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중급 학습자의 한자어 지식과 교육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어휘력, 특히 한자어의 이해력 및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은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한자어의 역할, 특성 및 중요성을 밝혀내고, 베트남 학습자가 한자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분석해서 이를 처결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음어와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교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사를 위한 교수법 시사점을 제안하며, 학습자의 언어적·사고적 특성에 적합한 수업 설계 및 교수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 중급 학습자의 한자어 학습 현황을 살펴보고, 학습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자가 자율 학습과 수업 상황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자어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 학습자의 언어적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효과를 향상되고, 의미와 발음 연계 및 단어의 기원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휘를 빠르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습자가 한자어를 정확하게 유연하게 활용하여 의사소통 상황과 학문적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시에 본 논문은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공하여, 교사가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어휘 교수 방안을 설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교수·학습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1.2 선행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한자어를 학습하는 베트남 중급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연구하는 데 있으면, 특히 동음어와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한자

어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세 가지 영역으로 고찰할 것이다. 우선,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의 한자어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여, 각 언어에서 한자어 연구가 주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분석한다. 이어서, 양국의 한자어를 비교·대조한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두 언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한자어 학습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마지막,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 교육 방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특히 동음어 활용한 어휘 학습 방법과 한자어의 의미 투명성을 중심으로 학습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한자어 교육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론을 설정할 것이다.

1) 한국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에 관한 연구

한국 한자어에 관한 연구는 김일병(2000), 노명희(2005), 박혜진(2021), 김현진·이을지(2023) 등과 베트남 한자어에 관한 연구는 Nguyễn Tài Căn(2004)이 있다.

김일병(2000)은 한자 합성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로 본 장에서는 주로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첫째, 한자 합성어를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한자어 합성어가 무엇인지, 다른 유형의 합성어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명확히 하였다. 둘째, 한자어 합성어의 구성 유형을 다루어 한자어 요소들이 결합되는 방식과 형태적 특징을 설명한다.

즉, 한자어 합성어가 지니는 구조적 특성과 의미 형성 방식에 대해 분석한다. 아울러 합성어의 형성 원리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논의를 제시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한자어 합성어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에 따르는 문법적 규칙 및 논리적 원칙을 중심으로, 각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방식을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한자어 합성어의 구조와 형성 원리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한자어 합성어가 한국어의 어휘 및 문법 체계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한자어 요소가 한국어에 미친 영향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노명희(2005)는 한자어의 기능 단위를 중심으로 한 심층적인 연구로, 한자어의 유형과 접사 성을 가진 한자어의 특성과 분류를 전반적으로 다룬다. 이 연구는 이론적 논의와 함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다양한 문맥에서 한자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기능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한자어가 문법과 문장 구조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하여, 한국어 어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한자어가 지니는 의미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법적 작용 방식과 문장 내 다른 구성 요소들과의 관계를 밝힌다. 이러한 분석은 한자어가 한국어에서 형성하는 구조적 특성과 문법적 규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한자어의 결합 방식과 복합어 형성 과정에서 각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자어가 한국어 형성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이 연구는 한자어 사용과 관련된 문법 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로서, 한국어 문법과 어휘에 미치는 한자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박혜진(2021)는 한자어의 형태론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자어를 어휘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고유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자어의 어휘 형성을 설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논쟁적 쟁점을 점검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구성된 교재와 매체를 분석하였다. 한자어의 형태론적 분석 결과, 한자어는 단어 형성의 요소이자 형태소로서 다기능성과 비-전형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교재 분석을 통해, 이러한 특성이 한자어가 어휘 형성 단원에서 배제되거나 소극적으로 제시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예를 들어, 어휘 구성 부분에서 창의적인 한자어 접사가 충분히 제시하지 않거나, 한자어 접사가 포함된 혼성어 및 비전형적인 예시들이 어휘 구성 단원이 아닌 새말 형성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 연구는 한자어 활용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이 다기능성과 비전 형성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보완을 위한 방안으로 한자어 예시를 적절한 선정과 배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한자어 교육에서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김현진(2023)은 한국어 학습자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를 구분하는 능력과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이 이러한 구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중·고급 학습자와 원어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외래어를 제외하고 한자어와 고유어의 구분에 초점을 두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총 70개의 어휘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각 항목은 10~15초의 응답 시간이 주어졌으며, 총 시간은 20분이었다. 분석 결과, 원어민과 한국어 학습자 간의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고, 이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자 문화권 학습자와 비-한자 문화권 학습자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문화적 배경이 한자어와 고유어를 구분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자 문화권과 비-한자 문화권 학습자와 원어민 모두가 한자어와 고유어를 직관적으로 구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를 선택할 때, 사용 빈도와 난이도뿐만 아니라, 파생어와 합성어의 구조적 특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학습 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이 시사하다.

Nguyễn Tài Cán(2004)은 한자와 베트남어의 관계 및 한자가 베트남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중요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한자와 베트남 독법의 형성 과정에 주목하였으며, 이는 음운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자와 베트남 독법은 베트남인이 한자 문화와 언어를 수용하는 과정의 결과이자, 수세기 걸친 언어 발전과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이 연구를 통해 Nguyễn Tài Cán은 베트남인이 한자어를 활용하여 자국의 문화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어휘를 창출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자어가 베트남어에서 어떻게 변형되었고, 그 구조적·의미적 특성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 명확히 밝혔다. 또한, 이 연구는 베트남어 사용자들이 한자어를 활용하여 사회적 요구와 언어적 특성에 맞는 새로운 단어를 창출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것은 베트남어가 외래 요소를 수용하면서도 창의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언어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평가될 수 있다. Nguyễn Tài Cán의 연구는 한자어가 베트남어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기초가 제공함과 동시에, 한자어 교육 및 언어 연구

방법론의 확장에도 기여하며, 후속 연구를 위한 학문적 토대가 된다.

2) 한국과 베트남의 한자어 대조에 관한 연구

한국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 대조에 관련된 연구로는 조명숙(2003), 레뚜언선(2006), 김희경(2008), 박종갑·레뚜언선(2009), 팜티옥(2010), 고세정(2014), 응웬 흥 프엉 타오(2020) 등이 있다.

조명숙(2003)은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한자음에 대한 음운론적 특징(주로 초성, 중성, 종성)과 문법적 특징(단일어, 합성어)을 분석하였다. 두 언어의 음운 체계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조명숙은 이 연구를 통해 두 언어 간 음운론적 및 문법적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한자음 학습과 교육에서 음운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레뚜언선(2006)은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한자어 음운 구성의 성모와 운모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특히 초성과 중성이라는 두 중요한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레뚜언선은 한자음 체계에서 이 두 요소를 비교함으로써, 두 언어 간 초성과 중성의 분류 및 사용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학습 및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학습자가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발음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희경(2008)은 동아시아 한자어를 비교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의 한자어를 대상으로 각 언어에서 한자어의 형성과 유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자어가 동아시아 언어권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자어 어휘를 중심으로 한 대조 분석을 통해 일본어, 한국어, 베트남어 한자어의 특성과 이들 간의 형태적·의미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하였다.

박종갑·레뚜언선(2009)은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절 구조, 음절 연결 방식, 음운 현상을 비교한 연구이다. 특히 한자어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는 두 언어 모두 한자어를 사용하고 음절 구조에서 유사성을 보이지만, 음운의 결합 방식과 새로운 합성어 및 단어 형성

에 대한 과정에서 적용되는 문법 규칙에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팜티옥(2010)은 한·베 한자어의 초성, 중성, 종성 체계를 비교하여 각 언어의 한자어 음운 체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두 언어 간의 음운적 차이를 명확히 하며, 한자어의 발음 규칙과 구조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언어의 한자어 음운 구조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고세정(2015)은 자연, 동물, 사물, 시간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베 한자어를 수집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주제별로 두 언어의 한자어가 어떻게 형성되고 사용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의미적 대응 관계를 비교하였다. 특히, 한자어에 반영된 문화적 차이와 그로부터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양국의 언어적 차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응웬 흥 프엉 타오(2020)는 한국어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의 단어 형성법을 대조하고, 첸로(陳璐)의 현대 한·중 한자 어휘 대비를 통해 두 언어의 어휘 유형과 구조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두 언어 간의 한자어 형성 규칙과 어휘 구성 방식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어휘적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자어에 관한 연구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 또한, 대조 연구나 비교 연구도 많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두 언어에서 한자어의 특징 중 일부만을 다룬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한자 대조 및 비교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을 제공하고자 한다.

3) 한자어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한자어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윤혜숙(2003), 류티장(2024), 레조안통(2024)이 있다.

윤혜숙(2003)의 연구 목적은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휘 오류의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어휘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136명의 베트남 학습자가 작성한 211편의 작문 자료를 분석하여 오류를 주석하고, 오류 유형을 언어 내 오류, 언어 간 오

류, 의사소통 전략 오류 등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의미의 혼동 오류는 25.25%, 품사 오류는 13.85%, 문자 그대로 번역 오류는 11.36% 순으로 나타났고, 원인으로는 언어 내 전이가 55.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True Friends와 False Friends 목록을 활용한 학습법을 제안하였고, 어휘망 학습법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어휘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오류 분석은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

류티장(2024)는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휘 능력을 확장하는 교육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에 따라 초급 수준보다 중급 학습자는 일정한 기본 어휘를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어휘를 향상할 수 있다. 또한, 고급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전문 용어와 같은 어휘를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인드맵을 활용한 한자어 교육 방안을 마련한 연구였다. 한국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의 특성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어휘 교육에서 한자어 어휘를 오래 기억하고 확장하기 위해 양국 한자어 특성 및 음운 체계를 대조 분석 연구하여 설문 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마인드맵을 활용한 한자어 교수·학습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레조안통(2024)은 전통적인 어휘 학습의 문제를 실현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한자어의 의미 투명성에 접근하였다. 즉, 한자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교사와 학습자는 해당 한자어를 구성하는 한자어의 의미와 음운에 대한 지식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한자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장기적인 기억할 수 있으며 한자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의미와 음운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게 된다. 그 결과, 새로운 한자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자어 수업을 조직한 때 필요한 원칙을 설정하고 의미의 명확성을 적용한 LBH (Learning by Hint) 방법을 기반으로 한 수업 모델을 설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는 주로 한·베 간의 어휘 또는 한자음의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한자어 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음어를 활용한 방법은 효과가 낮다는 인식으로 인해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은 편이다.

또한,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은 특히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 교육에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두 언어의 특성과 학습자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학습 방법들이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 살펴보고, 특히 중급 학습자에게 유용성을 지님을 밝힌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자어 교육 방법론을 발전에 기여함과 베트남 학습자의 학습 현실에 더욱 적합한 새로운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베트남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자어 학습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동음어 및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학습 전략에 주목하여,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베 한자어에 관련된 연구들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의 범위 또한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어휘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는 주로 양국 한자어의 음운적 유사성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베 단어의 발음이 유사한 한국어 어휘를 통해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기인한다. 즉, 한자어 발음에 기반한 유사성이 한국어 학습자의 의미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만 의존할 경우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베트남 한자어는 성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조가 변하거나 생략되면 동일한 한자어라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음이나 음운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정확한 의미 이해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음운 분석은 의미 해석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한자어의 구조와 형태적 특성에 대한 이해 역시 필수적이다. 한자어는 기본적으로 개별 한자의 결합을 통해 형성되며, 이에 따라 새로운 어휘가 생성된다. 한자어의

구조를 이해할 경우 학습자는 새로운 단어를 접할 때 수월하게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자어의 구성 요소나 형성 원리를 파악하고 있다면, 단어를 읽는 것만으로 의미를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한자어 학습의 중요한 기초로 작용하며, 학습자의 어휘 습득을 돕는다.

본 연구는 한·베 한자어의 특성을 비교·대조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다, 이러한 특성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베 한자어의 음운·형태·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 베트남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자어 학습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한다. 아울러, 베트남에서 사용되는 주요 한국어 교재 세 종을 분석하여 교육 현장의 실재를 교수·학습 방법 설계에 반영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주요 한국어어나 어휘 형태의 비교에 집중해 왔으며, 동음어 활용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한 회의적 인식으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한자어 교육 역시 베트남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습자 특성과 실제 학습 환경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교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 한·베 한자어의 특성과 음운, 형태, 구조적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둘째, 학습자의 요구 및 인식을 조사하고, 교재 분석을 통해 현재 교육 현장에서의 한자어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음어와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교수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 연구의 범위 및 내용을 다룬다. 제2장은 한·베 한자어의 특성과 유사성·차이점을 분석한다. 제3장은 한자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며, 제4장은 요구 및 교재 분석을 기반으로 실제 교수 방안과 예시를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를 종합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II. 한국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의 특성 비교 대조 및 한자어 학습

2.1 한국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 특성

한국과 베트남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지만, 양국의 언어적 차이점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한자어의 사용 방식과 발음,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은 두 언어의 어휘학적 특성과 그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부분에서는 한국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의 특징과 구성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양국 언어에서 한자어가 어떻게 다르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2.1.1 한국 한자어의 특성

한자어라는 개념은 언어학 연구에서 용어의 사용과 정의가 문맥과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먼저, 일반적으로 한자와 한자어 용어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한자(漢字)는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져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는 표의 문자’이며, ‘한자어(漢字語)는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다른 한자어의 정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한자어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단위가 결합하여 한국어로 사용되는 한국식 발음의 단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영희(2008:15)에 의하면, 한국 한자어는 ‘중국어’가 아니라 ‘한국음’으로 읽히므로 한국어의 음운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의는 충분하지 않으며, 한자어의 개념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단어’ 대신 ‘어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한자어는 한국어는 개별 한자나 둘 이상의 단위가 결합해 한국음으로 발음되는 어휘로 재정의되었다.

그 밖에, 심재기(1987:26-27)는 한자어는 기본적으로 한국말 중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낱말로 개념을 정의되며, 송기중(1993)은 ‘어휘항을 구성하는 개별 음절이 어떤 한자의 국어 독음과 일치하는 어휘’라고 설명하였다. 게다가, 노명희(2005:14)는 한자어를 고유어와 동일한 체계나 별도의 체계로만 분석하는 방식은 한자어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자어는 하나 이상의 한자가 결합되어 형성된 한국어 어휘로서, 중국 음이 아닌 한국 음으로 읽히며 한국어의 음운 규칙을 따르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자어는 중국에서 유래하였으나 한국어 체계 속에서 음운적·의미적 고유화된 어휘로, 한국어 어휘 체계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한국 한자어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에는 김경옥(1999), 김미정(2004) 등이 있다. 김경옥(1999)은 한자어의 일반적인 특성을 네 가지 범주, 시각성, 조어력, 축약성, 이해력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한자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문자이므로 소리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즉, 한자는 시각적인 특성이 강하여, 글을 보는 순간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표음 문자만으로 작성된 문장에 비해 한자를 혼용할 경우 독해 속도가 3~5배 향상된다.

둘째, 한자어의 조어 방식은 주로 형성(形聲)과 회의(會意) 원리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문자가 결합 되어 이루어진다. 한자는 각 문자가 하나의 뜻과 음을 가지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단어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술 용어나 전문 용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다.

셋째, 한자는 각 글자가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긴 내용을 몇 개 한자로 압축할 수 있어 현대 사회에서 빠른 정보 전달에 매우 유리하다.

넷째, 한자어는 주로 두 글자로 구성되는데, 생소한 단어를 접하더라도 그 중 하나의 한자만 알면 나머지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한자어의 기억은 단순한 기계적 암기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고 과정으로, 사람의 추리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김미정(2004)은 한자어의 특성은 다음 여덟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단어 형성의 제약이 없어 활발한 조어가 이루어진다. 둘째, 고유어는 형태론적이나 성분상의 제약이 많지만, 한자는 각 글자가 원칙적으로 독립적이며 품사가 고정되지 않아 자유롭게 변형되고 결합될 수 있다. 예컨대 동일한 ‘好’라도 ‘好感’에서는 형용사로, ‘好奇心’에서는 동사로, ‘好惡’에서는 명사로, ‘好景氣’에서는 접두사로 기능한다.

셋째, 고유어로는 장황한 통사 구조를 필요로 하는 개념을 한자어를 통해 하나의 단어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예) 애연가(愛煙家), 등산(登山) 등이 있다. 넷째, 고유어가 다의어 경우 한자를 사용하여 더 세분화된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 학술어나 전문 용어에서 자주 활용된다.

다섯째, 약자나 약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반면, 고유어는 이러한 특성이 약하다. 예) 全國經濟人聯合會:全經聯). 여섯째, 한자어는 고유어 및 외래어와도 잘 결합이 용이하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를 쉽게 창출할 수 있다. (된, 밥 床、工夫하다. 헛手苦, 代代로, 洋담배, 新유럽, 풀(pool)場 등) 또한, 구 이상의 단어 중에는 한국어에 토착화되어 있어 한자어임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일곱째, 한국어와 한자가 결합하여 동의 중복에 의한 새 단어를 만들기도 한다. 예) 담牆, 모 沙場, 洋屋집, 속內衣 등. 여덟째, 한자어에는 중국식 어순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도 많고, 일부는 한국식으로 동화되었지만, 여전히 중국어적 특성을 가진 단어도 있어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위치는 독특하다.”

위에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한자어의 특성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의 한자어는 뛰어난 조어력과 높은 생산성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둘째, 한국 한자어 사이에 유의어가 많아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한국 한자어는 고유어보다 의미가 더 세분화되어 있어, 고유어와 1:多 형태로 대응되며, 주로 전공 어휘나 전문 용어, 학술지에서 자주 사용된다. 넷째, 한국 한자어는 대부분 2음절로 구성되며, 3음절 한자어는 대개 1음절+2음절 또는 2음절+1음절 구조로 나뉘고, 4음절은 2음절+2음절 구조로 분석된다. 다섯째, 한국 한자어의 품사 중 명사가 많고, 동사나 형용사는 접미사 ‘-하다’가 붙어 동작형 단어를 많이 형성한다.

2.1.2 베트남 한자어의 특성

한국 한자어의 정의와 베트남 한자어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한자어란 한자음 표기 문자이며, 베트남인의 방식으로 발음된 문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조명숙(2003)에 따르면, 한자를 베트남인이 베트남의 발음 방법으로 읽는 베트남의 한자음이 한월어(漢越語)라고 하며, 베트남어에서는 *Từ Hán Việt*(베트남 한자어)라고도 한다. Nguyễn Tài Cán(2004)는 베트남에서 고유한 문자 체계가 없을 때, 오랫동안 한자를 차용하여 베트남어의 쯔놈(字喃)과 한월어를 만들고 사용했다고 말했다. Đào Duy Anh(1975)에서는 베트남인은 한자를 이용해 월 독음이나 베트남어의 고유어를 표기하기 위해 쯔놈을 창제했다고 전해진다. 베트남 한자 발음 체계가 확립된 이후 일부 한월어는 새로운 베트남어 음운 체계에 맞춰 변형되었으며, 이 변형된 단어들은 “*Hán-Việt Việt hóa* (한월월화)”어라고 불린다.

또한, Nguyễn Tài Cán(1995)에 따르면, 베트남 한자어의 음운 체계가 당나라 시기의 한자어 체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베트남어의 발전 과정에서 한자의 영향은 매우 크며, 현재 사용되는 베트남어 ‘*Chữ quốc ngữ*’의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비록 한자는 현재 베트남에서 사용되지 않지만, 베트남어 어휘의 60-70%가 ‘한월어’로 구성되어 있어, 베트남어 체계에 미친 영향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베트남 사람들은 ‘복(phúc-福)’, ‘인(nhân-忍)’, ‘심(tâm-心)’, ‘화(hoa-禍)’와 같은 한월어를 자주 사용하며, 많은 한월어가 베트남에 전파된 후 베트남어로 변형되면서 베트남인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를 고유어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쯔놈’과 ‘한월어’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 용어들 대신 ‘베트남 한자어’로 부르코자 한다.

베트남 한자어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Lưu Tuấn Anh(2011)은 “한국 한자어과 같은 베트남 한자어는 고유어보다 조어력이 높게 보여주고 자유롭게 결합하여 새 단어를 쉽게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人格’(인격/nhân cách)→人(인간/nhân

gian), 人力(인력/nhân lực), 人權(인권/nhân quyền), 個人(개인/cá nhân), 古人(고인/cổ nhân), 夫人(부인/phu nhân), 主人(주인/chủ nhân) 등으로 통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교착어인 한국어의 경우에는 고립어인 베트남어와 달리 ‘-하다’, ‘-되다’ 등을 붙여 단어의 품사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베트남 한자어는 한국 한자어처럼 고유어보다 더 높은 조어력을 가지며, 자유롭게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쉽게 형성할 수 있다.

둘째, 부티 응옥 안(2011)은 베트남 한자 1음절 단일어에는 한국어 한자어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동사와 형용사가 존재하며, 베트남어는 성조 언어로, 각 음절마다 하나의 성조가 있으며, ‘ma(마귀)’, ‘mà(그런데)’, ‘mã(외모)’, ‘má(무덤)’, ‘má(불)’, ‘ma(모)’와 같이 중국어의 성조 4개보다 2개 더 많은 6개의 성조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로 인해 음운적 특성으로 베트남어는 성조가 있어, 동일한 단어라도 성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셋째, 류티짱(2024)에서는 ‘베트남어에서도 일반적으로 한자어는 의미가 구체적이고 정확성 및 개관성이 있으면서 축약 가능성이 강하다’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고유어로 개념을 길고 복잡하게 표현해야 하거나 고유어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을 때, 한자어를 사용하면 간단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의 ‘tế bào hồng cầu(細胞紅球: 적혈구세포)’, ‘tiền đạo(前導: 축구의 전위)’와 같은 한자어는, 해당 개념을 고유어로 길게 설명하거나, 고유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의미적 특성에서 베트남 한자어는 한국 한자어처럼 구체적이고 정확한 의미를 가지며, 축약 가능성이 크다.

넷째, 조명숙(2003)에 의하면 ‘미인(美人)’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표기하면 ‘mỹ(아름다운) nhân(사람)’이지만 고유어로 바꾸게 되면 ‘người(사람) đẹp(아름다운)’으로 어순이 달라지는 것처럼 한자어는 ‘수식어+피수식어’의 순이며 고유어는 ‘피수식어+수식어’의 순서가 된다. 즉, 베트남어는 중국어와 같은 SVO 어순이라고 제시하였지만, 어순에서는 중국어와 다른 경우를 관찰할 수 있으며, 한국 한자어가 베트남 한자어와 달리 중국어의 순서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형태적 특성으로는 베트남 한자어를 로마자로 표현하는 것이 간편하고 복잡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베트남어의 문법적 특성은 어미나 격조사가 없고, 어근이 변화하지 않는 점이다. 베트남어는 고립어로, 한국어와 달리 교착어가 아닌 어순이 문법적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베트남어는 격조사가 없으며, 수나 시제에 따라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반면, 교착어인 한국어는 ‘하다’, ‘되다’와 같은 접미사를 붙이면 단어의 형태가 변화하지만, 베트남어는 동일한 명사가 형용사나 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 문법적 특성으로 베트남어는 어미나 격조사가 없고 어근의 변화가 없으며, 하나의 명사는 접미사를 붙이지 않아도 형용사나 동사로 쓰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한·베 한자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베 한자어는 모두 중국의 한자에서 기원하였으며, 각 언어의 고유한 발음 체계를 반영하여 읽힌다. 따라서 한자의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각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모두 고유어 비해 조어력이 높고, 의미가 구체적이며, 학술·과학·행정 분야 등에서 폭넓게 사용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다소 한자어는 두 음절 구조로 가지며, 의미를 지닌 한자 요소들이 결합하여 복잡한 개념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한·베 한자어는 어휘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언어의 품격과 학문적 성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두 언어의 한자어는 몇 가지 뚜렷한 차이점도 지니고 있다. 언어 유형의 차이로 인해, 한국 한자어는 ‘-하다’, ‘-되다’ 등의 접미사를 붙여 품사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음과 달리, 베트남 한자어는 형태 변화가 없고 문법적 관계가 어순에 의해 결정된다. 음운적 측면에서도 한국어는 성조가 없지만, 베트남어는 여섯 개의 성조를 가지고 있어 같은 음절이라도 성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또한, 문자 체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한자를 교육 및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베트남은 한자를 완전히 폐지하고 라틴 문자 기반의 ‘Chữ Quốc Ngữ(쯔꾸옥응으)’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한자어는 한자의 구조가 비교적 명확히 남아 있는 반면, 베트남 한자어는 베트남어 체계 속에 완전히 융화되어 일상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2.2 한국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의 유사성과 차이점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자의 영향은 중국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 일본, 베트남 인접 국가의 언어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 한자어는 이러한 언어들의 어휘 체계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음운적·의미적·구조적으로 많은 유사성을 보이면서도, 각 언어의 역사적·문화적·언어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동아시아 언어 간 한자어의 비교·연구는 유사성과 차이 모두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김희경(2008:227)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 한자어는 중국어 한자어와 89.27%, 베트남어 한자어와 59.8%가 대응하며, 각각 3.01%, 7.8%의 차이도 존재한다. 즉, 한국어 어휘의 약 60~70%가 한자어이며, 그 의미는 중국어와 약 90%, 베트남어와 약 60%로 일치한다.

한편 김태현(2009:86)은 한국어와 베트남어 한자어의 음운과 의미를 비교한 결과, 약 40%가 음운적으로 유사하고, 단음절 한자어의 의미는 약 99.2% 일치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단어들은 음운과 의미에서 차이를 보여, 두 언어 간 한자어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한자어 간의 음운 체계 및 형태적, 구조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2.1 음운 체계 유사성과 차이점

음절이 표음 문자 체계에서 발음을 나타내는 표기하는 기호인 반면, 한자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의 문자로서 발음을 나타내는 독립적인 기호가 없으며, 한자의 음절은 각 글자의 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최소 의미 단위인 형태소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¹⁾ 또한, 이 음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사용되는 상징적 표기일 뿐이다. 따라서 한자가 표현하는 음절은 표음문자 체계에서 음절이 표기되는 방식과는 다르다. 이러한 현상은 서로 다른 문자 체계를 사용하는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한국어와 베트남어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두 언어에서 사용되는 한자어의 음운 체계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자는 일본어에서처럼 음독(音讀)과 훈독(訓讀) 두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반면에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는 한자를 음독으로만 읽는다. 둘째, 일본어는 한자를 다(多)음절로도 읽을 수 있지만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는 한자어가 보통 한 음절로 읽힌다. 셋째, 한국어는 3,000개²⁾ 이상의 음절을 가지고 있지만, 한자어의 음절 수는 약 500개³⁾로 고유어에 비해 적다. 베트남어는 성조가 풍부하여 7,000개 이상의 음절을 가지지만, 한자어의 음절은 약 1,840개⁴⁾이다. 넷째, 한자어의 수는 많지만 한자음의 수는 적기 때문에 동음이의어가 많다. 이 경우, 한자의 의미를 구별하지 않으면 의미가 혼동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모자(帽子)’는 ‘머리에 쓰는 물건’을 의미하지만, ‘모자(母子)’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베트남 학습자가 두 나라의 한자어 차이를 인식하여 어휘를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음운의 대응 규칙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규칙을 이해하면 학습자는 모르는 단어라도 빠르게 의미를 유추할 수 있어 초급 단계에서부터 어휘력을 확장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한자어 음운 체계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한자음의 음절 초성, 중성, 종성을 비교·분석하여 두 언어 간의 대응 규칙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한자어의 음운적 규칙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어휘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한자어의 음운 체계를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비교하려면 한자 음에 대한 음절 구조인 초성, 중성, 종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에 먼저 한국어와 베트남어 한자어의 음운 체계를 살펴보겠다. 김무림(2017:328)은 “현대 한국어에서 한자음의 음절 구조는 일반 어휘보다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다.”라고 하였다. 즉, 한자음은 고유어와 달리 음절 구성에 있어 다양성이 적어 두 언어 체계 간의 음절 구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2) 신기상(2005), 『현대국어 한자어』 참고

3) 장삼식(1984) 『大字源』 참고

4) Thiều Chửu(2009), 『Tự điển Hán-Việt』 참고

2.2.1.1 한국 한자어의 음운 체계

한자어의 음운 체계는 자음과 모음 체계의 결합, 음운 변동, 음운 규칙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배주채(2003:294)에 의하면, 한국 한자어의 음절 구조는 고유어와 유사하게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며, 중성은 필수적이고 초성과 종성은 선택적일 수 있다. 또한, 한국 한자어의 초성에는 'ㅇ'이 올 수 없다는 점은 한국 고유어와 같다. 그러나 경음자 중 'ㄷ, ㅃ, ㅈ'가 초성에 올 수 없는 현상은 한국 한자어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규칙이다. 따라서 한국 한자어의 초성은 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ㅆ, ㅈ, ㅊ, ㅋ'와 같은 자음으로 구성된다. 반면, 'ㄱ, ㅈ, ㅊ'는 드물게 초성으로 쓰이고, 'ㅇ, ㄷ, ㅃ, ㅈ'는 초성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한국 한자어의 초성 자음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한국 한자어의 초성 자음체계 (배주채 2003:294)

| | | | 양순음 | 전설음 | 후설음 | 성문음 |
|-------------|-----|------------------|------------------------|--------------------|---------------------|------------------|
| 장 애 음 | 폐쇄음 | 평음 | ㅂ/b, ㅍ/ 碑(비[pi]) | ㄷ/t/ 度(도[to]) | ㄱ/k/ 卦(괘[kwɛ]) | |
| | | 경음 | ㅃ/p'/*5) | ㄸ/t'/* | ㅋ/k'/ 喫(깍[k'ik]) | |
| | | 유기음 | ㅍ/pʰ/ 皮(피[pʰi]) | ㅌ/tʰ/ 토(土[tʰo]) | ㅋ/kʰ/ 快(쾌[kʰwɛ]) | |
| | 파찰음 | 평음 | | ㅈ/j/ 調(조[jo]) | | |
| | | 경음 | | ㅉ/j'/* | | |
| | | 유기음 | | ㅊ/jʰ/ 初(초[jʰo]) | | |
| | 마찰음 | 평음 | | ㅅ/s/ 小(소[so]) | | |
| | | 경음 | | ㅆ/s'/ 氏(씨[s'i]) | | |
| | | 유기음 | | | | ㅎ/h/ 下(하[ha]) |
| 공 명 음 | 비음 | ㅁ/m/ 美(미[mi]) | ㄴ/n/ 腦(뇌[nwe]) | ㅇ/ng/ | | |
| | 유음 | | ㄹ/r,l/ 道理(도리[tori]) | | | |

위의 <표2>에 따르면, 한국 한자어의 초성 자음체계에는 ‘ㅃ, ㅌ, ㅍ’ 등의 3개 제외한 15개 있어 고유어의 초성 자음체계(18개)와 차이를 보인다. 신기상(2005)은 한자가 한국에 도입된 이후, 그것들이 고유어의 음운 체계에 여러 면에서 통합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자어 음운 체계와 고유어 음운 체계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며, 한자어 음운 체계는 고유어 음운 체계에 포함되어 사용된다. 그리고, ‘ㅎ’을 제외하면, 이 시스템은 꽤 균형 잡힌 분포를 보인다.

다음은 한국 한자어의 중성 모음체계이다.

[표 3] 한국 한자어의 중성 모음체계 (배주채 2003:295)

| 중성 단순모음체계 | | | | | |
|-----------|----|---------------|------------------------------|-----------------|--|
| 혀의 앞뒤 위치 | | 전설모음 | 후설모음 | | |
| 입술모양 | | 평순 | 평순 | 원순 | |
| 혀의높이 | | | | | |
| 고모음 | | ㅣ /i/ 二(이[i]) | ㅡ /i/ 銀(은[in]) | ㅍ/u/ 右(우[u]) | |
| 중모음 | | ㅓ/e/ 世(세[se]) | ㅓ/ə/ 妻(처[ʧʰə]) | ㅍ/o/ 五(오[o]) | |
| 저모음 | | ㅕ/e/ 愛(애[e]) | ㅓ/a/ 牙(아[a]) | | |
| 중성 이중모음체계 | | | | | |
| 구분 | | 전설평순 | 후설 | | |
| | | | 평순 | 원순 | |
| 상승 | y계 | 고 | | ㅍ/yu/ 有(유[yu]) | |
| | | 중 | ㅓ/ye/ 例(예[ye]) | ㅓ/yo/ 要(요[yo]) | |
| | | 저 | ㅕ/yɛ/ *6) | ㅓ/ya/ 野(야[ya]) | |
| | w계 | 고 | ㅓ/wi/ 位(위[wi]) | | |
| | | 중 | ㅓ, ㅓ/we/ 外(외[we]), 櫃(궤[kwe]) | ㅓ/wə/ 圓(원[wən]) | |
| | | 저 | ㅓ/wɛ/ 倭(왜[wɛ]) | ㅓ/wa/ 課(과[kwa]) | |
| 하강 | y계 | 고 | ㅓ/iy/ 義(의[iy]) | | |

위의 <표3>에 따르면, 중성 모음체계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모음을 구분할

5) ‘*’로 표시된 음소는 한국 현대 한자음에 없다.

6) ‘*’로 표시된 음소는 한국 현대 한자음에 없다

수 있다. 단모음은 한자어와 고유어의 8개(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ㅞ) 음이 동일하고, 이중모음의 경우 고유어의 체계는 12개(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ㅟ, ㅞ, ㅟ, ㅞ, ㅟ) 음이 있는 것에 비해 한자어의 이중모음 체계에는 고유어 이중모음과 같은 ‘ㅟ/ye/’ 음이 없다. 그리고, 상승 이중모음은 y계와 w계로 분류된 고, 중, 저 세 단계에 분포해 있으며, 하강 이중모음은 y계 후설 평순 고모음 ‘의/iy/’만 있다.

류티짱(2024:26~27)의 연구에서, 한국어의 중성 모음은 초성 자음과의 결합할 때 이러한 특성을 보일 수 있다. 치음 ‘ㄷ, ㅌ’는 ‘i’와 ‘y’계 성향 이중모음과 결합할 수 없다. 또한 ‘ㅅ, ㅆ, ㅈ’은 ‘y’계 성향 이중모음과 결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디>지(地), 티>치(痔), 티>치(致), 데>제(第), 테>체(體)/ 세>세(細), 설>설(舌), 족>족(足), 줍>중(衆), 처>처(妻), 총>총(gun)’ 등이 있다. 그리고 ‘ㄱ’과 ‘ㅋ’와의 변별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혜택 [혜택/혜택] (惠澤), 메벌 [메벌/메벌] (袂別), 개폐[개폐/개폐] (開閉), 연계[연계/연계] (連繫), 지혜 [지혜/지혜] (知慧)’ 등이 있다. 또한, 한자어의 운소 체계는 단음과 장음의 2단 체계이다. 장단의 길이는 상대적 길이이며 동일한 분절음인 한자음들을 비교하여 알 수 있다. 단음은 ‘무(無), 대(隊), 신(新), 고(高), 정(丁), 성(成)’ 등이 있고 장음은 ‘무(舞), 대(大), 신(愼), 고(古), 정(鄭), 성(聖)’ 등이 있다고 한다.

즉,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에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에서는 ‘ㄷ, ㅌ’와 같은 폐쇄음이 ‘i’와 ‘y’ 계열의 이중모음과 결합할 수 없으며, ‘ㅅ, ㅆ, ㅈ’과 같은 마찰음은 ‘y’ 계열의 이중모음과 결합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에서 자음과 모음 간의 결합에 있어 명확한 규칙과 구별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ㄱ’과 ‘ㅋ’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은 한국어 음운 체계의 유연성을 잘 보여준다. 특히 한자어의 경우, 이 두 모음의 발음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은 음운 체계의 변동성과 변별력의 부족을 나타낸다. 한편, 한자어의 음운 체계는 단음과 장음의 구별이 있으며, 이는 발음의 길이가 의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음운 체계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자음 및 모음 결합에서 복잡하고 유동적인 특성을 보이며, 발음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는다.

마지막으로, 한국 고유어 음절의 종성에는 7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 쓰일 수 있는데 한자어 음절의 종성에는 ‘ㄱ, ㄴ, ㄹ, ㅁ, ㅂ, ㅇ’의 6 자음만 있는데 종성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4] 한국 한자어의 종성체계 (배주채 2003:296)

| 조음위치 조음방식 | | 순음 | 설음 | |
|--------------|-----|----------------|------------------------------|----------------|
| | | | 전 | 후 |
| 자음 | 무기음 | ㅂ/p/ 級(급[kip]) | ㄷ/t/*7) | ㄱ/k/ 玉(옥[ok]) |
| | 비음 | ㅁ/m/ 三(삼[sam]) | ㄴ/n/ 山(산[san]) | ㅇ/ŋ/ 江(강[kaŋ]) |
| | 유음 | | ㄹ/r/ 八(팔[p ^{har}]) | |

<표4>를 살펴보면, 한자어의 종성 체계에는 자음 ㄷ/t/를 제외한 6개의 자음이 포함되어 있어 고유어의 종성 체계(7개의 자음)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 자음들은 무기음, 비음, 유음으로 구분되며 각각 순음과 설음 위치에 분포한다.

2.2.1.2 베트남 한자어의 음운 체계

음운론에서는 언어의 음성 체계가 두 가지 분절음과 초분절음으로 구분된다. 분절음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음성 단위로서, 자음과 모음을 포함한다. 반면에 초분절음은 개별 음소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분절음이나 발화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음성적 특성을 말한다. 이러한 요소에는 억양, 강세, 음의 길이, 그리고 일부 언어에서 나타나는 성조(tone) 등이 포함된다.

한국어는 의미를 구별하는 기능을 가진 성조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베트남어는 성조 형태의 초분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어휘의 의미를 구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의 “ma”, “má”, “mà”, “mả”, “mã”, “mạ”는 성조만 다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어 음운 체계를 자모 체계와 성조 체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7) ‘*’로 표시된 음소는 한국 현대 한자음에 없다

1) 자모 체계

베트남어의 음운 체계는 한국어보다 훨씬 더 많은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어에는 12개의 단모음 (a, ă, â, e, ê, i, o, ô, ơ, u, ư, y), 30개의 이중모음 (ai, ao, au, ay, âu, ây, eo, êu, ia, iê, iu, oa, oă, oe, oi, ôi, ơi, ơu, ua, uâ, uê, ui, uô, uơ, uy, ưa, ươi, ươ, ưu, yê), 19개의 삼중모음 (iêu, oeo, oai, oay, uya, uyê, uyu, uây, ueo, uao, uai, uau, uay, uâu, uêu, ươu, ươi, uôi, yêu)와 17개의 단자음 (b, c, d, đ, g, h, k, l, m, n, p, q, r, s, t, v, x), 9개의 복자음 (ch, gh, kh, ng, ngh, nh, ph, th, tr)이 있다. 베트남 한자어의 초성, 중성, 종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베트남어의 초성 체계는 22개의 자음(b, ph, v, m, th, t, d, x, d(gi), n, l, tr, s, r, ch, nh, q(u), c, kh, g(gh), ng, h)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r'과 'g(gh)'로 시작하는 베트남 한자어는 없으며, 이는 순수 베트남 고유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5] 베트남 한자어의 초성 자음체계 (김기태 2002:26)

| 조음위치 조음방식 | | 순치음 | | 전설음 | | | 중설음 | 후설음 | 성문음 |
|--------------|------------|---------------|-----------------|------------------|----------------|-----------------|-----------------|--|---------------|
| | | 순 | 치 | 이 | 앞잇몸 | 윗잇몸 | | | |
| 폐쇄음 | 기식 | | | th/th/ 收(thu) | | | | | |
| | 무기식 | 무성 | | t/t/ 修(tu) | | tr/t/ 茶(trà) | ch/c/ 主(chủ) | k,c,q/k/ 記(kí), 古(cổ), 過(quà) | /ʔ/ 汚(ố) |
| | | 유성 | b/b/ 部(bộ) | | đ/d/ 度(độ) | | | | |
| | 공명 (비강) | m/m /墓(mộ) | | | n/n/ 腦(não) | | nh/n/ 如(như) | ng,ngh/ ŋ/ 碍(ngại) 疑(nghi) | |
| 마찰음 | 무성 | | ph/f/ 鋪(phô) | x/s/ 社(xã) | | s/s/ 數(số) | | kh/x/ 氣(khí) | h/h/ 下(hạ) |
| | 유 | | v/v/ | d,gi /z/ | | r/z/*8) | | g,gh/ɣ/* | |

| | | | | | | | | | |
|--|--------|--|-------|------------------|--|--|--|--|--|
| | 성 | | 務(vụ) | 異(dị), 價(giá) | | | | | |
| | 설 측 | | | l/l/ 理(lợi) | | | | | |

<표5>에 따르면 베트남 한자어의 초성 체계에는 'r'과 'g(gh)' 자음이 없고, 베트남 한자어의 초성은 20개의 자음(b, ph, v, m, th, t, d, x, d(gi), n, l, tr, s, ch, nh, q(u), c, kh, ng, h)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조음 위치를 기준으로 보면, 폐쇄음은 순설, 전설, 중설, 후설, 성문에 고르게 배치해 있고, 마찰음은 치음, 전설, 후설, 성문에도 배치해 있다. 조음 방식의 관점에서 폐쇄음은 기식, 무기식, 공명음에 고르게 분포하며, 마찰음은 무성, 유성, 설측음에 고르게 배치해 있다.

다음으로 베트남 한자어의 주단순모음 체계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6>과 같다.

[표 6] 베트남 한자어의 주단순모음 체계 (김기태 2002:35~36)

| 베트남 한자어의 주단순모음체계 ⁹⁾ | | | |
|--------------------------------|--|-------------------------------------|--------------------------|
| 혀의 위치 | 전설모음 | | 후설모음 |
| 입술모양 혀의높이 | 평순 | | 평순 원순 |
| 고모음 | i, y/i/ 益(ích), 醫(y) | | u/u/ 辭(từ) u/u/ 威(uy) |
| 중모음 | ê/e/ 計(kế) | | o/o/ 污(ô) |
| 저모음 | a/ɛ/ 影(ảnh) | | o/o/ 午(ngọ) |
| 베트남 한자어의 주이중모음체계 | | | |
| 중모음 | iê, ia, yê/ie/ 錢(tiền), 義(nghĩa), 線(tuyến) | ươ, ươ/wư/ 常(thường), 乘(thừa) | uô/uo/ 枉(uống) |

위의 <표6>를 보면 한자어의 주단순모음 체계는 고유어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단순모음 체계는 혀의 높이에 따라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되며, 입술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위치에 분포하고 있다. 한편 한자어의 이

8) '*'로 표시된 음소는 베트남 현대 한자음에 없다.

9) 밑줄로 표시된 음소는 베트남 한자음의 이중모음이다

중모음 체계에는 3개의 모음이 있으며, 이중모음은 단순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이 아니라 단순모음과 단순모음이 결합하여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베트남 한자어의 중성 모음체계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모음 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김화(2018:58)의 연구에서 베트남어의 중성 체계는 부모음과 정음으로 두 가지로 나뉘며, 부모음은 음절의 첫번째 자음(초성)과 정음 사이에 위치하며, ‘-u-’나 ‘-w-’로 발음된다. 부모음은 동일한 조음 위치의 음소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b, m, f, v’ 뒤에는 거의 쓰이지 않으며, 차용어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정음인 ‘u, ô, o, uô, ua’ 앞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quốc(國, 國), hoa(花, 花), nguyên(原, 原), khuyết(缺, 缺) 등과 같이 부모음이 들어가는 한자 어휘도 있다라는 것을 논의한다. 즉, 중성 체계는 크게 부모음과 정음으로 나누며, 부모음이 초성 및 정성과 결합하는 데에 몇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어에서 중성 체계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로 인해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대조 분석하는 많은 연구에서 중성 체계에 대해 깊이 다루지 않고 대신 중성 체계를 더 명확하게 정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어의 중성 체계는 다음 <표7>와 같다.

[표 7] 베트남 한자어의 중성체계 (Đoàn Thiện Thuật 2007:283)

| 조음위치 조음방식 | | 순음 | 설음 | |
|--------------|-----|------------------------|------------------------|-------------------------------|
| | | | 전 | 후 |
| 자음 | 무기음 | p 級(cấp) | t | c, ch/k/ 極(cực), 劇(kịch) |
| | 비음 | m 感(cảm) | n | ng, nh/ŋ/ 房(phòng) 情(tình) |
| 반모음 | | u, o /w/ 頭(đầu) 島(đảo) | i, y/j/ 時(thời) 髓(tủy)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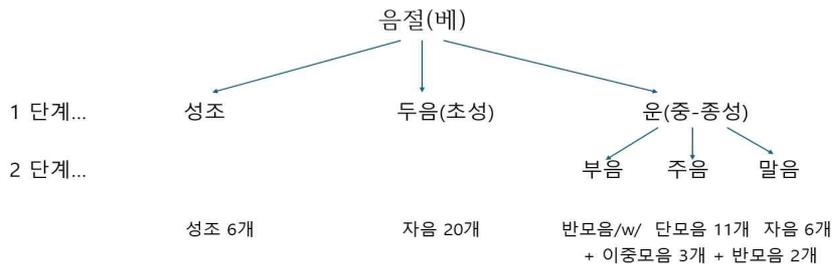
<표7>에 따르면, 베트남 한자음(p, m, t, n, c/ch, nh/ng)은 6개와 반모음(u/o, i/y)은 2개가 있다. 이는 한자어 중성 체계는 고유어의 경우와 완전히 일치한다. 자음은 무기음, 비음으로 분류되며 순음과 설음 위치에 충분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반모음은 ‘w, j’가 순음과 설음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이를 통해 베트남어에는 한국어와 같은 파찰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ㄷ, ㅌ, ㅈ’ 발음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2) 성조 체계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비교 시, 가장 큰 차이점은 베트남어는 성조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 한자어의 음절 구조에서 성조가 지닌 역할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볼 수 있다.



<그림1> 베트남 한자어의 음절 구조 (김기태 2002:22)

<그림1>을 통해서 베트남 음절 구조는 하나의 음절이 작은 각각의 요소로 나뉘게 되면 항상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 베트남 한자어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며, 성조가 1단계 속에 있어 음절 구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어와 베트남 한자어는 6개의 성조를 가지고 있으며 5개의 부호로 표시된다. 각 성조는 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래 <표8>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8] 베트남의 성조체계 표기

| 음조 음역 | | 연음(延音) | 경음(硬音) | |
|----------|----|-------------------------------------|------------------------------------|-----------------------------|
| | | | 꺾임 | 비꺾임 |
| 고음 | | 1: ngang (không dấu) 精 (tinh-정제) | 3: ngã (~) 靜 (tĩnh-조용하다) | 5: sắc (') 性 (tính-성격) |
| 저음 | | 2: huyền (˘) 情 (tình-감정) | 4: hỏi (?) 醒 (tỉnh-깨다) | 6: nặng (.) 淨 (tịnh-정하다) |
| 성조체계 표기 | | | | |
| 순서 | 기호 | 명칭 | 발음 방법 | 어휘 |
| 1 | i | ngang(không dấu) | 중간음보다 조금 높은 음으로 평평하게 발음함 | tinh 精 |
| 2 | i | huyền | 중간음보다 낮게 시작하고 밑으로 부드럽게 내림 | tình 情 |
| 3 | ĩ | ngã | 중간음보다 높게 시작하고 내렸다가 잠깐 멈춰 끝에 급격히 올림 | tĩnh 靜 |
| 4 | i | hỏi | 중간음보다 낮게 시작하고 밑으로 내린 후 끝에 약간 올림 | tinh 醒 |
| 5 | í | sắc | 중간음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빨리 올려줌 | tính 性 |
| 6 | ì | nặng | 중간음보다 낮게 시작하고 목에 힘주면서 짧게 내림 | tịnh 淨 |

중국어가 4개의 성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것과 비교하여 베트남어는 6개의 성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어에서는 성조가 발음에서만 구별되거나 로마자 표기법에서 나타나는 반면, 베트남어에서는 성조가 문자상에 명확하게 표기되며, 성조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러한 이유로 성조는 베트남어에서 단어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표를 보면, 음역이 높은 ‘a, ā, á,’ 성조가 있고 그중에 ‘a’ 성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음역이 변하지 않으며, 낮은 성조로는 ‘à, â, ạ’가 있다.

2.2.1.3 음운 체계 대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운 체계는 초성, 중성, 종성의 세 부분으로 나뉘며, 이는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언어 모두에 해당된다. 이러한 구분은 음운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양 언어 간의 음운 체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가 된다.

두 언어의 음운 체계 간의 상호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 요소 즉, 초성, 중성, 종성을 개별적으로 대조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각 요소는 발음 방식, 어휘 구조, 학습자의 언어 습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류티짱(2024:35)은 이와 같은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초성, 중성, 종성 각각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양 언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두 언어의 각 음운 요소가 어떻게 작동하고 상호 작용하는지를 논리적으로 밝히고 있다.

[표 9] 한·베 한자어에서 유사하게 발음되는 초성과 비율 (류티짱 2024:37)

| 순서 | 한국어 | 베트남어 | 비율 |
|----|-----|-------------|-------|
| 1 | ㄱ | k, c, qu/k/ | 63.8% |
| 2 | ㅋ | kh | 100% |
| 3 | ㄴ | b | 40.7% |
| 4 | ㄷ | n | 100% |
| 5 | ㄸ | đ | 93.8% |
| 6 | ㅌ | th | 58.9% |
| 7 | ㅍ | ph | 28.3% |
| 8 | ㅊ | ch | 21.8% |
| 9 | ㅅ | s | 12.3% |
| 10 | ㅎ | h | 91.2% |
| 11 | ㅁ | m | 73.4% |
| 12 | ㄹ | l | 97% |

위 <표9>에 따르면, 양국 언어의 초성 대응 비율은 대체로 50% 이상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두 언어 간의 음운 체계가 일정 부분 유사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부 자음에서는 현저히 낮은 대응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ㅃ’-‘b’는 40.7%, ‘ㅍ’-‘ph’는 28.3%, ‘ㅈ’-‘ch’는 28.6%, 그리고 ‘ㅅ’-‘s’는 12.3%에 불과하다. 이러한 낮은 비율은 두 언어 간의 자음 조음 방식, 음가 차이, 또는 발음 환경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음운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ㅅ’-‘s’의 경우, 12.3%라는 수치는 가장 낮은 대응률로, 이 자음이 양국 언어 간 변환 시 불안정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언어 간 음운 대응 양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표 10] 한·베 한자어의 유사하게 발음되는 중성과 비율 (류티짱 2024:41)

| 순서 | 한국 한자어 중성 | 베트남 한자어 중성 | 비율 |
|----|-----------|------------|-------|
| 1 | ㅏ | a | 60,8% |
| 2 | ㅓ | ê | 77,4% |
| 3 | ㅗ | ô | 50,5% |
| 4 | ㅜ | u | 36,1% |
| 5 | ㅡ | ư | 12,2% |
| 6 | ㅣ | i | 47,3% |
| 7 | ㅑ | oa | 15,6% |
| 8 | ㅚ | i/y | 80,3% |
| 9 | ㅙ | uy | 90% |

중성모음 체계 부분에서는 일부 모음이 매우 높은 대응율을 보였다. 예를 들어, 한국어 ‘ㅙ’와 베트남어 ‘uy’는 90%, ‘ㅚ’와 ‘i/y’는 80.3%로 매우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반면, ‘ㅡ’-‘ư’(12.2%), ‘ㅑ’-‘oa’(15.6%)처럼 낮은 대응율을 보인 조합도 있었다. 이는 한국어 특유의 음운이 베트남어에 없거나 발음 구조가 달라서 직접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이다. ‘ㅓ’-‘ê’(77.4%), ‘ㅏ’-‘a’(60.8%) 등은 중간 이상 수준으로, 두 언어의 발음 위치가 유사한 단모음일 때 대응이 잘 되는 편이다.

한·베 한자어의 중성 간에는 일정한 규칙성과 차이가 공존하며, 이를 기반으로 언어 비교, 교육, 번역 시스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의 중성 체계는 매우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1] 한-베 한자음 중성 대조 (류티짱 2024:41)

| 한국 중성 | 베트남 중성 | 예 | | |
|-------|--------|-----|-------------|----|
| | | 한국어 | 베트남어 | 한자 |
| ㄱ/k/ | c/k/ | 세력 | thế lực | 勢力 |
| | | 시각 | thời khắc | 時刻 |
| | ch/k/ | 면적 | diện tích | 面積 |
| | | 책임 | trách nhiệm | 責任 |
| ㄴ/n/ | n/n/ | 방면 | phương diện | 方面 |
| | | 순환 | tuần hoàn | 循環 |
| ㄷ/d/ | t/t/ | 발생 | phát sinh | 發生 |
| | | 동물 | động vật | 動物 |
| ㅁ/m/ | m/m/ | 음악 | âm nhạc | 音樂 |
| | | 모험 | mạo hiểm | 冒險 |
| ㅂ/p/ | p/p/ | 방법 | phương pháp | 方法 |
| | | 보급 | phổ cập | 普及 |
| ㅇ/ŋ/ | ng/ŋ/ | 풍속 | phong tục | 風俗 |
| | | 형식 | hình thức | 形式 |
| | nh/n/ | 배경 | bối cảnh | 背景 |
| | | 동맹 | đồng minh | 同盟 |

위의 <표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자 음절의 중성 체계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중성체계는 두 언어에서 그리 복잡하지 않다. 두 언어 모두 중성 간에 상당히 유사한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중성 ‘ㄱ’은 베트남어의 ‘k’에, 중성 ‘ㄴ’-‘n’, ‘ㅁ’-‘m’과 대응하고, ‘ㅂ’-‘p’, ‘ㅇ’-‘ng/nh’에 대응한다.

한·베 한자 음절 체계를 비교해 보면, 두 언어에는 상당히 유사한 음독이 많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學-학/hak/-học, 國-국/guk/-quốc 등 여러 한자어에서 이러한 대응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어를 모르는 베트남어 화자가 ‘학문’(học môn)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나, 베트남어를 모르는 한국어 화자가 ‘kinh tế’(경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두 언어의 유사한 발음 체계에 기반하여 의미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친숙함 때문에 베트남어의 성조 체계와 같이 앞서 언급한 요소들로 인해, 음이 유사한 여러 한자어 사이에서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두 언어 간의 음절 대응 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한국어

또는 베트남어 학습자가 한자어를 더욱 정확하게 기억하고 추론할 수 있게 되어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2.2 형태적 유사성과 차이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한자어를 형태적 동형동의어, 동형이의어, 이음동의어로 구분하며 이를 통해 두 언어의 의미적 및 음운적 특성을 명확히 할 것이다. 동형동의어, 동형이의어, 이음동의어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두 언어의 음운적 특성과 의미적 차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각 언어에서 한자의 수용 및 변형 과정을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2.1 동형동의어

동형동의어는 동형어와 동의어 개념을 결합하여 형성된다. 이 부분에서는 같은 언어 계통 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 동형어와 동의어의 개념이 아닌, 대조 언어학 범주에서 이를 논의하고자 한다. 즉, 동형어와 동의어는 동일한 언어 계통 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 계통 간의 비교를 통해 설명된다. 더 넓게 설명하자면, 한 언어 내에서 두 단어가 형식과 의미에서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형어는 동형의 의미를 가진 단어의 약자이며, 동의어는 동형동의어의 약자이다. 이경현(2009:22)의 연구에 따르면, 한·베 양국에서 사용되는 동형한자어 중 완전 동의어는 481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의 4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동의어는 ‘의미가 같은 말’로 정의된다. 한편, Mai Ngọc Chừ(1997:85)은 동의어를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음성이 다른 단어들의 집합’으로 정의하였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동의어에 대한 정의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핵심적인 의미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의 동의어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인 내용은 유사하지만, 정의의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동

형동의어'를 '완전 동형동의어'로 명명하고자 한다. '완전 동형동의어'는 '완전 동형어'와 '완전 동의어'의 개념을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완전 동형어'는 두 나라의 한자어가 형태상 동일하고, 동음 현상도 나타나는 단어이다. 반면 '완전 동의어'는 의미가 같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사용되더라도 약간의 어색함이 있을 수 있으나 사용에는 큰 지장이 없는 단어이다. 이러한 완전 동형동의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19] 한-베 완전 동형동의어

| 음절 | 한자 | 한국어 | 베트남어 |
|-----|------|------|--------------------|
| 2음절 | 可能 | 가능 | khả năng |
| | 民族 | 민족 | dân tộc |
| | 農民 | 농민 | nông dân |
| 3음절 | 不得已 | 부득이 | bất đắc dĩ |
| | 半自動 | 반자동 | bán tự động |
| | 公休日 | 공휴일 | ngày nghỉ công |
| 4음절 | 民主主義 | 민주주의 | chủ nghĩa dân chủ |
| | 公益廣告 | 공익광고 | quảng cáo công ích |

양국의 완전 동형동의어에서 공통적인 점은 한자어의 형태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학적 특성에서 한국어는 교착어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근이나 명사에 접미사를 추가하여 다양한 품사를 형성할 수 있는 언어이다. 반면, 베트남어는 고립어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어의 한자어는 접미사 없이도 여러 품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언어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에서는 한자어의 어근이 주로 명사로 사용되는 반면, 베트남어에서는 한자어가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동사 등 다양한 품사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는 양국의 모든 동형동의어가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일부 한자어는 한국어 또는 베트남어에 수용되었지만, 한자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원어의 형태와 의미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佳詞-가사-ca từ, 感激-감격-cám kích, 등이 있다.

2.2.2.2 동형이의어

윌티탄(2024)의 연구에 따르면, 동자(Homograph)는 철자가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를 의미한다. 한·베 한자어는 공통된 어원에서 출발하였지만, 언어가 발전하면서 각 언어에서의 한자어는 서로 다른 방향과 의미로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언어의 한자어는 형태는 유사하지만 의미가 겹치지 않게 되어 동형이의어가 형성되었다. 이는 동형 완전이의어와 동형 부분이의어로 나눌 수 있다. 동형 완전 이의어의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동형 완전이의어

(1) 環境 - 환경 - Hoàn cảnh¹⁰⁾

·한국어: **환경 (N)**: 생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 주변의 생태 상태. ㄱ)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베트남어: **Hoàn cảnh (N)**: 일의 형편이나 까닭.

ㄴ) Hoàn cảnh gia đình khó khăn. (가족의 상황이 가난하다)

(2) 工夫 - 공부 - công phu¹¹⁾

·한국어: **공부 (N)**: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

ㄱ)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

·베트남어: **Công phu (A)**: 꼼꼼하다.

ㄴ) Chuẩn bị đề án rất công phu. (대안을 꼼꼼하게 준비했다)

(3) 自信 - 자신 - Tự tin

·한국어: **자신 (N)**¹²⁾:

① 그 사람의 몸 또는 바로 그 사람을 이르는 말.

ㄱ) 그는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신청을 했다.

② (사람을 가리키는 말 뒤에 쓰여) 다름이 아니고 앞에서 가리킨 바로 그 사람임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ㄴ) 나 자신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베트남어: **Tự tin(N)**: 자신감

ㄴ) Cô ấy rất tự tin vào năng lực của bản thân trong buổi phỏng vấn này (그녀는 이번 면접에서 자신의 능

10) 워터탄(2024) 단어 참고하고 예시 추가하였다.

11) 워터탄(2024) 단어 참고하고 예시 추가하였다.

12) 다의어의 경우 의미를 표준국어대사전에 나타난 방식으로 나누어서 제시함.

력에 대해 매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4) 比喻 - 비유 - ví dụ

·한국어: **비유 (N)**: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수사법. ㄱ) 일을 비유로 설명하다.

·베트남어: **Ví dụ (N)**: 본보기가 될 만한 사물.

ㄴ) hãy giải thích và cho ví dụ. (예를들고 설명하세요.)

(5) 平民 - 평민 - bình dân¹³⁾

·한국어: **평민 (N)**: 벼슬이 없는 일반인 또는 직무가아닌 일반시민.

ㄱ) 호치민은 평민 출신의 인재이다.

·베트남어: **Bình dân (A)**: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다.

ㄴ) Cô ấy chỉ là người dân bình thường. (그녀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2) 동형 부분어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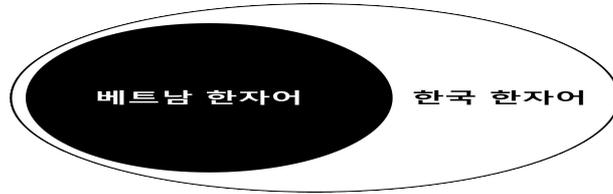
동형 완전어의어와 마찬가지로, 동형 부분어의어도 동형어의어의 한 유형에 속하며, 동형과 부분적 동의어의 개념이 결합되어 형성된다. 이경현(2009:37)의 연구에 따르면, 한·베 한자어 중에서 동형동의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동형 부분어의어로 총 407개, 전체의 35.8%를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형 부분어의어를 각 언어의 의미 범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한국어에서 의미 범위가 더 넓은 경우 (한>베), 둘째, 베트남어에서 의미 범위가 더 넓은 경우(베>한), 셋째, 양국어에서 일부 의미가 공통되는 경우(한≠베)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는 동형 한자어 사이의 의미적 유사성과 차이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각 언어에서 해당 단어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에서 의미 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총 407개의 동형 부분어의

13) 원티탄(2024) 단어 참고하고 예시 추가하였다.

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구체적인 분포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2> 한국어의 의미 범위가 더 큰 동형 부분어의어

(1) 干涉¹⁴⁾

·한국어: ① 간섭 (N), (V-하다):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¹⁵⁾ ㄱ) 남의 일에 지나친 간섭을 하지 마라.

② [물리] 두 개 이상의 파(波)가 한 점에서 만날 때 합쳐진 파의 진폭이 변하는 현상. ㄴ) 빛의 간섭.

·베트남어: can thiệp (V): 한국어 ①과 같음. Bị can thiệp

ㄷ) Đùng can thiệp vào việc của người khác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2) 事情¹⁶⁾

·한국어: ① 사정 (N): 일의 형편이나 까닭. ㄱ) 사정에 밝다.

② 사정 (N), (V-하다): 어떤 일의 형편이나 까닭을 남에게 말하고 무엇을 간청함. ㄴ) 친구는 잘 봐달라고 선배에게 사정했다.

·베트남어: sự tình (N): 한국어 ①과 같음.

ㄷ) Sáng tỏ sự tình (사정에 밝다).

(3) 埋葬

·한국어: ① 매장 (N), (V-하다): 시체나 유골 따위를 땅속에 묻음. ㄴ) 매유

ㄱ) 단원들이 우르르 달려붙어 흙을 퍼붓기 시작하자 매장은

14) 이경현(2009:38)

15) 이경현(2009:40)

16) 한국어의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사용하였다.

쉽게 끝났다.

② **매장 (N)**: 어떤 사람을 사회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ㄴ) 그렇게 비열한 인간은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야 한다.

·베트남어: **mai táng (V)**: 한국어 ①과 같음

ㄷ) Ông ấy đã được mai táng ở nghĩa trang này (그는 이 묘지에 매장되었다).

둘째, 베트남어에서 의미 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두 언어의 한자어가 형태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베트남어에서 한국어보다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유형이다. 이러한 사례의 분포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3> 베트남어의 의미 범위가 더 큰 동형 부분어의어

(4) 發言

·한국어: **발언(發言) (N)**: 말을 꺼내어 의견을 나타냄. 또는 그 말.

·베트남어: ① **Phát ngôn (V)**: 발언하다,

ㄱ) Người phát ngôn vô trách nhiệm là người không đáng tin. (무책임 발언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② **Phát Ngôn (N1)**: 발언

ㄴ) Phát ngôn của anh ta gây tranh cãi. (그의 발언은 논쟁을 일으켰다)

③ **Phương ngữ(N2)**: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언어 행위 = 방언

ㄷ) Những người ở địa phương sử dụng phương ngữ riêng của mình. (이 지방 사람들은 고유의 방언을 사용한다.)

(5) 英雄¹⁷⁾

17) 원티탄(2004) 재인용

·한국어: **영웅(英雄) (N)**: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 ㄱ) 영웅 대접을 받다.

·베트남어: ① **Anh hùng (N1)**: 영웅

ㄴ) Bộ phim đó đậm màu sắc chủ nghĩa anh hùng kiểu Hàn. (그 영화는 한국식 영웅주의 색채가 강하다.)

② **(N2)**: 경제의 성공에 크게 공헌한 노동자나 전쟁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주는 정부의 제일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포상의 명칭.

③ **(N3)**: 영웅다운. 또는 그런 것

ㄴ) Nhân vật anh hùng. (영웅적인 인물)

(6) 監視¹⁸⁾

·한국어: **감시(監視) N-V(하다)**: 감시 단속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살핌.

·베트남어: ① **Giám thị (V)**: 감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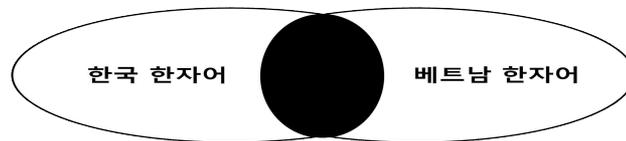
ㄱ) Công việc của anh ấy là Giám thị các hoạt động.

(그 작업은 움직임을 감시하는 일이다.)

② **Giám thị(N)**: 감독관

ㄴ) Giám thị coi thi chưa đến (시험 감독관이 아직 안 왔다).

셋째, 양국어의 일부 의미가 공통되는 경우는 는 비율은 낮지만, 동형 부분 이의어에 속하는 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아래 그림과 같이 볼 수 있다.



<그림4> 양국어의 일부 의미가 공통적인 부분 동의어

(7) 革命¹⁹⁾

·한국어: **혁명**: ① **(N1)**: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 ㄱ) 혁명 시대.

18) 마이느응우엣(2015) 재인용

19) 마이느응우엣(2015)

- ② (N2): 이전의 왕통을 뒤집고 다른 왕통이 대신하여 통치하는 일. ㄴ) 혁명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다.
- ③ (N3):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
 - ㄷ) AI 기술은 산업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베트남어: **Cách mạng:**

- ① (N1): 한국어 N1과 같음.
 - ㄷ) *Thế lực cách mạng.* (혁명 세력)
- ② (N2): 한국어 N2과 같음.
 - ㄹ) *Cuộc cách mạng kỹ thuật.* (기술적 혁명)
- ③ (N3): 혁명을 실현하거나 지향하는. 또는 그런 것.
 - ㅅ) *Hành động mang tính cách mạng.* (혁명적인 행동.)

(8) 國語

·한국어: **국어:** ① (N1): 한 나라의 국민이 쓰는 말.

ㄱ) 이 책은 이십여 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② (N2): 우리나라의 언어.

·베트남어: **quốc ngữ:**

① (N1): 한국어 N2과 같음.

ㄴ) *Học quốc ngữ* (국어를 공부하다).

② (N2): [구어] = **chữ quốc ngữ**(國字).

ㄷ) *Sách quốc ngữ* (국자로 된 책)

2.2.2.3 이형동의어

이형동의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양국 한자어에서 어떤 어휘의 의미는 비슷하지만 쓰는 글자나 형태가 다른 말이다. 이의어와 달리 이형어는 글자가 가진 의미의 차이에 집중하는 것보다 형태적 측면에 집중한다. 그러므로, 이형동의어는 음절 수가 대응하는 경우와 대응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표 20] 한-베 다음절 이형동의어

| 음절 수 | 한국어 | 베트남어 |
|------|------------|--------------------------|
| 2 | 수표(手票) | chi phiếu(支票) |
| | 전공(專攻) | chuyên nghiệp(專業) |
| | 성장(成長) | trưởng thành(長成) |
| | 감독(監督) | đạo diễn(導演) |
| 3 | 초보자(初步者) | Già Sơ Học(初學者) |
| | 전문점(專門店) | Chuyên Mại Điểm(專賣店) |
| 4 | 민주주의(民主主義) | chủ nghĩa dân chủ(主義民主) |
| | 기세등등(氣勢騰騰) | khí thế bừng bừng(氣勢洶洶) |
| 속담 | 백년해락(百年偕樂) | bách niên giai lão(百年偕老) |
| | 유일무이(唯一無二) | độc nhất vô nhị(獨一無二) |

위에 표는 양국의 한자어에서 이형동의어의 다음절을 나열한 예시이다. 이를 통해 차이점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글자 내에서 음절의 순서나 위치가 교체된 단어, 두 번째는 한~두 음절이 완전히 다른 음절로 대체된 단어, 세 번째 경우는 음절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단어로 완전 이형을 가진 동의어들이다. 완전 이형을 가진 동의어는 대부분 2음절 단어에서 나타난다.

둘째, 음절 수 대응하지 않는 경우이다. Luu Tuan Anh(2019)은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한자어를 여러 방식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러한 수용 방식은 음운, 의미, 통사 등 차원에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앞서 언급된 한자음을 가진 어휘들은 여전히 언중에서 한자어로 인식되겠지만, 다양한 차원에서 수용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순수 귀화어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양국은 독립적인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으며, 한자어와 고유어로 결합해 구성된 다음 예시들을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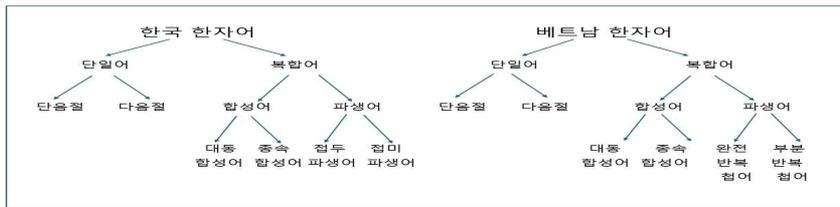
[표 21] 음절 수 대응하지 않는 경우 예시

| 한국어 | 음절 수 | 베트남어 | 음절 수 |
|----------|------|--------------------------|------|
| 각각(各各) | 2 | mỗi (每) | 1 |
| 간호사(看護師) | 3 | y tá (醫佐) | 2 |
| 시내(市内) | 2 | trung tâmthànhphố (中心城鋪) | 4 |
| 사랑(愛) | 2 | Tình yêu (情愛) | 2 |
| 결승(決勝) | 2 | chung kết(終結) | 2 |

위의 내용은 양국 한자어의 형태적 구성을 살펴본 것이다.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자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더라도 새로운 단어를 쉽게 기억하고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의미가 다른 동형이의어와 이형이의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오류를 겪게 만든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다음은 구조적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2.2.3 구조적 유사성과 차이점

양국 한자어의 어휘적 대부분의 한자어는 2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정원수(1992:85)에서 3음절, 4음절 또는 그 이상의 음절로 이루어진 한자어도 결국 2음절 구조로 귀결되기 때문에 2음절 구조를 가진 한국 한자어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구조적인 분석을 위해 선행된 많은 연구에서는 단일어(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와 복합어(두 개 이상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를 집중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아래 내용에서는 양국의 한자어 단일어와 복합어 구조를 분석하고 대조하고자 한다.



<그림5> 양국의 한자어 조어법에 따른 분류

2.2.3.1 단일어

1) 한국 한자어의 단일어

한국의 한자어에서 단일어는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주로 단순 한자어의 한 구성 요소로 취급된다. 단일어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뜻하는 것으로, 한 음절로 구성된다. 이는 다른 한자어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의미를 나타낸다. 한자어의 단일어는 한국어 고유어가 없을 때 그 자리를 차지하거나, 원래 있던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된 경우가 많아서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단일어의 수는 많지 않다. 한국 한자어(단일어)는 주로 한자어로 표기되지만, 그 의미가 한글로 표현되는 경우를 말한다.

[표 22] 한국 어휘 체계의 한자어의 단일어 (원티탄 2024:30)

| | | | | | | | |
|----|------|------|------|------|------|------|------|
| 명사 | 자립명사 | 문(日) | 방(房) | 색(色) | 차(車) | 책(冊) | 향(香) |
| | 의존명사 | 권(卷) | 명(名) | 분(分) | 번(番) | 년(年) | 일(日) |
| | 수사 | 십(十) | 백(百) | 천(千) | 만(萬) | 억(億) | 조(條) |
| | 부사 | 즉(卽) | 단(但) | 혹(或) | 종(種) | 잠(暫) | 만(萬) |
| | 관형사 | 전(全) | 고(故) | 순(純) | 현(現) | 총(總) | 신(新) |

이를 통해 한자 단어에는 단일 음절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단어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자어는 하나의 한자가 독립적인 한자어로 기능할 수 있는 자립 한자어와 다른 한자와 결합해야지만 한자어로 기능하는 의존 한자어로 나뉜다. 자립 한자어로는 ‘간(間)=사이’, ‘광(光)=빛’, ‘검(劍)=칼’, ‘객(客)=손님’, ‘근(根)=뿌리’, ‘택(宅)=집’, ‘양(兩)=두 개’, ‘도(徒)=길’, ‘재(再)=다시’ 등이 있으며, 이들 간에는 의존 한자어와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 한자 단일어의 구조는 ‘어근(한)+어근(한)’, ‘어근(고)+어근(고)’, 또는 ‘어근(한)+어근(고)’ 등의 기본적인 형태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는 언어의 생산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한자어 + 한자어

- 차: 녹차(綠茶), 홍차(紅茶)
- 탕: 삼계탕(蔘鷄湯)
- 전: 녹두전(綠豆煎), 생선전(生鮮煎)

고유어 + 한자어

- 생강차(-茶), 대추차(-茶)
- 갈비탕(-湯), 감자탕(-湯)
- 과전(-煎), 호박전(-煎)

다음절 한자어는 대부분 유사한 의미를 가진 고유어와 대응하지만, 이들의 의미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음절 한자어는 자립적인 한자어보다는 의존적인 한자어가 더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형(兄)은 공부를 한다'라는 문장에서 '형(兄)'은 독립적인 한자어지만, '*제(弟)는 책을 읽다'라는 문장에서 '제(弟)'는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의존 한자어이다. 따라서, '형제(兄弟)가 공부를 하고 책을 읽다'와 같은 문장에서 '형제(兄弟)'는 독립 한자어와 의존 한자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자립 한자어를 형성한 경우에 속한다.

2) 베트남 한자어의 단일어

한국어와 같은 베트남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한자 어근의 요소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과 한자 어근과 고유어 하나의 요소를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한자어와 고유어 사이에 동의 중복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binh lính(병-/病-), ngày sinh nhật(生日, 생일날), trên sân thượng(屋上, 옥상 위) 같은 것들이 있다. 특히 한자어와 고유어의 동의 중복은 어휘적인 단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휘 통합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quảng trường lớn(넓은 광장/-廣場), cậu bé nhỏ(작은 소년/少年-), không gian trống(빈 공간/空間-), tân lang mới(새로운 신랑/新郎-)'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베트남 한자어 단일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품사에 속하며, 단일어는 구체적 명사와 추상적 명사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 명사는 실체가 있는 사물

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방(房)’, ‘병(瓶)’, ‘문(門)’ 등이 있다. 반면 추상적 명사는 개념이나 특성을 나타내며, ‘지(志), 혼(魂), 선(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일어는 또한 복합어의 구성 요소로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동서남북(東西南北)’이나 ‘춘하추동(春夏秋冬)’ 같은 단어들이 있다.

이러한 단일어는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의미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địa(地)’는 한국어에서 지리(地利), 지구(地球)와 같은 단어에 해당하며, 베트남어에서는 ‘địa lý’, ‘địa cầu’와 같은 대응어가 있다.

또한, 단일어 동사에서는 ‘진(進, tiến), 등(登, đăng), 행(行, hành)’ 등이 사용되며, 주체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단어로는 ‘희(喜, hỷ), 노(怒, nộ), 애(愛, ái)’ 등이 있다. ‘화(火)’와 같은 단어는 ‘화나다’, ‘화내다’라는 표현처럼 베트남어에서도 ‘bốc hỏa’, ‘hạ hỏa’와 같은 대응어가 있다.

형용사형 단일어는 명확한 기준 없이 동사나 형용사로 구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重)’은 중국어에서 경중(敬重), 존중(尊重)과 같이 동사로도 사용되며, 중요(重要), 귀중(貴重)과 같은 형용사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베트남어에서 ‘trọng (重)’은 동사로 사용되며, 이는 ‘높은 수준’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접두사와 접미사는 매우 생산적인 요소로 사용되며, 예를 들어 접두사에는 ‘vô (무-)’와 ‘sở (소-)’가 있고, 접미사에는 ‘-sĩ (-사)’, ‘-viên (-원)’ 등이 있다.

또한, 현김화(2018)는 “한국 한자 단일어는 주로 명사인 반면, 베트남 한자 단일어는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나 형용사로도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였다. 베트남어에서는 단위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며, 이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 ‘-번(番, phiên), -권(卷, quyển), -근(斤, cân), -장(張, trang)’ 등이 있다. ‘강(盞, giăng)”, -증(增, tăng), 감(監, giám)’과 같은 단어도 자주 사용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할 수 있다.

현김화(2018)에 따르면 한국 한자 단일어는 주로 명사이지만 베트남 한자 단일어는 명사, 동사나 형용사를 포함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한국 한자 단일어보다 베트남 한자 단일어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단위를 말하는 경우

는 ‘-번(番, phiên), -권(卷, quyển), -근(斤, cân), -장(張, trang)’ 등이 있다. 또한 ‘강-(薑, giàng), -증(增, tăng), 감(監, giám)’ 등과 같은 동작이나 행동을 표현하는 베트남 한자 단일어도 많이 사용되며, 이것을 통해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한자어 단일어는 모두 단일 음절로 이루어진 한자 형태소를 중심으로 하지만, 사용 범위와 기능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에서는 한자 단일어가 주로 명사로 사용되며,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 자립 한자어와 다른 한자와 결합해야 의미를 갖는 의존 한자어로 나뉘어, 단독보다는 복합어 구성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베트남어 한자 단일어는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와 형용사로도 폭넓게 사용되며, 독립적 사용뿐 아니라 고유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생산적 기능이 두드러진다.

또한, 단위, 동작, 행동을 나타내는 단일어가 풍부하여 한국어보다 한자 단일어의 수와 기능이 훨씬 다양하다. 결과적으로, 두 언어 모두 한자 단일어를 통해 어휘적 생산력을 높이지만, 한국어는 명사 중심의 제한적 활용, 베트남어는 명사·동사·형용사 모두를 포함한 다용도 활용이라는 차이를 보인다.

2.2.3.2 복합어

1) 한국 한자어의 복합어

복합어는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복합어 가운데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 파생된 단어이고, 합성어는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를 말한다. ‘일(一) nhất, 이(二) nhị, 삼(三) tam, 사(四) tứ’ 또는 ‘전(前) tiền - 후(後) hậu’, ‘상(上) thượng - 하(下) hạ’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단음절 한자어는 그에 상응하는 같거나 비슷한 뜻의 고유어가 존재한다.

그들은 의미 영역 상에 차이가 있으며 고유어와 한자어가 서로 상보적 의미로 그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1음절 한자어는 자립 한자어보다는 의존 한자

어가 훨씬 더 많다. 예를 들어 ‘내(內,nội)/외(外,ngoại)’의 경우에는 ‘시내(市內,thị nội)/시외(市外,thị ngoại)’, ‘국내(國內,quốc nội)/국외 quốc ngoại’ 등이 있고, ‘상(上,thượng)/하(下,hạ)’의 경우는 ‘상급(上級,thượng cấp)/하급(下級,hạ cấp), 상등(上等,thượng đẳng)/하등(下等,hạ đẳng)’ 등의 경우가 있다.

(1) 합성어

합성어는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 복합어로, 어근 간의 결합 방식에 따라 대등 합성어(coordinate compound)와 종속 합성어(subordinate compound)로 구분된다. 한자는 각각의 글자가 독립적인 의미를 지닌 ‘표의 문자’이자,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단어 문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글자는 하나의 단어로 기능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한국어에는 한 글자가 단일어로 사용되는 1음절 한자어가 많다. 예를 들어 ‘강(江), 산(山), 문(門), 차(車), 향(香), 열(熱), 정(情)’과 같은 단어들은 각각 한 글자가 독립적인 단어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1음절 한자어는 고유어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기도 하며, 예를 들어 ‘산길(山-), ‘문턱(門-), ‘향내(香-)’와 같은 경우가 있다.

또한, 이러한 1음절 한자어는 자립적인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1음절 한자어와 결합하여 2음절 합성어를 형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강산(江山), ‘창문(窓門), ‘감정(感情)’ 등의 단어는 1음절 한자어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2음절 합성어를 이루고 있다.

① 대등 합성어

대등 합성어는 어근이 대등한 관계로 결합하여 본래의 뜻을 유지하며, 이러한 합성어에서는 의미상으로 크게 대립 관계와 유사 관계를 포함하여 대등한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다.

- ㄱ) 대립관계: 유무(有無:있음과 없음), 천지(天地;하늘과 땅)
 유사관계: 신체(身體:사람의 몸), 희망(希望;바람)
 대등관계: 초목(草木:풀과 나무), 부귀(富貴;부자 많고 지위 높음)

② 종속 합성어

종속 합성어는 한 어근이 다른 어근을 수식하는 구조로, 수식어가 앞에 위치하고 중심어가 뒤에 위치하는데, 이 구조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와 동사 및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ㄴ) 명사의 수식

- | | | |
|---------|-------------|-------------|
| 형용사+명사: | 다국적 (여러 국적) | 감미 (단맛) |
| 동사+명사: | 유언 (남긴 말) | 낙엽 (떨어진 잎) |
| 명사+명사: | 가사 (집안일) | 태극기 (태극 깃발) |

ㄷ) 동사 및 형용사의 수식

- | | | |
|--------|--------------|----------------|
| 부사+동사: | 불변 (변하지 않음) | 과식 (지나지게 먹음) |
| 명사+동사: | 법치 (법으로 다스림) | 독살 (독을 사용해 죽임) |

(2) 파생어

파생어는 어근에 접두사나 접미사와 같은 의존 형태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접두사와 접미사는 본래 의미를 전달하지 않으며, 문법적 기능만을 수행한다. 즉, 어근과 접사의 결합을 통해 단어가 만들어지며, 접사는 어근의 품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파생어는 접두파생어와 접미파생어로 나눌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무(無)'라는 한자는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의식'이나 '무조건'처럼 접사와 결합하여 의미가 한정된 단어를 만든다. 한자 파생어는 접사 중 하나가 한자의 어근으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① 접두 파생어

접두 파생어는 어근 앞에 접두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며, 한국어에서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변화시키지 않고 의미를 추가해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접미사에 비해 접두사는 기능이 단순하고 종류도 적다. 예를 들어, ‘대(大)’는 ‘큰’ 또는 ‘위대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고, ‘소(小)’는 ‘작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고(高)’는 ‘높은’ 또는 ‘훌륭한’의 뜻을 더하는 반면, ‘저(低)’는 ‘낮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서로 대립적인 의미를 가진다.

ㄹ) 대(大): 대규모(大規模), 대다수(大多數)

소(小): 소강당(小-講堂), 소사전

저(低): 저품질, 저혈압(低血壓)

고(高): 고성적, 고혈압(高血壓)

또한, ‘미(未)’는 ‘아직 되지 않음’을 뜻하고, ‘비(非)’는 ‘아님’을 의미하며, ‘불(不)’은 ‘아님, 어긋남’ 등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들로, 이들 역시 부정을 나타내는 유사한 의미를 공유한다.

ㄹ) 미(未): 미성년(未成年), 미완성(未完成)

비(非): 비공개(非公開), 비공식(非公式)

불(不): 불규칙(不規則), 불평등(不平等)

부(不): 부도덕(不道德), 부정확(不正確)

현김화(2019)는 “접두파생 한자어는 고유어 어근에도 다양하게 결합하여 새로운 어휘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하였다.

② 접미 파생어

접미 파생어는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를 의미한다. 한국어

에서 접미과생어는 접두과생어와 달리 다양한 품사의 어근에 결합할 수 있으며, 비교적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한자어 접미사는 대개 어근의 품사를 변화시키지만, 통사적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 ㄷ) -가(家): 건축가(建築家), 기술가(技術家)
- 객(客): 관광객(觀光客), 여행객
- 관(官): 법무관(法務官), 도서관(圖書館)
- 인(人): 한국인(韓國人), 내국인(內國人)
- 자(者): 과학자(科學者), 문학자(文學者)
- 생(生): 실습생(實習生), 대학생(大學生)
- 장(長): 공장장(工場長), 위원장(委員長)

또한, 한자어 접미사는 고유어 접미사와는 달리, 그 한자의 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 성분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나 ‘직업’과 관련된 접미과생어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이러한 접미과생어는 한자어 접미사의 특징을 반영하며, 그 의미는 접미사의 특성과 함께 형성된다.

- ㄹ) -가(家): 미술가(美術家), 건축가(建築家)
- 사(士): 변호사(辯護士), 세무사(稅務士)
- 사(師): 요리사(料理師), 사진사(寫眞師)
- 원(員): 공무원(公務員), 사무원(事務員)

원티탄(2024)의 연구에서는 “굴절 접미사를 제외한 부분의 직접구성요소 중의 하나가 과생접사인 어휘를 가리킨다. 사간(詞干)이 어근과 사철(詞綴)로 이루어진 것이다 (정원수:1994:87), 혹은 ‘제일(第一)’ ‘기자(記者)’ 등과 같은 과생어의 구성 방식에는 어근에 전철(前綴)이 더해진 것(제, 第)와 어근에 후철(後綴)이 더해진 것(자, 者)이 있다 (첸루, 2020).”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2) 베트남 한자어의 복합어

베트남 한자어의 복합어는 기본적으로 합성어와 첩어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먼저 베트남 한자어 합성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합성어

합성어는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의미를 형성하는 단어로, 대부분의 베트남 한자어가 합성어에 해당한다. 합성어는 어근들이 서로 의미 관계를 가지며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이러한 합성어는 구성 방식에 따라 대등 합성어와 종속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등 합성어는 크게 합성 명사형, 합성 동사형, 합성 형용사형으로 나눌 수 있다.

- ㄱ) 합성 명사형은 두 개의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명사를 형성하는 형태이다. ‘男+女 → 男女(남녀, nam nữ)’, ‘父+母 → 父母(부모, phụ mẫu)’, ‘江+山 → 江山(강산, giang sơn)’ 등과 같이, 선행 요소인 명사와 후행 요소인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명사가 된다.
- ㄴ) 합성 동사형은 두 개의 동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동사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生+死 → 生死(생사, sinh tử)’, ‘勝+敗 → 勝敗(승패, thắng bại)’, ‘賞+罰 → 賞罰(상벌, thưởng phạt)’와 같이 선행 동사와 후행 동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동사로 의미를 구성한다.
- ㄷ) 합성 형용사형은 두 개의 형용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형용사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大+小 → 大小(대소, đại tiểu)’, ‘黑+白 → 黑白(흑백, hắc bạch)’, ‘長+短 → 長短(장단, trường đoản)’처럼 형용사 두 개가 결합하여 하나의 형용사로 의미를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베트남 한자어의 대등 합성어는 고유어와 다르게, 결합하는 방식이 고정적인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phong phú(풍부, 豐富)', 'thích hợp(적합, 適合)', 'hạnh phúc(행복, 幸福)', 'phú quý(부귀, 富貴)'와 같은 경우는 결합 방식이 고정되어있는 반면, 'đơn giản'와 'giản đơn(간단, 簡單)', 'tranh đấu(투쟁, 鬪爭)'와 'đấu tranh'처럼 순서가 바뀌어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종속 합성어는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한정(限定) 관계로, 부요소가 선행하고 정요소가 후행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지배(支配) 관계로, 정요소가 선행하고 부요소가 후행하는 경우이다.

ㄷ) 한정 관계의 종속 합성어의 경우, 선행하는 부요소와 후행하는 정요소가 결합하여 의미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大+門 → 大門(대문, đại môn)’에서는 ‘大’가 부요소로, ‘門’이 정요소로 결합하여 ‘대문’이라는 의미의 명사를 만든다.

‘正+門 → 正門(정문, chính môn)’에서는 ‘正’이 부요소로, ‘門’이 정요소로 결합하여 ‘정문’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된다.

‘厚+謝 → 厚謝(후사, hậu tạ)’에서는 ‘厚’가 부요소로, ‘謝’가 정요소로 결합하여 ‘후사’라는 동사를 형성한다.

‘感+謝 → 感謝(감사, cảm tạ)’에서는 ‘感’이 부요소로, ‘謝’가 정요소로 결합하여 ‘감사’라는 동사를 만든다.

‘共+益 → 共益(공익, công ích)’에서는 ‘共’이 부요소로, ‘益’이 정요소로 결합하여 ‘공익’이라는 형용사를 만든다.

‘私+益 → 私益(사익, tư ích)’에서는 ‘私’가 부요소로, ‘益’이 정요소로 결합하여 ‘사익’이라는 형용사를 형성한다.²⁰⁾

ㄹ) 지배 관계의 종속 합성어의 경우, 선행하는 정요소와 후행하는 부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

‘出+張 → 出張(출장, xuất trường)’에서는 ‘出’이 정요소로, ‘張’이 부요

20) 원티탄(2024) 참고하고 정리하였다.

소로 결합하여 ‘출장’이라는 동사를 형성한다.

‘出+版 → 出版(출판, xuất bản)’에서는 ‘出’이 정요소로, ‘版’이 부요소로 결합하여 ‘출판’이라는 동사를 만든다.

‘毒+藥 → 毒藥(독약, độc dược)’에서는 ‘毒’이 정요소로, ‘藥’이 부요소로 결합하여 ‘독약’이라는 형용사를 만든다.

‘補+藥 → 補藥(보약, bổ dược)’에서는 ‘補’가 정요소로, ‘藥’이 부요소로 결합하여 ‘보약’이라는 형용사를 형성한다.

이처럼 베트남 한자어의 종속 합성어는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관계에 따라 한정 관계와 지배 관계로 구분되며, 각 유형은 의미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첩어

첩어(reduplicative words)는 한 어근이 반복되어 이루어진 합성어로, 반복 합성이라고도 불린다. 첩어는 한 어근이 완전히 반복될 수 있으며, 때로는 어근의 음상이 약간 바뀌어 반복되거나, 두 어근 사이에 연결사를 삽입할 수도 있다. 첩어는 의성어나 의태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앞뒤의 구성 요소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약간 다르게 반복되는 첩어는 음성 상징어로 사용되는데, 주로 의성어나 의태어의 역할을 한다.

베트남 한자어 첩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완전 반복 첩어는 어근이 정확히 반복되어 형성되는 첩어이다.

ㄱ) “thị thị phi phi(是是非非)-시시비비, trùng trùng điệp điệp(重重疊疊)-중중첩첩, đường đường chính chính(堂堂正正)-당당정정, hư hư thực thực(虛虛實實)-허허실실

이와 같은 첩어 요소는 한국어의 반복합성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기본 단위를 반복하여 형성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국어에

서 한자 반복합성어는 일반적으로 음절 단위로 완전히 반복되며, 예를 들어, 面面村村(면면촌촌), 坊坊曲曲(방방곡곡), 逐次(차차) 등이 있다. 이러한 단어 들은 주로 문장에서 부사로 기능한다. 반복합성어는 완전히 동일하게 반복되 거나 음절 일부가 약간 변형되어 반복되기도 하지만, 베트남어의 첩어에 비해 사용 빈도와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주로 문어체나 공식적인 맥락에 서 나타난다.

반면, 베트남어의 첩어는 전체 음절을 반복하는 완전 첩어와 일부 음절만 반복하는 부분 중첩어로 구분되며, 의미를 강조하거나 감정과 상태를 표현하 는 데 활용된다. 또한, 베트남어의 첩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매우 자주 사용 되며, 주로 고유어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한국 한자 반복합성어와 차이를 보인다.

ㄴ) trác trở(崩阻)-즉조, ngâm nga(吟哦)-음아, phỏng phất(仿佛)-방불, hùng hổ(雄虎)-웅호.

예시와 같은 부분 첩어는 주로 초성 음을 반복한 경우이다. 따라서 한자 반 복합성어와 베트남어 첩어는 모두 반복 원리를 기반으로 의미적 효과를 생성 하지만, 사용 빈도와 어근의 역할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베트남어 첩어는 주로 고유어로 이루어져 일상적이고 유연하게 활용되는 반면, 한자 반복합성 어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모두에서 수와 사용 맥락이 제한적이다.

베트남어에서 첩어의 사용에 있어서 고유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사용 비율이 매우 높다. 고유어 첩어는 주로 의미를 강조하거나 감정과 상태를 표 현하는 데 활용되며, 반복적인 어근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러한 첩 어는 의성어나 의태어로서의 역할을 하며, 언어적 강조를 통해 청자에게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한자어로 구성된 첩어는 베트남어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사용을 보인다. 한자어 첩어는 고유어 첩어에 비해 그 빈도가 낮으며, 주로 문어체나 공식적인 맥락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차이는 고유어의 첩어가 일상적인 대화

에서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며, 그 사용 영역이 고유어에 의해 차지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베트남어 첩어에서는 고유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한자어 첩어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이는 베트남어의 어휘 체계에서 고유어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며, 첩어의 사용에서도 고유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2.3 한자어 학습과 의미 투명성

한자 교육에서는 개별 한자의 의미를 먼저 제시하는 하향식 접근 방식만으로는 실제 어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목(目)’을 단순히 ‘눈’으로만 학습하면, ‘덕목’과 같이 의미가 확장된 단어를 접할 때 해당 한자의 실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노명희 2006:477). 이처럼 단순한 한자 음과 전통적 의미의 암기는 한자어 전체 의미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며, 이는 해당 단어의 의미 투명성(semantic transparency)과 관련된다.

의미 투명성은 특히 복합 한자어 학습에서 중요한 인지적 요소로, 학습자가 각 구성 요소(주로 한자 형태소)의 의미를 바탕으로 단어 전체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의미 투명성이 높은 단어는 구성 요소와 전체 의미 간의 연계가 명확하여 학습자의 이해와 기억에 도움을 준다.

레조안통(2024:44)은 다양한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의미 투명성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들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각 정의에서 강조하는 핵심 개념과 공통된 인식의 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표 23] 의미 투명성의 정의 (레조안통 2024:44)

| 연구 | 의미 투명성에 대한 정의 |
|---------------|---|
| 장광군(1993:17) | 해당단어의 구성요소를 분석할 수 있고 그 구성요소에 의해 단어의 전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의 정도 |
| 김왕규(2004:200) | 알고 있는 한자의 뜻을 그 한자를 형태소로 하는 한자어에 대입할 때 직해(直解)할 수 있는 정도 |

| | |
|---------------------------|---|
| 김정남(2007:2) | 실제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어떤 형태가 복합어의 일부이든 단일이든 막론하고 그 형태의 의미가 화자들에게 분명히 인지되는 정도 |
| 노명희(2008:95) | 합성성의 원리에 의한 개별 한자의 의미와 한자어 전체 의미의 관련성 |
| 허시운(2010:2) | 한자어의 구조, 구성 성분이 한자어의 의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정도 |
| 배성봉·이광오·박혜원 (2012:609) | 합성어의 구성 성분 각각의 의미가 단어 전체 의미에 기여하는 정도 |
| 허철(2016:402) | 한자의 의미와 한자어 의미 파악의 연관 관계 |

<표 16>와 같은 정의들은 표현 방식은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한자어 내부의 구조적 요소와 의미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즉,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있어서 구성 성분의 분석 가능성과 그 성분들이 전체 의미에 어떻게 역할을 하는 지가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의미 투명성이 높은 단어일수록 학습자가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어휘 학습의 효율성과 지속성에 큰 영향을 준다.

의미 투명성의 개념은 한자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수·학습 전략으로 전환될 수 있다. 특히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에게는 단어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 성분의 의미를 바탕으로 전체 의미를 유추하는 방식이 학습 부담을 줄이고 어휘 확장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기반한 대표적인 학습 방법이 단서 기반 학습이다. 이 방법에서는 학습자에게 각 한자어의 의미를 사전 제시하거나 유도 질문을 통해 제공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복합어의 전체 의미를 추론하게 한다. 예를 들어, ‘학생(學生)’이라는 단어를 학습할 때, ‘학(學)’이 ‘배우다’를, ‘생(生)’이 ‘살다’, 또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점을 제시하면, 학습자는 이를 종합하여 ‘공부하는 사람’, 즉 ‘학생’이라는 전체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의미 투명성이 높은 어휘는 학습자의 인지적 참여를 유도하고, 분석적 사고력을 촉진하며, 나아가 단어의 장기 기억 저장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이러한 학습 방식은 한자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학습자 스스로 단어 구조를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모든 한자어가 높은 의미 투명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이다. 일부 단어는 역사적 변화, 비유적 의미 확장 또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구성 성분의 의미와 전체 의미 간의 연계성이 낮거나 불투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문맥 기반 학습이나 시각적 자료, 예문 제공 등 다양한 보조 학습 도구의 병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한자어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 어휘의 성격, 의미 투명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 암기 중심의 전통적 방법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언어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적 연계를 스스로 탐색하고 체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미 투명성은 항상 단일하고 명확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성 성분(형태소)과 전체 단어 의미 간의 의미적 연계성의 정도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학습자가 각 유형의 어휘에 대해 어떤 학습 전략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한자어는 복합적 구조를 지니며, 의미 해석에 있어 형태소 간의 연계성 차이에 따라 학습의 난이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노명희(2008:95~101)은 의미 투명성의 개념을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분류는 실제 언어 학습 및 분석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그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은 핵심 원칙에 기반하다.

첫째, 의미 투명성은 단순히 ‘투명’, ‘불투명’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다양한 정도의 중간 단계가 존재한다. 둘째, 분석은 현재 음만이 아니라, 다의적 의미와 의미 합성 원리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구성 요소 의미가 명확하다고 해서 전체 의미가 자동적으로 투명한 것은 아니다. 넷째, 의미 투명성은 학습자의 인지적 인식과 지식에 따라 달라지며, 심리언어학적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한자어가 의미적으로 ‘투명하다’고 간주되기 위해서는, 구성 성분 각각의 의미가 화자에 의해 정확히 인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들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전체 의미가 해당 어휘의 실제 의미와 일치해야 한다. 구성 성분의 의미 인식이 불완전하거나 전체 의미를 왜곡할 경우, 해당 어휘는 투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 <표18>는 노명희(2008)에 따라 한자어의 의미 투명성을 분류하였다.

[표 24] 한자어의 의미 투명성 분류 (노명희 2008:108~109)

| 분류 | | 예 |
|-----|--|----------------|
| 투명 | 구성성분 A와 B의 의미가 한자어의 전체 의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 ‘이용, 표현, 계산’ 등 |
| 반투명 | 구성성분 중에 두 번째 구성성분의 의미만이 투명하게 인식되는 것 | ‘모양, 조사’ 등 |
| | 구성성분 중 첫 번째 구성성분의 의미만이 투명하게 인식되는 것 | ‘문제, 내용, 의견’ 등 |
| | 구성성분 A와 B의 의미가 모두 반영되면서 새 의미가 추가된 것 | ‘친구, 사진, 신문’ 등 |
| 불투명 | 구성성분 A, B의 의미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제3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 | ‘공부, 문화’ 등 |

<표 18>을 살펴보면 한자어의 구성 성분과 전체 의미 간의 연계 정도에 따라 의미 투명성을 ‘투명’, ‘반투명’, ‘불투명’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 유형 내에서도 보다 세분화된 하위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단어의 형태적·의미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어휘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먼저, 투명형은 구성 성분 A와 B의 의미가 단어 전체의 의미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 유형으로, ‘이용’, ‘표현’, ‘계산’ 등의 어휘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어휘는 학습자가 각 한자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구성 성분을 조합하여 전체 의미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 중심의 교수법에 매우 적합하다. 반투명형은 보다 복잡한 유형으로, 세 가지 하위 형태로 나뉜다. 첫 번째, 구성 성분만 의미가 투명하게 인식되는 경우는 ‘모양’, ‘조사’ 등이 예시이며, 두 번째 구성 성분만이 의미 해석에 기여하는 경우는 ‘문제’, ‘내용’, ‘의견’ 등이 해당된다. 세 번째 하위 유형은 구성 성분 A와 B 모두의 의미가 반영되면서, 거기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어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의미 변형이 있는 경우로, ‘친구, 사진, 신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반투명 어휘는 구성 성분이 일부 의미 해석에 기여하지만 전체 의미

를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교수·학습 시 적절한 예문이나 맥락 제시가 요구된다. 반면, 불투명형은 구성 성분 A와 B의 의미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제3의 새로운 의미가 나타나는 유형이다. ‘공부’, ‘문화’ 등은 이러한 어휘에 해당되며, 단어의 의미가 통시적 변화나 관습적 사용에 따라 형성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의미 투명성이 낮은 어휘는 구성 성분 분석을 통한 학습이 어려우며, 문맥을 기반으로 한 반복 노출 및 실제 사용 중심의 접근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유형 분류는 단지 이론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 학습 현장에서 의미 중심의 접근이 가능한 어휘와 그렇지 않은 어휘를 구별하고, 그에 맞는 학습 전략을 구성하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완전 투명형 어휘는 구성 성분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지만, 불투명형이나 유사 투명형 어휘는 맥락 기반의 접근이나 반복 노출을 필요로 한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베트남 학습자들은 한자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비록 이들 단어가 모국어인 베트남어의 한자어와 발음이 유사하더라도, 단순히 음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거나 문맥에 맞게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들을 종합하여 단어 전체의 의미를 유추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의미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다.

예를 들어 ‘수강(受講)’이라는 단어는 ‘수(受):받다’, ‘강(講):강의’를 의미함을 알게 되면, 학습자는 이를 통해 ‘강의를 받는다’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없이 ‘수강 = 수업을 듣는다’와 같이 전체 단어를 하나의 고정된 단위로 암기하면, 유사한 구조의 ‘청취(聽取)’, ‘접수(接受)’ 등은 완전히 새로운 어휘로 인식되어 어휘 확장이 어렵게 된다.

하지만 베트남 학습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언어 체계를 배우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어에는 상당수의 어휘가 한자어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chính sách)’, ‘예방(dự phòng)’, ‘온도(nhiệt độ)’와 같이 한국어 한자어와 의미·형태상 유사한 단어들도 많다. 이러한 언어적 배경은 학습자의 선행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는 베트남어

한자어와 한국어 한자어 간의 대응 관계를 인식시키고 비교·분석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기존 지식을 활성화하고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방(豫防)’이라는 단어를 학습할 때, ‘예=dự’, ‘방=phòng’이라는 형태소 대응을 제시하면 학습자는 쉽게 의미를 유추하고 기억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형태소 감수성과 의미 투명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단순한 암기가 아닌 이해 기반의 어휘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레조안통(2024:55)은 전광진(2006)이 제안한 ‘힌트 중심 교수학습법(Learning by Hint: LBH)’은 효과적인 지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방법은 한자어 각 구성 성분에 담긴 암시적 의미(힌트)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단어의 전체 의미를 추론하도록 유도하다고 하였다. 예컨대 ‘정책(政策)’이라는 단어는 ‘정(政)’이 ‘정치’, ‘책(策)’이 ‘계책’을 의미함을 알려주면, 학습자는 ‘정책 = 정치적인 계책’이라는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LBH 교수법의 장점은 단어 하나하나를 외우는 데 그치지 않고, 공통된 구성 원리를 파악해 어휘 체계를 넓힐 수 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온도(溫度)’라는 단어에서 ‘온(溫)’이 ‘따뜻함’, ‘도(度)’가 ‘정도’를 의미함을 알게 되면, 학습자는 ‘강도(強度)’, ‘속도(速度)’, ‘정도(程度)’와 같은 유사한 구조의 단어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단어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와 추론을 통해 어휘를 확장하는 데 효과적이다.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자어 학습에서 겪는 주요 어려움은 의미 투명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구조 분석 능력의 부족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한자어 기반의 선행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LBH와 같은 형태소 분석 중심의 교수법을 도입한다면, 어휘 이해력과 추론력, 기억력 향상은 물론 한자어 어휘력을 체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의미 투명성과 선행 지식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교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한자어 교수·학습 방법

앞서 제2장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한자어 구성과 특성을 대조하여, 음운·형태·구조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두 언어가 공유하는 공통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학습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차이가 의미 수용 과정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또한, 베트남 학습자에게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의미의 투명성에 관한 내용도 제시하였다.

외국어 학습자는 다양한 새로운 어휘를 접하게 되며, 시험이나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스스로 의미를 추측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자어 학습에서는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의미를 탐색하고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베트남 학습자는 두 언어의 음운 및 의미 체계 차이 때문에 오류를 범하는데, 이러한 오류 분석은 효과적인 교수법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 장에서는 베트남 학습자가 한자어 학습 과정에서 자주 보이는 오류 유형을 분석하고, 동음어 및 의미 투명성 활용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학습자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를 검토하여 연구 주제의 필요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3.1 베트남 학습자의 한자어 학습의 어려움

한자어 학습은 의미와 음운 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학습자에게 특히 높은 난이도를 요구한다. 모어적 배경이 다른 학습자들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방식의 오류를 보이며, 한자문화권 출신 학습자들 사이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학습상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민정(2021)의 연구에서는 베트남, 대만,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국가 출신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국가별로 30명씩 선정해서 제60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쓰기 54번 문항에 대한 응시자 120명의 작문을 분석하였다.

[표 25] 언어권별 어휘 오류 비교표 (김민장 2021:30~131)

| 오류 유형 | 오류 항목 | 언어권 | 작문의 수량(편) | 오류개수(개) | 백분율(%) | 평균(개) | 오류 순위 |
|----------------|-------------|-----|-----------|---------|--------|-------|-------|
| 형태적 오류 (588) | 형태적 오선택 | 대만 | 30 | 130 | 13.5 | 4.33 | 4 |
| | | 베트남 | 30 | 68 | 7.66 | 2.27 | 4 |
| | | 일본 | 30 | 75 | 9.75 | 2.5 | 4 |
| | | 중국 | 30 | 108 | 12.4 | 3.6 | 4 |
| | 차용어 오류 | 대만 | 30 | 11 | 1.14 | 0.37 | 6 |
| | | 베트남 | 30 | 19 | 2.14 | 0.63 | 6 |
| | | 일본 | 30 | 13 | 1.69 | 0.43 | 6 |
| | | 중국 | 30 | 15 | 1.72 | 0.5 | 6 |
| | 왜곡어 | 대만 | 30 | 40 | 4.15 | 1.33 | 5 |
| | | 베트남 | 30 | 30 | 3.38 | 1 | 5 |
| | | 일본 | 30 | 27 | 3.51 | 0.9 | 5 |
| | | 중국 | 30 | 52 | 5.97 | 1.73 | 5 |
| 의미적 오류 (2,903) | 의식 관계 혼동 오류 | 대만 | 30 | 158 | 16.41 | 5.27 | 3 |
| | | 베트남 | 30 | 183 | 20.61 | 6.1 | 2 |
| | | 일본 | 30 | 148 | 19.22 | 4.93 | 3 |
| | | 중국 | 30 | 169 | 19.4 | 5.63 | 3 |
| | 언어오류 | 대만 | 30 | 194 | 20.15 | 6.47 | 2 |
| | | 베트남 | 30 | 160 | 18.02 | 5.33 | 3 |
| | | 일본 | 30 | 168 | 21.82 | 5.6 | 2 |
| | | 중국 | 30 | 174 | 19.98 | 5.8 | 2 |
| | 함축 의미 오류 | 대만 | 30 | 3 | 0.31 | 0.1 | 7 |
| | | 베트남 | 30 | 2 | 0.22 | 0.07 | 7 |
| | | 일본 | 30 | 2 | 0.26 | 0.07 | 7 |
| | | 중국 | 30 | 1 | 0.12 | 0.03 | 7 |
| | 현상 오류 | 대만 | 30 | 427 | 44.34 | 14.23 | 1 |
| | | 베트남 | 30 | 426 | 47.97 | 14.2 | 1 |
| | | 일본 | 30 | 336 | 43.69 | 11.2 | 1 |
| | | 중국 | 30 | 352 | 40.41 | 11.73 | 1 |

그 중, 베트남 학습자의 어휘 오류를 정리하면 <표 19>과 같다.

[표 26] 베트남 학습자의 어휘 오류 유형 비율

| 오류 유형 | | 오류 개수(개) | 백분율(%) | 평균(개/인) | 순위 |
|--------|-------------|----------|--------|---------|----|
| 형태적 오류 | 오선택 | 68 | 7.66 | 2.27 | 4 |
| | 차용어 오류 | 11 | 1.14 | 0.37 | 6 |
| | 왜곡어 | 40 | 3.38 | 1.33 | 5 |
| 의미적 오류 | 의식 관계 혼동 오류 | 183 | 20.61 | 6.1 | 2 |
| | 언어 오류 | 160 | 18.02 | 5.33 | 3 |
| | 함축 의미 오류 | 2 | 0.22 | 0.07 | 7 |
| | 현상 오류 | 426 | 47.97 | 14.2 | 1 |

이를 토대로, 베트남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다음의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접두사 및 어근 오류: 단어 구성 요소인 접두사와 어근을 잘못 결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생성하는 오류이다. 원인은 단어 구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한월어 구조의 간섭이다.

ㄱ) ‘역영향 받는’(×) → ‘역효과가 나는’(√), ‘악영향’(×).

(2) 접미사 오류: ‘-성’, ‘-감’, ‘-적’ 등의 접미사를 생략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오류로, 의미 전달이 불완전해진다.

ㄴ) ‘자신’(×) → ‘자신감’(√), ‘양면’(×) → ‘양면성’(√). 이는 파생어 구조에 대한 학습이 미흡한 데에서 비롯된다.

(3) 차용어 오류: 베트남어의 한월어를 한국어의 한자어로 직역해 사용함으로써, 실제 의미와 어긋나는 경우이다.

ㄷ) ‘장성’(×) → ‘성장’(√), ‘압력’(×) → ‘스트레스’(√). 이는 한자음 중심의 기계적 번역이 원인이다.

(4) 음절 오류: 음절의 순서, 발음, 철자, 생략 등으로 인해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는 오류이며,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뉜다.

- ㄹ) • 음절 역순: ‘문학’(×) → ‘학문’(√);
• 혼합형: ‘정극적인’(×) → ‘긍정적인’(√);
• 음절 누락: ‘초학교’(×) → ‘초등학교’(√).

이러한 오류는 유사 발음과 음절 구조 혼동에서 기인한다.

(5) 의미 관계 혼동 오류: 상위어·하위어 간의 의미 관계를 혼동하거나 부적절한 하위어를 사용하는 오류이다.

ㅁ) ‘과학자’(×) → ‘학자’(√), ‘물질’(×) → ‘육체’(√), ‘외국인’(×) → ‘원어민’(√). 단어 간 추상성 및 의미 계층 구조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발생한다.

(6) 연어 오류: 명사와 동사 등의 단어 결합이 어색하거나 문법적으로 부적절한 경우이다.

ㄷ) ‘존재되고’(×) → ‘존재하고’(√), ‘교육 되는 아이’(×) → ‘교육 받은 아이’(√). 이는 연어(collocation) 학습 부족이 원인이다.

(7) 유의어 선택 오류: 유의어의 의미 차이, 어감, 문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부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오류이다.

ㄸ) ‘양육’(×) → ‘양성’(√), ‘심리’(×) → ‘마음’(√), ‘자기 자신’(×) → ‘스스로’(√). 이는 유의어 간 뉘앙스 구분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계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자어를 사용할 때 자주 나타나는 오류는 단순한 철자나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문맥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데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특히 베트남어와 한국어 사이에는 발음이 비슷한 한자어가 많아 학습자에게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익숙함이 오히려 잘못된 의미 추론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 학습자의 한자어 사용 오류는 단순한 철자나 발음 실수에 그치지 않고, 단어의 구성 방식, 의미 해석, 문맥 사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특히 베트남어와 한국어 간의 발음 유사성은 학습자에게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오히려 단어 의미를 혼동하게 만들고 부정확한 사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단어의 구성 요소나 의미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유사하게 보이는 표현을 잘못 조합하거나 문맥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오류가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육 방식은 여전히 음과 뜻의 단순 매칭이나 암기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사용 상황에서 어휘를 정확하게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어의 형식과 의미를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합적 오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어휘 교

육 전략을 제안하였다.

첫째, 동음어 활용한 방법이다. 베트남 학습자가 한국어 한자어를 학습할 때 흔히 범하는 여러가지 오류 중 상당수는 발음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음운 유사성은 학습자에게 익숙함을 주지만, 의미와 용법의 차이를 간과하게 만들며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이러한 착각을 줄이고, 유사한 음을 가진 단어들을 비교·대조함으로써 학습자가 의미적·구문적 차이를 인식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의미 투명성 활용한 방법이다. 이는 단어 구성 요소의 의미 기능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맥에 맞게 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 방법은 파생어 구조와 접사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의미 전달의 정밀성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 두 전략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동음 인식 전략은 발음 유사성에서 비롯된 오류를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며, 의미 투명성 전략은 의미 해석과 문법적 적합성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이 두 전략을 병행하는 것은 베트남 학습자의 한자어 사용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3.2 동음어를 활용한 학습 방법

앞선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어에도 풍부한 한자어 체계가 존재하며, 형태와 의미 면에서 한국어 한자어와 여러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어 한자어와 베트남어 한자어 사이의 음·훈 대응 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동음어를 활용한 방법은 베트남 중급 학습자가 한자어를 학습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 접근하기 쉽고 친근한 학습 전략이 될 수 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 모두에서 한자어는 기본 어휘를 이루며, 특히 학술적·공식적 담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통의 한자 기반으로 인해 두 언어 간에는 음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어휘, 즉 동음어(同音語)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역사적·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동일한 한자어라도 각 언어에서

의미가 다르게 발전하거나 변형되기도 하므로, 단순히 음이 같다는 이유로 의미까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음어를 유형화하고, 음과 의미의 관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은 어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한-베 동음어는 음운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정의되며, 그 유형은 동음동의어와 동음이의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에 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동음동의어는 발음과 의미까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어휘는 베트남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에게 어휘 추론과 기억에 있어 긍정적인 전이를 유도할 수 있으며,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學問’은 한국어에서 ‘학문’, 베트남어에서 ‘học vấn’으로 나타나며, 모두 ‘지식을 축적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반면, 동음이의어는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달라, 음만으로 추론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公衆 - 공중’은 한국어에서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지만, 베트남어 ‘công chúng’은 특정 집단을 가리키거나 부정적 뉘앙스를 가질 수 있다. ‘革命-혁명-cách mạng’과 ‘社會-사회-xã hội’ 또한 의미 범위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동음이의어 학습은 문맥 분석, 두 언어 간 의미 비교, 실제 사용 예문 중심의 학습이 필요하다. 이는 학습자가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고,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며 언어 간 오류 전이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이처럼 동음동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구분하는 것은 효율적인 어휘 학습 전략 수립의 기초가 된다.

학습 전략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음어 활용 학습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Nation(2001)은 어휘 학습 전략을 의미 추론과 장기 기억의 두 축으로 구분하며, 이 중 의미 추론 전략은 학습자가 새로운 어휘의 뜻을 음운 및 의미적 유사성에 기반하여 추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Schmitt(2008)는 어휘의 반복과 체계적 활용이 장기 기억 형성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으며, Oxford(1990)는 학습자의 인지 전략, 특히 음운 분석과 의미 분석 능력이 동음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Mai Thi

Huong(2019)의 실증 연구는 한·베 동음어 활용 학습법이 베트남인 학습자의 어휘 추론 능력과 기억 정착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단계별 동음어 활용 전략은 이론적 연구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음운 및 의미적 인지를 강화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며, 실질적 어휘 습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본 절에서는 동음 동의어와 동음이의어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들을 효과적으로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단계별로 제시한다.

동음어를 활용한 교수 전략은 크게 다음의 세 단계로 구성될 수 있다.

① 인식(認識): 학습자가 한국어 한자어와 베트남어 한월어 간의 음운적 유사성과 의미적 대응 가능성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유사한 초성·중성의 변환 규칙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유사성을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동음어 학습의 핵심은 음운적 유사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기존 어휘 지식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모두 한자어를 기반으로 다수의 공통 어휘를 보유하고 있으며, 초성과 중성에서 일정한 대응 규칙이 관찰된다. 예를 들어 초성 ‘ㄱ’은 베트남어에서 ‘c’ 혹은 ‘k’, ‘ㄷ’은 ‘d’, ‘ㄹ’은 ‘m’, ‘ㅇ’은 ‘ng’로 자주 대응된다. 중성에서도 유사한 규칙이 관찰되며,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표 27] 한·베 한자어의 초·중·중성 대응 예시

| 한자어 | 초성 대응 | 중성 대응 | 중성 대응 | 베트남어 | 의미 |
|--------|-----------------|-------------------|-------------------------|-----------|-----------|
| 감동(感動) | ㄱ → c/ ㄷ → d | ㅏ → a/ ㅑ → ô | ㅁ → m / ㅇ → ng | cảm động | xúc động |
| 공동(共同) | ㄱ → c/ ㄷ → d | ㅑ → ô | ㅇ → ng | cộng đồng | cộng đồng |
| 기념(紀念) | ㄱ → k/ ㄴ → n | ㅣ → l/ ㅑ → iêm | ㅁ → m | kỷ niệm | kỷ niệm |
| 공공(公共) | ㄱ → c/ ㄱ → c | ㅑ → ô | ㅇ → ng | công cộng | công cộng |
| 주의(注意) | ㅈ → ch | ㅑ → ý | | chú ý | chú ý |
| 한국(韓國) | ㅎ → H/ ㄱ → c | ㅏ → a, ㅑ → uố | ㄱ → c/ ㄴ → n | Hàn Quốc | Hàn Quốc |

이러한 규칙은 학습자가 새 어휘를 접할 때, 발음만으로도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학습 초기 단계에서 특히 유용하다.

② 대조(對照): 본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한국어와 베트남어 간의 유사한 음형(音形)을 가진 어휘 쌍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양 언어 간 의미 대응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이는 동음동의어는 발음과 의미가 유사한 어휘와 동음이의어는 형식적으로는 동일하나 의미가 동일하지 않는 어휘를 구분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동음동의어의 경우, 학습자는 음과 의미 간의 유사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어휘의 의미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암기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 문화-văn hóa, 역사- lịch sử, 경제-kinh tế와 같이 발음과 의미가 모두 유사한 어휘들은 의미 유추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동음이의어는 언뜻 보기에는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의미의 다른 점을 존재하므로, 이질적인 의미 구조를 파악하고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인지적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언어 간 의미 비교 분석: 학습자는 구체적 예문을 통해 두 언어 간 어휘의 의미 차이를 인식하게 되며, 이를 통해 맥락 기반의 정확한 의미 이해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한국어 ‘공중(空中)’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의미하는 반면, 베트남어 ‘công chúng’은 특정한 예술 수용 계층이나 관객층을 지칭하며, 일부 문맥에서는 평가적인 함의까지 내포한다.
- 의도적 오류 분석 기법 활용: 오용된 예문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오류를 탐지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유사 음형 어휘 간의 의미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혁명-cách mạng’이라는 어휘는 정치적 의미 외에도 기술혁명, 교육혁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인식시킬 수 있다.
- 실제 텍스트 기반 분석: 신문 기사, 시사 자료 등 실제 언어 사용 맥락에

서 발췌한 텍스트를 활용함으로써, 어휘의 구체적 쓰임과 의미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제 자료는 학습자의 문맥 기반 의미 처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유효하다.

- 서사적 맥락 및 역할극 적용: 이야기 구성 혹은 상황극 활동을 통해 어휘가 사용되는 실제적인 언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습자는 특정한 의미 선택을 강제받게 되고, 이를 통해 어휘의 정확한 의미 구별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일련의 전략은 Ausubel과 Watts(1968)가 제안한 어휘 학습 원칙 선행지식 활성화, 개인적 경험과의 연계, 구체적 맥락 내 학습, 반복 노출, 깊이 있는 상호작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어휘 습득의 정교성과 지속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²¹⁾

③ 적용(適用): 어휘 간 의미 대응 관계를 인식하고 대조하는 과정을 마친 후, 학습자는 실제 의사소통 맥락에서 해당 어휘를 활용하는 적용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음성 자극 → 의미 추론 → 맥락 검증 → 실제 활용이라는 논리적 절차에 따라 학습이 이루어진다. 본 단계는 학습자에게 비판적 사고 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지식 통합 능력을 요구하는 고차원적 단계로, 보다 능동적인 어휘 사용이 강조된다.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이미지 및 문맥이 결합된 어휘 카드 활용: 시각적 자극과 상황 정보가 결합된 어휘 카드는 기억 지속력을 강화하고, 어휘와 실제 사용 맥락 간의 연계를 용이하게 한다.
- 소규모 그룹 토의 활동: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의미를 도출하고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다양한 시각에서 어휘의 의미를 탐색

21) 마이스응우엣 (2015:47~48)의 연구에서 “Ausubel(1968)과 Watts(1995)는 효율적인 어휘 교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자는 새로운 학습 자료와 관련되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학습자는 새로운 자료를 자신과 관련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이야기, 주제, 내용 영역의 맥락 안에서 어휘를 교수하여야 한다.

넷째, 학습자는 다양한 맥락 안에서 반복적으로 어휘를 접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 학습자는 어휘와 상호작용하여 깊은 수준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내용을 요약하고 인용하였다.

할 수 있다.

- 주제 발표 및 역할극 수행: 학습자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하거나 역할극을 수행함으로써,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어휘 운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나아가,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을 위해 의도적 복습 설계가 필수적이다. 수업 시간의 제약을 고려할 때, 복습 과제의 형태로 가정학습을 유도하거나, 수업 초반의 짧은 워밍업 활동을 통해 기존 어휘의 재확인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동음어 기반 어휘 학습 전략은 단순한 형태 유사성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음운론적 분석, 의미론적 대조, 맥락 기반 적용이라는 다층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동음이의어의 경우, 그 학습은 필연적으로 맥락과 결합된 언어 간 분석, 실제적 의사소통 상황, 정확한 언어 자료와 연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학습자가 부정적 전이 오류를 최소화하고, 언어 추론력과 어휘 활용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학습자는 단어의 의미를 단순히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3.3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방법

동음어를 활용한 방법이 중급 학습자를 위한 기초 강화에 접근하기 쉽고 친숙하다면, 의미의 투명성을 활용한 방법은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고 기억하는 데 있어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수준을 보여준다. 의미 투명성은 단어의 구성 성분이 각각의 의미를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내는 특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화(電話)’는 ‘전하다(電)’+‘말하다(話)’의 조합으로, ‘소리를 전해주는 말’이라는 개념이 직관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단어는 학습자가 각각의 성분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전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고 기억하는 데 유리하다. 특히 한자어는 다수의 복합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성분 간 의미 관계가 비교적 규칙적이기 때문에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교수 전략은 학습자의 어휘

습득에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의미 투명성에 기반한 학습 전략을 인식 - 분석 - 적용의 세 단계로 제시한다.

① 인식(認識): 목표 어휘가 포함된 문맥 제공 및 의미 투명어와 비투명어 구분한다. 단어를 분리하여 가르치지 않고, 문장, 대화, 실제 상황 속에 자연스럽게 배치하여 학습자가 언어 의미 흐름 속에서 단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Noticing(주의 환기 기법)'을 활용하여, 텍스트 내에서 해당 단어를 밑줄 긋거나 굵게 표시하는 등 시각적 강조를 한다. 이는 학습자가 단어를 '보는' 단계에서 '이해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전 주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학습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는 다음 예 (ㄱ)과 같이 의미 투명성이 높은 어휘와 그렇지 않은 어휘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ㄱ) 의미 투명어: 전화(電話), 환경보호(環境保護)

의미 비투명어: 연수(研修)-특히 修의 의미는 대부분의 학습자에게 직관적으로 이해되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 투명성과 비투명성의 대조 제시는 학습자가 어휘 의미 구성 원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형태소 분석 능력과 어휘 선택의 전략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인식 단계는 학습자가 목표 어휘를 실제 사용되는 문맥에서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다음 단계인 분석과 적용을 위한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② 분석(分析): 구성 성분별 의미 분석 및 조합 훈련한다. 분석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목표 어휘를 구성하는 각 한자 형태소의 의미와 음운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는 먼저 해당 단어의 전체 의미를 간결하게 제시하여 학습자가 어휘의 기본 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각 한자 성분별로 의미, 음, 그리고 필요에 따라 두음법칙이나 이형태와 같은 음운 변화를 설명함으로써 형태소 분석 능력을 배양한다. 이는 학습자가 단어의 내부 구조를 해독하는 데 기초가 되며, 더 나아가 새로

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 필수적인 사고력을 키우게 한다.

한편, 이러한 분석 활동은 단순한 암기를 넘어서 학습자가 각 성분의 역할과 상호 작용을 인식하도록 하여, 단어 전체 의미와 개별 형태소 의미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음운적 변화 설명은 학습자가 실제 언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발음 변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듣기 및 발음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ㄴ) 경제(經濟):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활동

- 經: 다스리다, 관리하다
- 濟: 구제하다

(ㄷ) 교육(教育): 가르치고 기르는 일

- 教: 가르치다
- 育: 기르다

(ㄹ) 연구(研究): 깊이 탐구하는 행위

- 研: 갈다, 연구하다
- 究: 연구하다, 파고들다

③ 적용(適用): 새로운 어휘에의 의미 추론 적용

적용 단계는 학습자가 앞서 인식하고 분석한 형태소 의미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자어의 의미를 스스로 추론하고 실제 문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가 단어 구성 성분과 전체 의미 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지도하며, 나아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른 단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미 추론을 시도하도록 격려한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 의미 추론은 학습자의 어휘 확장 능력을 크게 증진시키며, 단순 암기식 학습에서 벗어나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어휘 학습으로 나아가게 한다.

또한, 적용 단계에서는 문맥 속에서의 어휘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텍스트와 상황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한 어휘 사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학습자는 단어를 단순한 암기 대상이 아닌, 의미와 구조를 내면화한 실질적 언어 자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ㄱ) 환경보호(環境保護): 주변 환경을 보호하다' → 새로운 문장 속에서 '환

경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설명 가능

- 環: 둘러, 둘러싸다
- 境: 경계, 환경
- 保: 지키다
- 護: 보호하다

(ㄷ) 문화교류(文化交流): 문화가 서로 교환되고 사귀는 활동' → 다양한 문화교류 사례에 대한 이해와 표현 가능

- 文: 글
- 化: 변화하다, ~화하다
- 交: 사귀다, 교환하다
- 流: 흐르다

이러한 전략은 학습자의 의미 구성 능력을 높이고, 새로운 어휘 학습 부담을 줄이며, 학습 동기 향상에도 기여한다. 의미 분석 활동은 학습자에게 문법적 사고와 구조적 시각을 동시에 제공하여, 언어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학습하게 돕는다.

의미 투명성 기반 교수법은 단순 암기를 넘어, 구성 성분 의미 분석을 통해 전체 단어 의미를 유추하도록 함으로써 분석적 사고력과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함께 강화한다. 한자어는 복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어, 의미 투명성 중심 학습은 자연스럽게 구조적 이해와 연계되며, 학습자는 이미 알고 있는 한자의 의미를 바탕으로 어휘 간 의미 연결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한자어가 높은 의미 투명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관습어나 의미 변화가 있는 단어는 형태소만으로 전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한자 지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초급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문맥, 화용, 비유적 표현 등 실제 언어 사용 요소를 간과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의미 투명성 전략은 문맥 중심 학습, 반복 훈련, 의미 네트워크 기반 지도와 병행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3.4 학습자 요구 및 한국어 교재 분석

본 절에서는 베트남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자어 교육에 대한 인식, 만족도 및 학습 요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베트남에서 널

리 활용되고 있는 주요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교재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가 필요한 이유는, 한자어라는 한국어 어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에 대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인식과 경험, 그리고 학습적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함이다. 많은 학습자들이 동음어 현상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거나, 모국어의 언어 감각을 바탕으로 의미를 유추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히 중급 단계에서 한자어의 구조적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학습자의 언어 능력이 초급에서 고급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더욱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본 조사는 학습자들이 한자어를 수용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취약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학습자 특성에 적합한 교육 원리 및 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앞 장에서 논의한 이론적 가정이 실제 학습 상황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3.4.1 학습자 요구분석

3.4.1.1 설문지 내용 구성

본 논문의 목적은 베트남 중급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수 방법을 연구하는 데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요구와 인식에 대한 조사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자어 학습에 관한 연구 중, 설문 조사를 활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선행연구로는 MA JINSHAN(2012)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이영희(2016)의 외국인을 위한 한자 교육 연구, 그리고 중국 내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한자어 교수 방안을 제시한 범금구(2016)의 연구 등이 있다.

본 논문의 설문조사 내용은 위에 있는 논문들의 설문조사의 정보를 참고해서 정리하며, 본 논문의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추가하여 구성되고 보완할 것

이다. 베트남 중급 학습자의 한자어 학습 동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습자의 한자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습자의 만족도, 실제 요구, 학습 전략 등을 평가하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설문지는 베트남 학습자가 한자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주 범하는 오류와 오해를 분석하고, 대표적인 학습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동음어를 활용한 학습 방법 및 의미의 투명성을 활용한 학습 방법에 대한 인식과 효과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설문지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8] 설문지 내용 구성

| 영역 | 질문 내용 | | 문항 |
|------------------------------------|--|--|----|
| I. 기본 인적 사항 | 성별 | () 남 () 여 | 1 |
| | 나이 | | 2 |
| | 한국어 수준 | ① TOPIK 3급 ② TOPIK 4급 ③ TOPIK 5급 ④ TOPIK 6급 | 3 |
| | 현재 학기 | ① 한국어 어학당 ② 1~2학기 ③ 3~4학기 ④ 졸업생 | 4 |
| II. 한자어 교육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한자어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을 선택하면 6번으로, ②를 선택하면 11번으로 가세요) ① 있다 → 6번으로 ② 없다 → 11번으로 | | 5 |
| | 한자어 학습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최대 2개 선택) ① 읽기/듣기 능력이 좋아지게 되었다. ② 쓰기/말하기 능력이 좋아지게 되었다. ③ 한자어를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④ 모르는 한자어를 더 잘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 ⑤ 기타:..... | | 6 |
| | 한자어 어휘력이 높으면 한국어 어휘력도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 7 |
| | 한자어 교육은 고유어 교육 및 외래어 교육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 8 |
| | 수업에서 교사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한자어를 가르쳤습니까? (최 | | 9 |

| | | |
|--------------------|--|----|
| | <p>대 2개 선택)</p> <p>① 단어장을 제공하고 자율학습하게 하였다. ② 베트남어로 직역하여 설명하였다. ③ 플래시카드, 이미지 등의 시각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다. ④ 한자어를 한-베 동음어로 비교하였다. (예: 감동 - cảm động , 문화 - văn hóa) ⑤ 기타:.....</p> | |
| | <p>현재 한자어 교육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불만족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p> | 10 |
| III. 한자어 교육에 대한 요구 | <p>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한자어를 어떻게 암기하였습니까? (2개 선택 가능)</p> <p>① 소리 내어 읽기거나 반복적으로 쓰면서 외운다. ② 한국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를 대조해 본다(동음 베트남 한자어가 있는지, 있으면 의미나 용법에서 차이가 있는지 등). ③ 한자어가 만들어진 원리로 분석해 본다. (예) 참가자 = 참가+자, 생활비 = 생활+비, 불합격 = 불+합격 ④ 새로운 한자어와 관련 한자어들을 마인드맵으로 그려 본다. ⑤ 구성성분의 의미를 통해 한자어의 의미를 연상해 본다.</p> | 11 |
| | <p>새로운 한자어를 만났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최대 2개 선택)</p> <p>① 사전 검색한다. ② 교사에게 질문한다. ③ 문맥으로 유추한다. ④ 한자어 발음을 통해 유추하다. ⑤ 아무것도 하지 않음.</p> | 12 |
| | <p>한자어를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① 그렇다 → 14번으로 이동하세요 ② 그렇지 않다 → 15번으로 이동하세요</p> | 13 |
| | <p>한자어를 더 깊이 있게 학습해야 한다고 느낀 상황은 언제입니까?</p> <p>① 한자어를 암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 ② 한자어가 많이 포함된 자료를 읽을 때 ③ 더 수준 높은 어휘를 사용하고 싶을 때 ④ 어휘 학습에 흥미를 잃었을 때 ⑤ 기타:</p> | 14 |
| | <p>한자어 학습을 심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p> <p>① 일상생활에서 한자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② 한국어의 한자어는 베트남어와 유사해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③ 따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④ 학습 과정이 복잡하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p> | 15 |

| | | |
|----------------------------|--|----|
| | ⑤ 기타: | |
| | 한자어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단어의 뜻과 쓰임새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 ② 학습 전략 및 기억법을 함께 지도하는 것 ③ 읽기 또는 듣기 활동과 병행하여 가르치는 것 ④ 말하기 또는 쓰기와 연계하여 가르치는 것 ⑤ 기타: | 16 |
| | 다음의 교육 내용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하세요. (2개 선택 가능) ① 한자 교육 ② 한자 형태소 교육 ③ 한자어 교육 ④ 한자성어 교육 | 17 |
| | 별도의 한자어 수업이 개설된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18 |
| IV. 한자어 학습 시 오류 | 한자어를 학습하면서 오류나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20번으로 이동 ② 없다 → 24번으로 이동 | 19 |
| | 이러한 오류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개 선택) ① 단어 구성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 ② 학습 방법이 부족 ③ 교사의 설명이나 자료가 부족 ④ 한자어 따로 학습 없음 ⑤ 기타: | 20 |
| | 어떤 유형의 오류를 경험하셨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① 단어의 전체 의미를 잘못 유추함 ② 동음 한자어를 혼동하여 의미를 잘못 이해함 ③ 구성 한자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뜻을 오해함 ④ 발음을 헛갈려서 단어를 잘못 읽거나 기억함 ⑤ 기타: | 21 |
| | 기억나는 구체적인 오류 사례가 있습니까?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 22 |
| V. 동음어를 활용한 한자어 학습에 대한 선호도 | 한자어의 '동음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23 |
| | "동음어 활용법"은 한자어 학습 방법 중 하나로, 발음이 같은 한자어들을 비교하여 그 뜻을 구별하고 전체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한자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감동' = cảm động => '감=cảm' + '동=động' →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24 |

| | | |
|----------------------------------|---|----|
| | <p>베트남어의 한자어와 한국어의 한자어가 발음과 의미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한-베 동음 한자어’를 활용하여 한국어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는 것이 한자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음악’ → âm nhạc, ‘국화’ → quốc hoa 등)</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p> | 25 |
| | <p>이 학습법을 활용한 수업이나 자료가 제공된다면 참여하고 싶으십니까?</p> <p>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고민한다 ④ 있다 ⑤ 매우 있다</p> | 26 |
| VI.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한자어 교수학습에 대한 선호도 | <p>한자어의 ‘의미 투명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p> <p>① 있다 ② 없다</p> | 27 |
| | <p>“의미 투명성 활용 학습법”은 한자어 교수·학습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한자어의 뜻을 알게 된 후, 그 단어를 구성하는 각 한자의 뜻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자어 전체의 의미를 다시 연상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이 한자어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예) ‘학교’: 배우는 장소 → ‘학’: 배우다 / ‘교’: 장소 → ‘학교’: 배우는 장소 → ‘학교’: 지식을 익히는 곳)</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p> | 28 |
| | <p>앞서 언급한 “의미 투명성을 활용법”을 통해 한자어를 배우는 방식이, 새로운 한자어의 뜻을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예) ‘학교’에서 ‘학’과 ‘교’를 배우으로써 ‘학생’, ‘학문’, ‘과학’, ‘교육’, ‘교실’, ‘교사’ 등의 단어 의미를 추측하는 데 유리한가요?</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p> | 29 |
| | <p>이 학습법을 활용한 수업이나 자료가 제공된다면 참여하고 싶으십니까?</p> <p>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고민한다 ④ 있다 ⑤ 매우 있다</p> | 30 |

<표 22>와 같은 본 설문조사는 베트남 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습자의 기본 인적 사항(성별, 연령, 학기 및 학년, 한국어 수준, 학습 목적, 학습 기간)과 함께 한자어 학습에 대한 인식과 태도,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설문은 학습자가 한자어 수업을 수강한 경험 여부 및 한자어 학습을 통해 얻은 학습 효과를 파악하며, 특히 한자어 학습이 한국어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자어 교육 방식과 학습자의 만족도를 분석하고, 불만족 시 그 원인을 탐색한다. 학습자가 사용하는 한자어 암기 전략과 새로운 한자어 학습 시의 대처 방법을 조사하여, 보다 심도 있는 한자어 학습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함께 확인한다. 특히, ‘동음어’ 및 ‘의미 투명성’ 활용법과 같은 구체적인 한자어 교수법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도와 수용 정도, 그리고 해당 교수법의 효과성에 관한 의견을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선호도를 평가하며, 해당 교수법을 적용한 수업이나 자료 제공 시 참여 의사도 함께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한자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오해 유형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학습 방법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한자어 교육의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4.1.2 요구 분석 결과

본 논문은 중급 수준의 학습자를 중심으로 베트남어 사용자를 위한 한자어 학습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음어를 활용한 방법과 의미의 투명성을 활용한 방법, 두 가지 한자어 학습 방법을 소개하였다. 또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 89명을 대상으로 한자어에 대한 인식 및 학습 필요성, 그리고 동음어 및 의미의 투명성을 통한 학습 방법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21>에 제시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먼저 기본 인적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자 한다.

[표 29] 기본 인적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 문항 | 내용 | 대답 | N | % |
|----|----------|----------|----|-------|
| 1 | 성별 | 남 | 35 | 39,8% |
| | | 여 | 54 | 60,2% |
| | | 합계 | 89 | 100% |
| 2 | 나이 | ~20대 | 4 | 4,4% |
| | | 20~30대 | 77 | 80,7% |
| | | 30대~ | 8 | 14,9% |
| | | 합계 | 89 | 100% |
| 3 | 현재 이수 학기 | 한국어 어학당 | 1 | 1,1% |
| | | 1~2학년 | 17 | 19,3% |
| | | 3~4학년 | 28 | 31,8% |
| | | 졸업생 | 43 | 47,7% |
| | | 합계 | 89 | 100% |
| 4 | 한국어 수준 | TOPIK 3급 | 22 | 24,4% |
| | | TOPIK 4급 | 40 | 44,2% |
| | | TOPIK 5급 | 17 | 19,8% |
| | | TOPIK 6급 | 10 | 11,6% |
| | | 합계 | 89 | 100% |

본 연구 참여자는 총 89명이었으며, 여성(60.2%)이 남성(39.8%)보다 많았다. 연령은 20-30대가 대부분으로(77명, 80.7%), 30대 이상은 8명(14.9%), 20대 미만은 4명(4.4%)이었다. 현재 한국어 학습 단계로는 졸업생 42명(47.7%), 3-4학년 재학생 28명(31.8%), 1-2학년 17명(19.3%)이었고, 어학당 재학자는 1명(1.1%)뿐이었다. 한국어 능력 수준은 TOPIK 3급과 4급이 전체의 약 69%(62명)에 해당하여,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 중급 학습자였음을 알 수 있다. 고급 수준인 5급과 6급 응답자는 각각 17명(19.8%)과 10명(11.6%)이었다. 분석은 주로 중급 학습자 데이터를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고급 학습자의 응답은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 학습자의 한자어 교육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조사 결과를 다음의 <표 2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0] 한자어 교육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조사 결과

| 문항 | 내용 | 대답 | N | % |
|----|----------------------------|------|----|-------|
| 5 |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한자어 수업을 들어본 적이 | ① 있다 | 64 | 72,8% |

| | | | | |
|-----|---|--------------------------------|----|--------|
| | 있습니까? (①을 선택하면 6번으로, ②를 선택하면 11번으로 가세요) | ② 없다 | 35 | 27,2% |
| | | 합계 | 88 | 100% |
| 6 | 한자어 학습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최대 2개 선택) | 읽기/듣기 능력이 좋아지게 되었다. | 22 | 34,4% |
| | | 쓰기/말하기 능력이 좋아지게 되었다. | 23 | 35,9% |
| | | 한자어를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 36 | 56,3% |
| | | 한자어를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 28 | 43,8% |
| | | 합계 | 64 | 170,4% |
| 7 | 한자어 어휘력이 높으면 한국어 어휘력도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 | | 그렇지 않다. | 0 | 0 |
| | | 보통이다. | 6 | 9,4% |
| | | 그렇다. | 36 | 56,3% |
| | | 매우 그렇다. | 22 | 34,4% |
| | | 합계 | 64 | 100% |
| 8 | 한자어 교육은 고유어 교육 및 외래어 교육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 | | 그렇지 않다. | 3 | 4,7% |
| | | 보통이다. | 16 | 25% |
| | | 그렇다. | 40 | 62,5% |
| | | 매우 그렇다. | 5 | 7,8% |
| 합계 | 64 | 100% | | |
| 9 | 수업에서 교사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한자어를 가르쳤습니까? (최대 2개 선택) | 단어장을 제공하고 자율 학습하게 하였다. | 29 | 45,3% |
| | | 베트남어로 직역하여 설명하였다. | 18 | 28,1% |
| | | 플래시카드, 이미지 등의 시각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다. | 19 | 29,7% |
| | | 한자어를 한-베 동음어로 비교하였다. | 39 | 60,9% |
| | | 합계 | 64 | 164% |
| 10 | 현재 한자어 교육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1,6% |
| | | 그렇지 않다. | 2 | 3,1% |
| | | 보통이다. | 22 | 34,4% |
| | | 그렇다. | 34 | 53,1% |
| | | 매우 그렇다. | 5 | 7,8% |
| | | 합계 | 64 | 100% |
| 10' | 불만족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 16명 응답) | 비효율적인 교수 방식 | 3 | 18,8% |
| | | 기억 및 활용의 어려움 | 3 | 18,8% |
| | | 한자어 전문 교육 부족 | 4 | 25% |
| | | 기타: 의견 없음 / 어려움 없음 | 6 | 37,4% |
| | | 합계 | 16 | 100% |

설문 참여자 88명 중 64명(72.8%)이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한자어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중급 이상 학습자들 사이에서 한자어

학습이 활발한 경향이 나타났다. 한자어 수업을 통해 “한자어를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쓰기/말하기 능력 향상”(35.9%), “읽기/듣기 능력 향상”(34.4%) 순이었다. 또한 약 90%의 응답자가 “한자어 어휘력이 높으면 한국어 어휘력도 높아진다”고 답했으며, 70.3%는 한자어 교육이 고유어 및 외래어 교육과 구분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가장 많이 사용된 교수법은 ‘한자어와 한-베 동음어 비교’(60.9%), 그 다음으로 ‘어휘 제공 후 자음 학습’(45.3%), ‘이미지/플래시카드 활용’(29.7%), ‘한국어 어휘를 베트남어로 직역하여 의미 설명’(28.1%)이었다. 한자어 학습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0.9%였지만, 39.1%는 중립 또는 불만족을 나타내 학습 방식의 체계성·질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이 결과는, 비록 많은 중급 학습자들이 한자어 학습에서 긍정적 경험을 했지만-한자어 중심 교수법, 동음어 비교, 자음 학습, 이미지/문맥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활용이 필요하며, 교수자의 전문성 향상과 체계적인 수업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는 학습자들의 한자어 교육에 대한 요구에 관한 조사 결과를 <표 2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31] 한자어 교육에 대한 요구에 관한 조사 결과

| 문항 | 내용 | 대답 | N | % |
|----|--|---------------------------------|----|--------|
| 11 |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한자어를 어떻게 암기하였습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 소리 내어 읽기거나 반복적으로 쓰면서 외운다. | 39 | 43,8% |
| | | 한국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를 대조해 본다. | 54 | 60,7% |
| | | 한자어가 만들어진 원리로 분석해 본다. | 23 | 25,8% |
| | | 새로운 한자어와 관련 한자어들을 마인드맵으로 그려 본다. | 19 | 21,3% |
| | | 새로운 한자어와 관련 한자어들을 마인드맵으로 그려 본다. | 23 | 25,8% |
| | | 합계 | 89 | 177,4% |
| 12 | 새로운 한자어를 만났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최대) | 사전 검색한다. | 64 | 71,9% |
| | | 교사에게 질문한다. | 21 | 23,6% |

| | | | | |
|----|--|---------------------------------|----|--------|
| | 2개 선택) | 문맥으로 유추한다. | 35 | 39,3% |
| | | 한자어 발음을 통해 유추하다. | 47 | 52,8% |
| | | 아무것도 하지 않음. | 0 | 0 |
| | | 합계 | 89 | 187,6% |
| 13 | 한자어를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①을 선택하면 14번으로, ②를 선택하면 15번으로 가세요) | ① 그렇다 | 83 | 93,3% |
| | | ② 그렇지 않다 | 6 | 6,7% |
| | | 합계 | 89 | 100% |
| 14 | 한자어를 더 깊이 있게 학습해야 한다고 느낀 상황은 언제입니까? (최대 2개 선택) | 한자어를 암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 | 15 | 17,9% |
| | | 한자어가 많이 포함된 자료를 읽을 때 | 58 | 69% |
| | | 더 수준 높은 어휘를 사용하고 싶을 때 | 62 | 73,8% |
| | | 어휘 학습에 흥미를 잃었을 때 | 8 | 9,5% |
| | | 합계 | 84 | 170,2% |
| 15 | 한자어 학습을 심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일상생활에서 한자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 15 | 40,5% |
| | | 한국어의 한자어는 베트남어와 유사해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 4 | 10,8% |
| | | 따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 10 | 27% |
| | | 학습 과정이 복잡하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 7 | 18,9% |
| | | 기타:... | 0 | 0 |
| | | 합계 | 37 | 100% |

설문 참여자 88명 중 64명(72.8%)이 한자어 수업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한자어가 일정 부분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급 이상 학습자들 사이에서 한자어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한자어 학습을 통해 “한자어를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56.3%)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쓰기/말하기 능력 향상”(35.9%), “읽기/듣기 능력 향상”(34.4%) 순이었다. 약 90%의 응답자는 “한자어 어휘력이 높으면 한국어 어휘력도 높아진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

다. 한자어 교육은 고유어 및 외래어 교육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70.3%로 높았으며, 주요 교수법으로는 ‘한-베 동음어 비교’(60.9%), ‘어휘 제공 후 자율 학습’(45.3%), ‘이미지/플래시카드 활용’(29.7%) 등이 있었다.

한자어 학습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0.9%였지만, 39.1%는 중립 또는 불만족을 보였고, 일부 학습자는 수업 방식의 체계성 부족, 단어 단위 번역 중심 교육, 문맥 속 의미 이해 부족 등을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이 결과는 많은 중급 학습자들이 한자어 학습에 대해 긍정적 경험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교수법의 개선, 체계적 수업 구성, 의미 중심·문맥 중심 학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는 <표25>와 같이 한자어 학습 시 오류에 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할 수 있다.

[표 32] 한자어 학습 시 오류에 관한 조사 결과

| 문항 | 내용 | 대답 | N | % |
|---------------------------|--------------------------------------|----------------------------|--|------------------|
| 19 | 한자어를 학습하면서 오류나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79 | 90,8% |
| | | 없다. | 8 | 9,2% |
| | | 합계 | 87 | 100% |
| 20 | 이러한 오류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개 선택) | 단어 구성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 | 49 | 59,8% |
| | | 학습 방법이 부족. | 44 | 53,7% |
| | | 교사의 설명이나 자료가 부족. | 23 | 28% |
| | | 한자어 따로 학습 없음. | 25 | 30,5% |
| | | 합계 | 82 | 166,5% |
| 21 | 어떤 유형의 오류를 경험하십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단어의 전체 의미를 잘못 유추함. | 41 | 51,9% |
| | | 동음 한자어를 혼동하여 의미를 잘못 이해함. | 46 | 58,2% |
| | | 구성 한자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뜻을 오해함. | 51 | 64,6% |
| | | 발음을 헛갈려서 단어를 잘못 읽거나 기억함. | 21 | 26,6% |
| | | 합계 | 79 | 201,3% |
| | | 22 | 기억나는 구체적인 오류 사례가 있습니까?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총 16명 응답) | 한자음 유사성으로 인한 오해. |
| 동음이의어 혼동. | 1 | 6,2% | | |
| 단어 구성 요소를 그대로 해석하여 의미 왜곡. | 3 | 18,8% | | |
| 단어 의미를 정확히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음 | 6 | 37,5% | | |
| 합계 | 16 | 100% | | |

설문 응답자 87명 중 79명(90.8%)이 한자어 학습 과정에서 오류나 오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오류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단어 구성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59.8%)과 “효과적인 학습 방법의 부재”(53.7%)가 가장 많았고, 그 밖에 “한자어를 따로 학습하지 않음”(30.5%), “교사의 설명이나 자료 부족”(28%)이 지적되었다.

학습 중 경험한 오류 유형으로는 “구성 한자의 의미를 몰라 전체 뜻을 오해”(64.6%), “동음 한자어 혼동”(58.2%), “단어 의미 잘못 유추”(51.9%), “발음 혼동으로 잘못 읽거나 기억”(26.6%) 등이 있었다. 특히 베트남어 한자음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한국어 한자어의 의미를 잘못 유추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자유 응답 형태로 구체적인 오류 사례를 제시한 16명의 응답에 따르면, 많은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오류 중 하나는 베트남어 한자음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한국어 한자어의 의미를 잘못 유추하는 현상이다. 학습자들은 이미 익숙한 베트남어 한자음을 기준으로 한국어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단어의 실제 의미를 오해하거나 문장을 잘못 구성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예를 들어, ‘습관’이라는 단어는 베트남어의 ‘tập quán (집단의 오랜 생활방식)’과 혼동되었으며, ‘인간’은 ‘nhân gian(인간 세상)’으로 잘못 이해되어 문장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 외에도 ‘미안’, ‘화’, ‘시장’, ‘화장실’ 등 다양한 단어들이 한자음의 유사성 때문에 오해되었다. 또한, 동음이의어인 수도(水道)와 수도(首都)를 혼동하거나, 복합어의 구성 요소를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전체 의미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부 응답자들은 한자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해 잘못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자어 학습 시 발음뿐 아니라 의미와 문맥을 함께 고려한 체계적인 학습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중급 학습자들이 한자어를 단순 암기로 처리하기보다는, 한자 형태소의 의미와 구조, 문맥까지 함께 고려하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학습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자어 수업에서는 단어의 구성 방식과 의미 구조 분석, 언어 간 비교, 오류 수정 중심 활동, 문맥

기반 활용 등을 통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학습자들의 동음어를 활용한 한자어 학습에 대한 선호도에 관한 조사 결과 정리하고자 한다.

[표 33] 동음어를 활용한 한자어 학습에 대한 선호도에 관한 조사 결과

| 문항 | 내용 | 대답 | N | % |
|----|---|------------|----|-------|
| 23 | 한자어의 ‘동음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83 | 93,3% |
| | | 없다 | 6 | 6,7% |
| | | 합계 | 89 | 100% |
| 24 | “동음어 활용법”은 한자어 학습 방법 중 하나로, 발음이 같은 한자어들을 비교하여 그 뜻을 구별하고 전체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한자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1,1% |
| | | 그렇지 않다. | 2 | 2,2% |
| | | 보통이다. | 6 | 6,7% |
| | | 그렇다. | 58 | 65,2% |
| | | 매우 그렇다. | 22 | 24,7% |
| | | 합계 | 89 | 100% |
| 25 | 베트남어의 한자어와 한국어의 한자어가 발음과 의미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한-베 동음 한자어’를 활용하여 한국어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는 것이 한자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1,1% |
| | | 그렇지 않다. | 2 | 2,2% |
| | | 보통이다. | 8 | 9% |
| | | 그렇다. | 57 | 64% |
| | | 매우 그렇다. | 21 | 23,6% |
| | | 합계 | 89 | 100% |
| 26 | 이 학습법을 활용한 수업이나 자료가 제공된다면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 전혀 없다. | 1 | 1,1% |
| | | 없다. | 0 | 0 |
| | | 고민한다. | 13 | 14,6% |
| | | 있다. | 48 | 53,9% |
| | | 매우 있다. | 27 | 30,3% |
| | | 합계 | 89 | 100% |

설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동음어’ 개념에 익숙했으며(93.3%), 약 90%가 동음어 활용 학습법이 한자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한-베 언어 간 한자어의 음과 의미 유사성을 활용하는 학습 전략에 대해 87.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거의 대부분의 학습자가 실제로 동음어 비교 방식의 수업이나 자료 제공이 있을 경우 참여 의사가 있었으며(약 84%), 동음어 기반 비교 학습은 중급 학습자에게 실질적인 어휘 학습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조사 결과는 동음어 활용 비교 학습법이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인 중급 학습자들에게 인지 부담을 낮추면서 의미 추론을 돕고, 실제 수업에도 적용 가능한 유효한 전략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근거 아래, 앞으로의 한자어 수업 설계에서는 동음어 기반 비교 학습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한-베언어 간 유사성을 반영한 교수 자료를 개발하며, 시각 자료나 문맥 중심 활동과 결합한 수업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표27>와 같은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한자어 교수학습에 대한 선호도에 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

[표 34]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한자어 교수학습에 대한 선호도에 관한 조사 결과

| 문항 | 내용 | 대답 | N | % |
|----|--|------------|----|-------|
| 23 | 한자어의 ‘의미 투명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45 | 50,6% |
| | | 없다 | 44 | 49,9% |
| | | 합계 | 89 | 100% |
| 24 | “의미 투명성 활용 학습법”은 한자어 교수·학습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한자어의 뜻을 알게 된 후, 그 단어를 구성하는 각 한자의 뜻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자어 전체의 의미를 다시 연상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이 한자어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 | | 그렇지 않다. | 2 | 2,2% |
| | | 보통이다. | 13 | 14,6% |
| | | 그렇다. | 51 | 57,3% |
| | | 매우 그렇다. | 23 | 25,8% |
| | | 합계 | 89 | 100% |
| 25 | 앞서 언급한 “의미 투명성을 활용법”을 통해 한자어를 배우는 방식이, 새로운 한자어의 뜻을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1,1% |
| | | 그렇지 않다. | 0 | 0 |
| | | 보통이다. | 14 | 16,1% |
| | | 그렇다. | 46 | 52,9% |
| | | 매우 그렇다. | 26 | 29,9% |
| 합계 | 89 | 100% | | |
| 26 | 이 학습법을 활용한 수업이나 자료가 제공된다면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 전혀 없다. | 1 | 1,1% |
| | | 없다. | 1 | 1,1% |
| | | 고민한다. | 13 | 14,6% |
| | | 있다. | 40 | 44,9% |
| | | 매우 있다. | 34 | 38,2% |
| | | 합계 | 89 | 100% |

한자어 교수·학습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 ‘의미 투명성 활용 학습법’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를 파악한 결과, 해당 개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학습자

는 전체 응답자의 50.6%로, 비교적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반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49.4%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이 학습법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의미의 투명성’이라 개념을 설명한 후 이 학습법이 실제 한자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57.3%)와 “매우 그렇다”(25.8%)를 합쳐 전체의 83.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비록 인식도는 낮지만, 이해 후에는 교육적 효용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지도자에 의한 명확한 안내와 적용이 중요한 교수 전략임을 시사한다.

또한, 의미 투명성 활용법이 새로운 한자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52.9%)와 “매우 그렇다”(29.9%)가 대부분을 차지해, 의미 구성 요소를 활용한 학습이 실제 인지적 추론 과정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습법을 적용한 수업이나 자료에 참여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있다”(44.9%)와 “매우 있다”(38.2%)의 합이 83.1%로 나타나, 학습자들이 의미 중심의 분석적 접근 방식에 대해 높은 흥미와 수용 의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의미 투명성 활용 학습법은 사전 인식은 낮았지만, 개념 설명 이후 높은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낸 교육 방식으로 평가된다. 이는 학습자들이 단순 암기보다는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어휘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한자어 구성 요소 간 의미 관계를 바탕으로 전체 단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한자어 교육에서는 의미 투명성 기반의 교수법을 명확히 소개하고, 이를 시각 자료나 문맥 중심 활동과 연계하여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어휘를 구성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본 조사를 통해 중급 학습자들은 한자어 학습에서 구성 원리, 동음어, 의미 투명성과 같은 요소들이 학습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베 간의 언어적 유사성과 비교 학습은 이해와 암기에 긍정적 역할을 하며, 단순한 암기 방식보다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동음어와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학습법에 대해 학습자들은 높은 흥미와 참여 의사를 보였으며, 실제 오류 경험

도 구성 이해 부족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향후 한자어 교육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심화된 교수 전략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요컨대, 중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어휘의 형태·의미 구조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접근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한 교수법 및 자료 개발이 요구된다.

3.4.2 한국어 교재 분석

본 논문은 베트남 중급 학습자가 한자어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이해·기억하고, 새로운 한자어의 의미를 유추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동음이의어와 한자어의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한자어 수요와 이해도 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강현화(2022:18)는 교재가 교사, 학습자와 더불어 언어 교육의 핵심 요소라고 하며,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 목표를 전달하는 교육적 도구라고 하였다. 현재 베트남에서 한자어 교육이 널리 보급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 중인 한국어 교재를 분석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 요구와 함께 교재를 분석도 병행하고자 한다.

3.4.2.1 교재 분석 기준

최근 베트남 내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통합형 한국어 교재가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중급 단계에 도달한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단순한 의사소통 능력뿐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어휘 구사를 요구받게 되며, 이와 함께 한자어의 이해와 활용 능력 또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한자어를 제시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이 해당 어휘를 어떻게 습득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내 한국어 학과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교재들의 사용 현황을 조사한 응

웬 티 닉엣 타잉(2022)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아래 <표 28>은 해당 연구에서 제시된 교재 사용 현황을 보여준다.

[표 35] 베트남 내 대학 한국어 학과 교재 사용 현황 (웬 티 닉엣 타잉2022:48)

| 연번 | 교재명 | 출판부 |
|----|-----------------|----------|
| 1 |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 한국국제교류재단 |
| 2 | 이화대 한국어 | 이화대학교 |
| 3 | 서강대 한국어 | 서강대학교 |
| 4 | 경희대 한국어 | 경희대학교 |
| 5 | 연세대 한국어 | 연세대학교 |
| 6 | 세종 한국어 | 세종 한국어 |
| 7 | 서울대 한국어 | 서울대학교 |
| 8 | 고려대 한국어 | 고려대학교 |

위 <표 28>를 통해 베트남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한국어 통합 교재가 제작되고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재들은 한국의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저자들에 의해서도 발행되었으며, 이는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양한 출처의 학습자료가 제공됨으로써 학습자들은 자신의 목표와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할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클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 대상 교재를 선정함에 있어 대표성, 교육 현장의 실제 적용 가능성, 그리고 연구 목적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 설정은 분석 대상 교재가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충실히 반영하고, 학습자 특성 및 현대 교육 경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중급 수준의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자어 교수법의 효과적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실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통합형 교재 세 종류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교재들은 한국의 주요 교육기관에서 개발되었으며, 내용의 적합성, 언어 기능의 통합성,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 그리고 학습자 특성에의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엄선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한자어의 제시 방식, 의미의 투명성, 그리고 동음어를 활용한 어휘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교재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자어 어휘 지도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어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교재를 선정함에 있어 대표성과 교육적 실용성과 연구 목적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선정 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표 29>과 같다.

[표 29] 교재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구체 내용 | 선정 목적 및 의의 |
|------------------------|--|------------------------------------|
| 1.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 | 베트남 내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널리 사용되는 교재일 것 | 실제 교육 현장의 맥락과 학습자 경험을 반영 |
| 2.통합형 교재 여부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4가지 언어 기능이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 어휘 학습이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함 |
| 3.어휘 제시 방식 및 한자어 포함 비율 | 어휘 목록이 명확히 제시되며, 일정 비율 이상의 한자어를 포함할 것 | 한자어 교수법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 4.베트남 학습자에의 적합성 | 베트남어 번역본이거나, 베트남 학습자의 언어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교재일 것 | 학습자의 이해도와 수업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교육기관에서 개발되었으며, 베트남 내 교육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세 종류의 통합형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교재는 내용 구성, 구조적 완성도 및 실제 수업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적합성을 보이며, 한자어 제시 방식, 의미의 투명성, 그리고 동음어 활용 여부 등 본 연구의 주요 분석 항목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연세대학교에서 출판한 『연세한국어 3-1, 3-2, 4-1, 4-2』,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이 개발한 『서울대 한국어 3A, 3B, 4A, 4B』, 그리고 한국국제교류재단(KF)에서 베트남 학습자를 위해 출판한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4,5』 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여덟 권의 교재를 분석하겠다. 해당 내용은 <표30>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7] 분석 교재

| 교재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 연도 |
|------------------------------------|-----------------|-----------|-------|
| 연세 한국어 3-1, 3-2 연세 한국어 4-1, 4-2 | 연세대학교 | 연세대학교 출판부 | 2014 |
| 서울대 한국어 3A, 3B 서울대 한국어 4A, 4B |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 출판부 | 2015 |
|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3, 4 | KF 한국국제 교류재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 2013 |

<표 30>와 같은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교재 세 가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교재는 모두 우수의 교육기관에서 개발되었으며, 최신 정보와 실제적인 언어 사용에 중점을 둔 교재들로, 연구의 목표에 부합하는 적합한 자료로 평가된다.

『연세 한국어 3-1, 3-2, 4-1, 4-2』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개발한 중급 통합 교재로,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듣기·말하기·읽기·쓰기를 균형 있게 다룬다. 주제 중심 활동과 과제 기반 학습으로 참여를 유도하며, 실제 상황 예문과 시각 자료를 활용해 의미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일상 및 사회 주제와 관련된 한자어 비중이 높아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한다.

『서울대 한국어 3A, 3B, 4A, 4B』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이 개발한 중급 학습자용 교재로, 네 기능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명확한 학습 목표와 단계별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어 문법·어휘뿐 아니라 한국 문화와 사회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한다.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3,4』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베트남 학습자를 위해 제작한 교재로, 중급 수준의 문법·어휘와 실생활 중심 표현을 다룬다. 베트남어 설명을 포함하여 두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베트남과 한국 문화를 비교하는 내용도 제공한다.

이 세 교재는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교재를 분석함으로써, 베트남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한국어 교육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설

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당 교재들에서 한자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한자어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재 내에서 한자어의 출현 여부, 한자어와 관련된 내용 및 활동의 존재, 한자어 제시 방식, 어휘 교육 활동의 포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자어가 교재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어휘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기준은 기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이해영(2001)은 교재 분석 시 교육 목표, 내용 구성, 언어 요소(문법, 어휘, 발음 등)와 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평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황인교(2003)는 외적 구성, 내적 구성, 교수·학습 상황의 세 범주로 나누어 교재 분석 시 외형과 내용 모두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교재 분석에서 외적·내적 구성을 모두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교재 개발이 아닌, 베트남에서 사용 중인 교재의 한자어 교육 실태 및 그 한계점을 분석하고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외적 구성 요소는 제외하고, 내적 구성 중 학습 내용과 활동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한자어 분석 기준을 제시한 연구로, MA JINSHAN(2012)은 한자어 분석 기준으로 ① 한자 병기 여부, ② 한자어 설명 제공 여부, ③ 활동 속 활용 여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MA JINSHAN의 기준은 전반적인 기술에 머무르고 있으며, 한자어의 언어학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 JINSHAN의 접근을 계승하되, 이를 보완하여 어휘의 맥락적 제시 방식, 품사 및 어종에 따른 분류, 한·베 동음어 주석 방식, 의미 투명성 제시 여부, 그리고 어휘 학습 활동의 세부 유형과 같은 항목을 추가로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의 특징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분석 기준은 <표 31>에 정리하였다.

[표 38] 교재 분석 기준

| 분석 항목 | 분석 기준 |
|--------------|--|
| 어휘 제시 방식 | 교재에 어휘가 제시되어 있으나 의미 설명은 없다. |
| | 교재에 어휘가 제시되고 의미만 간단히 설명되어 있다. |
| | 어휘가 구체적인 문맥(문장, 글, 대화 등), 예시 속에 제시되어 있다. |
| | 어휘가 품사(명사, 동사, 형용사 등)나 어종(한자어·고유어·외래어)으로 나누어 제시된다. |
| 한자어 제시 방식 | 교재에서 제시한 내용은 한자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
| | 교재에서 어휘 주석에서는 한국 한자어에 대응되는 베트남어의 한자어 혹은 한자음을 제시한다. |
| 동음어 제시 방식 | 교재에 어휘가 개별적으로 소개되고 한-베 동음어에 대한 주석이나 예문이 없다. |
| | 교재에 한자어에 해당하는 동음어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
| 의미 투명성 제시 방식 | 학습자가 의미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한자어일지라도, 교재에서는 종종 본문이나 읽기 자료 내에서만 소개하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 번역문이나 사전적 정의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예) 국화: 'Quốc hoa' / '한 나라를 상징하는 꽃' |
| | 한자어의 의미 투명성을 암시적으로 제시함 (<i>한자어의 의미를 설명할 때 그 구성성분의 의미도 함께 설명함</i>) |
| 어휘 학습 활동 | 교재에서 어휘 활동이 별도로 설계되지 않는다. |
| | 교재에서 일반 어휘 활동이나 일반 어휘 과제가 있다. |
| | 동음어를 활용한 어휘 학습 활동이 있다. |
| | 의미를 투명성을 활용한 어휘 학습 활동이 있다. |

위 <표 31>는 한국어 교재에서 어휘 제시 및 활용 방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자어와 한국어-베트남어 동음이의어 현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어휘 제시 방식 항목은 단순한 단어 나열에서부터 구체적인 문맥 속 제시, 그림·발음 기호·모국어 번역 제공, 품사 및 어종 분류에 이르기까지 어휘 제시의 다양성과 구체성을 진단한다. 어휘 제시 방식 항목은 다른 항목과 달리 “있다/없다”로 평가되지 않고, 어휘 제시의 수준과 방식을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어휘를 나열하는 수준에서 의미를 간단히 설명, 문맥 속 제시, 품사와 어종별 분류에 이르기까지 어휘 제시의 질과 구체적 방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항목과 달리 서술형 구조를 가지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한자어 제시 방식은 교재에서 한자어와 베트남어 한자어 간 연계 정도를 평가하며, 이는 학습자가 익숙한 한자어를 활용해 새로운 어휘를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돕는다. 셋째, 동음어 제시 방식은 교재가 한국어와 베트남어 사이의 동음어를 얼마나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는지를 살펴, 학습자가 다의어 의미를 구별하고 의사소통에서 혼동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의미 투명성 제시 방식 항목은 교재가 단순 번역이나 사전적 정의에 그치지 않고, 한자어 구성 요소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어휘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정도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어휘 학습 활동 항목은 동음어 활용 및 의미 투명성 기반 학습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연습 문제와 과제의 유무 및 효과성을 평가한다.

이와 같은 평가 기준을 통해, 본 분석표는 교재 내 어휘 내용의 질뿐 아니라 학습자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어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 수준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3.4.2.2 교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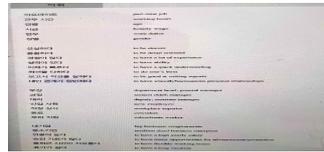
본 연구는 베트남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동음어와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한자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베트남 대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합 한국어 교재들을 분석하였다. 앞서 <표 31>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한국어 교재에서 어휘 제시 방식, 한자어, 동음어 및 의미 투명성, 과제 및 어휘 학습 활동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교재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교재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교재 1은 『연세대 한국어 3-1, 3-2, 4-1, 4-2』, 교재 2는 『서울대 한국어 3A, 3B, 4A, 4B』, 교재 3은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3, 4』 교재이다. 분석 결과는 <표 31>의 평가 기준에 따라 0-1-2-3 점으로 나뉘어 정리되었다. 먼저 어휘 제시 방식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2>과 같다.

[표 32] 어휘 제시 방법 분석 결과

| 분석 기준 | 점수 | 분석 결과 | | |
|-------|----|-------|----|----|
| | | 교재 | 교재 | 교재 |
| | | | | |

| | | | | |
|--|---|---|---|---|
| | | 1 | 2 | 3 |
| 교재에 어휘가 제시되어 있으나 의미 설명은 없다. | 0 | ○ | ○ | |
| 교재에 어휘가 제시되고 의미만 간단히 설명되어 있다. | 1 | | | ○ |
| 어휘가 구체적인 문맥(문장, 글, 대화 등), 예시 속에 제시되어 있다. | 2 | ○ | ○ | |
| 어휘가 품사(명사, 동사, 형용사 등)나 어종(한자어·고유어·외래어)으로 나누어 제시된다. | 3 | | | |
| 합계 | | 2 | 2 | 1 |

<표 32>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세 교재의 어휘 제시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교재1과 교재2는 모두 어휘를 본문이나 읽기 텍스트, 활동 등을 통해 제시하고 있으나, 어휘의 의미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학습자들이 맥락 속에서 어휘의 의미를 유추하고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시적인 의미 설명이 부족할 경우, 특히 추상적이거나 학습자의 배경 지식이 부족한 어휘에서는 오히려 이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림 6-1> 교재 2 어휘 제시 방식 예시



<그림 6-2> 교재 2 어휘 제시 방식 예시

<그림 6-3> 교재 3 어휘 제시 방식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어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표현을 병기한 것은 자연스러운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교재 1과 2는 특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교재로, 이러한 주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세 교재 모두 일정 수준에서 한자어를 다루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한자어 요소가 심화되거나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학습자가 문맥을 통해 한자어의 의미를 유추하거나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학습 안내도 부족한 실정이다. 교재별 한자어 제시 방식 아래의 <그림>들 같이 볼 수 있다.



<그림 7-1> 교재1 한자어 제시 방식 예시



<그림 7-2> 교재2 한자어 제시 방식 예시

▶ 도입 관련 어휘 Từ vựng về hợp mắt

| | | | |
|-------------------------|------------------------------|--------------------------|--------------------------------|
| 송년회 tết chào năm | 동창회 hợp mắt thăm cùng lớp | 송년회 tết tất niên | 동호회 hội người cùng sở thích |
| 회의 biên soạn công ty | 어우러져 trò chuyện | 장기 모임 hợp mắt định kỳ | 회의 hội nghị |
| 참석 tham dự có mặt | 연락 liên lạc | 취소 hủy bỏ | 변경 thay đổi |

<그림 7-3> 교재3 한자어 제시 방식 예시

앞선 <표 3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교재는 한자어 제시 방식에 있어서도 일관성 부족과 체계적이지 않은 제시 경향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동음어 제시 방식과 의미 투명성 제시 방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동음어 제시 방식과 의미 투명성 제시 방식은 분석 대상 교재들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다뤄지는 경향이 있었다. 관련 예시나 주석, 학습 활동도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항목의 분석

결과를 하나의 표로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표 3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1] 동음어 및 의미 투명성 제시 방법 분석 결과

| 분석 기준 | | 점수 | 분석 결과 | | |
|-----------------------|--|----|---------|---------|---------|
| | | | 교재 1 | 교재 2 | 교재 3 |
| 동음어 제시 방식 | 교재에 어휘가 개별적으로 소개되고 한-베 동음어에 대한 주석이나 예문이 없다. | 0 | ○ | ○ | ○ |
| | 교재에 한자어에 해당하는 동음어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 1 | | | |
| 의미 투명성 제시 방식 | 학습자가 의미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한자어 일지라도, 교재에서는 종종 본문이나 읽기 자료 내에서만 소개하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 번역문이나 사전적 정의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예) 국화: 'Quốc hoa' / '한 나라를 상징하는 꽃' | 1 | ○ | ○ | ○ |
| | 한자어의 의미 투명성을 암시적으로 제시함 (한자어의 의미를 설명할 때 그 구성성분의 의미도 함께 설명함) | 2 | | | |
| 합계 | | | 1 | 1 | 1 |

<표34>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재 1, 2, 3 모두 동음어 제시 방식과 의미 투명성 제시 방식 측면에서 명확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동음어 제시 방식에서는 세 교재 모두 어휘를 개별적으로 소개하였으며, 한-베 동음어에 대한 주석이나 예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특히 한자어 학습에 있어서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의미 투명성 제시 방식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재는 이를 단순히 본문이나 읽기 자료 내에서 제시하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 베트남어 번역이나 간단한 사전적 정의로 대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화(國花)'와 같은 단어의 경우, 그 구성 성분(國+花)의 의미를 통해 전체 의미를 쉽게 추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 요소에 대한 언급 없이 결과적 정의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

인 어휘력 확장이나 유사 어휘 간 구별 능력 함양에는 한계가 있다.

두 항목 모두에서 학습자의 능동적 의미 추론과 어휘의 구조적 이해를 촉진하는 설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특히 베트남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에게 있어 한자어의 내적 구조와 의미의 논리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어휘를 학습하거나 문맥 속에서 의미를 추론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학습 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5] 어휘 학습 활동 제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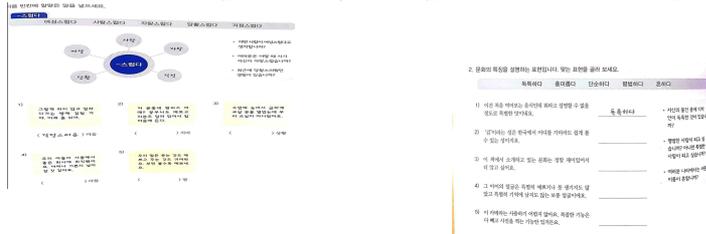
| 분석 기준 | 점수 | 분석 결과 | | |
|-------------------------------|----|-------|------|------|
| | | 교재 1 | 교재 2 | 교재 3 |
| 교재에서 어휘 활동이 별도로 설계되지 않다. | 0 | | | ○ |
| 교재에서 일반 어휘 활동이나 일반 어휘 과제가 있다. | 1 | ○ | | |
| 동음어를 활용한 어휘 학습 활동이 있다. | 2 | | | |
| 의미를 투명성을 활용한 어휘 학습 활동이 있다. | 2 | | ○ | |
| 합계 | | 1 | 2 | 0 |

<표 35>의 분석 결과를 보면, 세 교재는 어휘 학습 활동의 구성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교재 2가 총점 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교재 3은 어휘 활동이 전혀 설계되어 있지 않아 모든 항목에서 0점을 기록하였다.

먼저, 교재 1은 각 과 이후에 일반적인 어휘 연습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표면적인 수준에 머무르며, 한자어의 동음어 활용이나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과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재 1은 기본적인 어휘 학습 활동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1점을 부여하였다.

또는 교재 2는 분석된 세 교재 중 유일하게 한자어의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어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비록 빈도는 낮지만, 학습자가 단어의 구성 요소를 통해 의미를 유추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어휘 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베트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학습 환경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

교재 3의 경우, 어휘 학습 활동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단어의 의미만을 간단히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어휘 학습의 실제적 활용이나 이해를 위한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우며, 세 교재 중 어휘 교육 측면에서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재 1과 교재 2에서 제시한 어휘 활동 예시는 각각 <그림 8-1>, <그림 8-2>과 같이 볼 수 있다.



<그림 8-1> 교재 1 학습 활동 제시 분석 결과



<그림 8-2> 교재 2 학습 활동 제시 분석 결과

베트남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어휘 제시 방식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 교재 I과 II는 어휘를 제시할 때 간단한 정의와 함께 한국어로 설명하거나 예문 없이 단어만 나열하는 경우가 많고, 교재 III는 어휘의 뜻을 바로 베트남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나, 어휘의 실제 사용 맥락이나 의미적 범주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어휘의 어종(고유어, 외래어, 한자어)에 대한 구

분도 대부분의 교재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며, 이는 학습자가 어휘의 성격과 특성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세 교재 모두 한자어와 관련된 어휘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제시는 체계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본문이나 읽기 자료 속에서 단어 수준으로만 등장하며, 단어의 구성 요소나 의미 구조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재 1과 2는 간헐적으로 한자어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만 별도의 학습 목표나 활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교재 3는 베트남어 대응어를 제공하는 데 그친다. 즉, 학습자의 이해를 보조하는 차원에서만 제시될 뿐, 어휘의 구조나 활용에 대한 인식은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분석 결과를 통해 세 교재 모두 동음어에 대한 인식과 설명이 부재하다. 즉, 한국어의 한자어와 베트남어의 한자어가 발음은 유사하지만 의미가 다르거나 혼동의 여지가 있는 경우 (예: 사장-xã trưởng, 회의-hội nghị)에 대해 아무런 주석이나 비교 설명이 없다. 특히 한자어에 익숙한 베트남어권 학습자에게 잘못된 의미 전이에 따른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의미 투명성, 즉 단어의 구성 성분을 통해 전체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적 접근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교재는 단어를 정의나 번역으로만 제시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한자 요소(예: 접두사, 접미사, 어근 등)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학습자의 자율적 어휘 추론 능력과 어휘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세 교재 모두 어휘 학습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나, 활동의 다양성과 빈도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교재 1은 가장 다양한 어휘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원 말미에 ‘정리해봅시다’ 등 어휘를 복습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부 단원에서는 접두사, 접미사 학습이나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활동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교재 2는 대부분 빈칸 채우기, 문장 완성 등 일반적인 활동에 국한되어 있고, 활동의 수나 난이도 면에서도 제한적이다. 교재 3는 본문에서 어휘의 뜻만 제시하고 있으며, 통합 교재로서 어휘 활동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일부 보조 자료에는 의미 추론 활동이 있으나, 전체적인 어휘 능력 확장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사용되는 교재들에서 어휘 학습 활동이 체계적이

고 학습자 맞춤형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한자어 학습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동음어 구별이나 의미 투명성 활용과 같은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향후 교수 설계 및 교육 자료 개발 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임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는 향후 교수 자료 개발 및 어휘 학습 활동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자어 어휘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V. 한자어 교육 방안 설계

본 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과 제3장에서 분석한 한자어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및 요구의 조사 결과, 그리고 교재를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중급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의 원리와 교수요목, 수업 모형을 설계하고자 해서, 동음어 및 의미 투명성을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한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 실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한자어 교육의 원리와 교수요목

본 논문은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자어의 특성과 베트남어와의 관련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한국어 어휘 교수 방안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 수업 설계에서는 한자어만을 위한 독립적인 수업이 아니라, 교재의 주제에 한자어 학습 전략을 통합한 형태의 어휘 수업을 선택하였다. 이는 베트남 대학의 제한된 수업 시수, 중급 단계에서 요구되는 주제별 어휘 확장 필요성, 그리고 한자어 학습 전략이 일반 어휘 수업에 자연스럽게 통합 가능하다는 점에 근거한다. 따라서 『서울대 한국어 4A, 4B』를 기반으로 18주간 진행되는 통합형 어휘 교수요목을 제시하고, 교육 방안의 원리를 구성하고자 한다.

한자어 어휘 교육 방안을 탐구하는 본 연구의 범위 내에서, 본 논문은 베트남 내 한국어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급 수준의 어휘 수업 모형을 제안한다. 해당 수업은 총 18주 동안 진행되며, 주당 2회 수업, 회당 50분으로 구성된다. 이는 현재 다수의 한국학 관련 학부 과정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업 시간 체계와 일치한다.

본 논문의 연구 초점이 한자어에 있긴 하나, 한자어만을 중심으로 한 수업을 설계하기보다는, 주제별 통합 어휘 수업 교수요목을 구성하고 그 안에 한자어 교수 전략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수업은 서울대 한

국어 4A, 4B 교재를 기반으로 하되, 각 주차별 주제에 따라 주요 어휘 및 대표 한자어를 선별하여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교수요목의 목표는 단순히 어휘량을 확장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어휘 처리 능력, 즉 의미 추론, 형태소 분석, 동음어 이해 및 실제 의사소통 맥락에서의 활용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있다. 한자어를 중심으로 한 독립적 수업이 아닌 통합형 어휘 프로그램을 설계한 이유는, 대학 교육 현장의 실제성과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했을 때, 특정 어휘 유형에만 집중하는 접근보다는 어휘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접근법은 교사가 어휘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한자어의 특성을 기반으로 전문 교수법을 통해 학습자의 의미 인식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다음의 <표 36>와 같이 교수요목이 구체적으로 구성된다.

[표 36] 어휘 수업의 예시 교수요목

| | | | | |
|------------|--|--------------------------------|-------|--------|
| 과목명 | | | 강사명 | |
| 강의소개 | | | | |
| 강의대상 | 한국어 중급 수준 학습자 (TOPIK 3~4급 수준) | | | |
| 강의시간 | 18주 2교시 각 50분/교시/주 | | | |
| 강의목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제별 어휘를 학습하고 실제 문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휘 사용 능력을 기른다. 2. 한자어의 음과 의미를 인식하다. 3. 한·베 한자어 비교를 통해 어휘의 의미와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4. 어휘의 의미 투명성과 구성 원리를 활용하여 새로운 어휘를 추론과 이해한다. 5. 다양한 어휘 학습 전략을 통합적으로 적용한다. | | | |
| 강의방법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제별 어휘 학습과 함께 한자어의 한·베 대응 구조를 비교 분석한다. 2. 동음어 및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어휘 추론 전략을 도입한다. 3. 실제 문맥과 예문을 통해 어휘의 정확한 쓰임과 의미를 파악한다. 4. 발음 유사성을 통한 의미 추측 활동과 오류 수정 활동을 병행한다. 5. 소그룹 토의, 물플레이, 게임형 활동 등을 통해 학습자의 참여와 사고력을 높인다. | | | |
| 절차 및 세부 내용 | | | | |
| 주차 | 주제 | 학습 목표 | 주요 어휘 | 대표 한자어 |
| 1 | 오리엔테이션 | 강의 소개, 학습 목표 안내-한자어를 활용한 활동 진행 | | |

| | | | | |
|----|-------------------------------------|---|--|---|
| 2 | 적성과 진로 | 진로 관련 어휘 습득, 자기 진로 발표 능력 강화 | 예술적, 실용적, 사교적, 적 극적,..... | 능력, 작성, 대학, 교양, 학원,..... |
| 3 | 건강한 삶 | 건강/습관 관련 어휘 학습, 건강 조언 표현 능력 함양 | 쓰리다, 막히다, 가렵다, 붓 다, 저리다,. | 과-과로, 과 식, 과음, 과 속, 과소비 |
| 4 | 스포츠 의 세계 | 스포츠 용어 이해 및 경기 설명 능력 향상 | 득점을 하다, 승부가 나다, 규칙을 지키다, 반칙을 하 다, | 막상막하이 다, 정정당당 하다, 승부, 경기, 경고, 퇴장,.... |
| 5 | 남자와 여자 | 남녀 차이 유무하고 성 역 할 관련 어휘 습득, 토론 능력 강화 | 계획성이 없다, 눈치가 없 다, 고침이 세다, 발끈하다, 따지다, ... | 태도, 불만, 지적하다, 자 존심,.... |
| 6 | 속담과 관용어 | 속담 의미 이해, 상황극 제 작을 통한 표현력 향상 | 여러 가지 속담 귀가 얇다, 노이 높다, 입 이 가뻐다,..... | 관용어, 속 담,.... |
| 7 | 공연과 축제 | 공연/축제 관련 어휘 습득 및 발표 능력 배양 | 대단하다, 감동적이다, 지 루하다, 신이 나다, 가슴이 찡하다, | 공연, 축제, 계획, 발표,.... |
| 8 | 옳고 그름 | 윤리/판단 어휘 이해, 사례 토론 참여 능력 강화 | 말도 안 되다, 현실성이 없 다, 앞두가 안 맞다, | 배려, 양해, 양심,.... |
| 9 | 중간 시험 및 발표: 팀별 중간 발표나 or 배운 내용으로 시험 | | | 후 피드백 |
| 10 | 옛날이 야기와 신화 | 전통 이야기와 신화의 구조 이해, 이야기 전달 능력 강 화 | 어리석다, 영리하다, 겁이 많다, 의리가 있다,.... | 성격, 인물, 은혜, 복수, 욕심,.... |
| 11 | 언어와 생활 | 언어의 역할 및 표현 방식 이해, 실생활 활용 능력 배 양 | 외래어, 줄임말, 높임말, 표 현이 풍부해지다,.... | 언어, 표현, 생활, 사생 활, 연결,.... |
| 12 | 소중한 환경 | 환경 보호의 중요성 인식, 실천 방법 발표 능력 강화 | 보호하다, 재활용하다, 낭 비하다, 아끼다, 버리다,.... | 환경, 오염, 대기, 토양, 온난화, 기 후,.... |
| 13 | 여행의 즐거움 | 여행 경험 공유, 감정 및 문화 소개 능력 향상 | 여행, 관광지, 일정, 기념 품,.... | 풍경, 여행, 기념품,. |
| 14 | 숫자의 세계 | 숫자의 의미와 문화적 상징 이해, 수 표현 활용 | 증가하다, 감소하다, 인상 되다, 인하되다, 늘어나다, 비율, 확률, 환율,.... | 수량, 변화,.... |
| 15 | 동물과 식물 | 생물 다양성 이해, 동식물 묘사 능력 향상 | 번식하다, 진화하다, 멸종 되다, 훈련시키다, 확대하 다,.... | 동물, 식물, 생태계,.... |
| 16 | 과학의 | 과학 원리 및 현상의 흥미 | 실제로 존재하다, 원리가 | 존재, 원리, |

| | | | | |
|----|--|------------------------|------------------------|-----------------|
| | 신비 | 유발, 관련 어휘 | 궁금하다, 이유가 밝혀지 다.... | 가능, 불가 능.... |
| 17 | 보충 수업 | 전체 어휘 복습, 한자어 활용 능력 심화 | | |
| 18 | 기말 시험: 전체 복습, 개인 피드백 제공, 자기주도 학습 계획 수립 | | | |

<표 36>의 교수요목은 중급 수준 학습자를 위한 어휘 수업의 구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본 수업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주제별 어휘와 함께, 한자어 교수 전략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학습자의 어휘 사용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주제는 학습자의 일상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어휘의 의미를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실제 사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주제별 주요 어휘 외에도 대표적인 한자어를 제시함으로써, 형태소 분석 및 의미 추론, 한-베 비교 분석 등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학습자의 어휘 인식 능력을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더불어 『서울대학교 한국어 4A, 4B』 교재를 기반으로 수업을 구성함으로써, 학습 내용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음어 활용과 의미의 투명성을 활용한 학습 방법을 실제 수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소그룹 토의, 롤플레이, 게임형 활동 등 참여 중심의 학습 활동을 포함시켜, 학습자의 흥미와 사고력 증진을 동시에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설계된 어휘 수업은 단순한 어휘량의 확장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어휘를 정확하고 유의미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자어 교육 방안의 원리는 학습자가 단순히 어휘를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 사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첫째, 학습자의 기존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언어 간 연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트남 학습자는 학교 교육이나 일상 경험을 통해 일부 한-베어 어휘에 이미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한국어 학습과 연결하면 낯선 단어도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어휘를 음과 의미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학습하도록 유도한다. 단어를 음절 단위로 나누고 각 음절에 해당하는 한자를 이해함으로써 전체 단어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단어의 의미 추론과 어휘 체계 확장 능력을 동시에 강화한다.

셋째, 한국어 한자어와 베트남어 유사 어휘를 비교하는 언어 간 비교 학습을 적용하여 발음, 의미, 사용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게 하고, 언어 간 접으로 인한 오류를 예방하며 학습자의 인지적 이해를 심화시킨다.

넷째, 의미 투명성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단어의 구성 원리를 스스로 분석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자는 단순히 한자를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의미 구조를 시각적으로 연상하며 이해하게 되며, 교사는 필요 시 검색 시범이나 유사어 비교 등을 통해 학습자의 추론 과정을 지원한다.

다섯째, 어휘 학습은 실제 문맥 속 사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대화문, 기사, 상황극 등 실용적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추론 - 비교 - 문맥 검토’의 과정을 통해 단어를 점검하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원리들은 적용되어, 학습자가 한자어를 장기 기억에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실제 언어 사용에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4.2 한자어 교육 방안의 실제

앞서 제시한 교육 원리를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실제 교육과정 안에서 선정된 주제 중 일부를 대상으로 동음어 활용 전략과 의미 투명성 전략을 적용한 수업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한자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수업 설계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을 제공

한다.

4.2.1 동음어를 활용한 교육 방안

기본 교육 원리가 확립된 후, 다음 단계는 이론을 실제 수업 현장에 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론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단순히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체계적이고 유연한 교수 설계를 필요로 한다. 앞서 제시한 교육 원리를 바탕으로, 다음 부분에서는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동음어 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6단계 교수 모형은 <그림9>와 같이 제



<그림9> 동음어를 활용한 한자어 수업의 모형

위에 제시된 <그림9>의 살펴보면, 이론과 교수 현장의 연결 고리로서 설계되었다.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단계별 순차적 진행을 통해 학습자의 동음어와 한자어 어휘 습득 및 활용 능력을 전인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모형은 총 6단계(도입-제시-연습-활동-피드백-마무리)로 이루어지며, 학습자의 사전 지식 활용, 구조적 분석, 실제 사용까지 어휘 학습의 전 과정을 아우른다. 첫째 단계인 도입에서는 실생활 예시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하고, 베트남어와 유사한 발음을 가진 한국어 단어를 제시함으로써 수업의 주제에 자연스럽게 접근한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기존 언어 지식을 수업 내용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단계인 제시에서는 단어와 그에 해당하는 한자어를 비교하며, 각 단어의 음절 구조와 의미 요소를 분석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어휘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의미 유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연습 단계에서는 한자 기반의 다양한 활동(단어 짝짓기, 의미 연결, 새로운 단어 만들기 등)을 통해 학습 내용을 반복하고 확장한다. 학습자는 이를 통해 구조적인 어휘 처리 전략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활동 단계는 실제 활용 중심이다. 그룹 토의, 역할극, 대화문 작성 등 다양한 과제를 통해 학습자는 새로 배운 어휘를 실생활과 유사한 문맥에서 적용하며, 표현력을 높일 수 있다. 피드백 단계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 교사가 설명과 지도를 제공한다. 특히, 발음 혼동이나 의미 오해와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수정함으로써, 정확한 어휘 사용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에서는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 과제(예: 유사한 한월어 조사)를 통해 자율 학습 능력을 촉진한다. 이처럼 본 모형은 어휘 학습의 인지적 이해와 실제적 사용을 동시에 강조하는 통합적 접근법이다.

효과적인 교육은 단지 원리의 수립이나 모형의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업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교육 실행 방안으로서, 동음어 교육을 위한 실제 수업 구성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44] 동음어를 활용한 예시 학습 지도안

| 과(단원) | 건강한 삶 | 대상자 | 베트남 중급 학습자 | 수업 시간 | 2교시 50분 |
|-------|---|-----|------------|------------------------------------|---------|
| 학습목표 | 1. 한자어의 한-베 발음을 비교하여 유사성을 인식한다. 2. 음-의미 대응을 통해 어휘의 뜻을 유추하고 기억한다. 3. 어휘를 문맥 속에서 정확하게 사용한다. 4. 비판적 사고 및 자기 검증 전략을 적용한다. | | | | |
| 학습자료 | 텍스트 자료, 수업 PPT, 활동지 | | | | |
| 단계 | 교수·학습 내용 | | | 유의점 | 시간 |
| | 2교시 | | | | |
| 도입 | - 1 교시 시간에 배운 어휘를 복습한 후, 해당 주제에 관련된 한자어에 대한 흥미를 유도한다. 배운 어휘를 화면에 띄우거나 칠판에 적고, 학생들과 함께 큰 소리로 읽는다. T: 여러분, 조금 전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증상’과 관 | | | 학습자에게 "말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세요. 뜻이 다른 | 5분 |

| | | | |
|----|---|---|-----|
| | <p>런된 어휘를 배웠죠? 이제 함께 복습해 볼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이 침침하다, 목이 뻣뻣하다, 목이 따끔거리다, 속이 거북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p>T: 이 단어들 중에 ‘속이 거북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어떨 때 속이 거북할까요?</p> <p>S: 너무 많이 먹었을 때요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요.</p> <p>T: 네, 맞아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속이 거북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음식’은 베트남어로 뭐예요?</p> <p>S: Ẩm thực입니다.</p> <p>T: ‘음식’이 베트남어 ‘âm thực’하고 소리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음식’은 한자어예요. 한국어에는 이렇게 한자로 된 단어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베트남어에도 한자에서 온 단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교’는 ‘học hiệu’, ‘가족’은 ‘gia tộc’, ‘문화’는 ‘văn hóa’처럼요. 발음도 비슷해서, 이런 한자어를 연결해서 공부하면 외우기 훨씬 쉬워요.</p> <p>T: 오늘 수업에서는 이런 예시를 통해서 베트남어와 같은 한자어라도, 한국어에서 뜻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배울 거예요.</p> | <p>단어를 정답으로 유도하지 말고,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유도하면 효과적입니다. 칠판 또는 슬라이드 시각 자료를 적극 활용하세요.</p> | |
| 제시 | <p>- 한-베 발음 비교 중심 설명하고 칠판에 단어를 보여 준다. 학생과 함께 크게 읽는다.</p> <p>T: 일단, 칠판에 보세요. 이번에 배울 단어들을 같이 볼까요?</p> <p>(1) 과로: quá lao lực 과=qua - vượt quá + 로=lao - lao động, mệt 뜻: 너무 많이 일해서 몸이 힘든 상태를 말해요. 예문: 과로로 인해 몸이 아파요. (Vì quá lao lực nên tôi bị đau người.)</p> <p>(2) 과식: ăn quá nhiều 과=quá + 식=thực - ăn 뜻: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을 말해요. 예문: 과식을 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Ăn quá nhiều thì tiêu hóa không tốt.)</p> <p>(3) 진단: chẩn đoán 진=chẩn-khám+단=đoạn-quyết định, phán đoán 뜻: 병을 발견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해</p> | <p>학생들에게 한자어를 직접 소리 내어 읽게 하여 발음 유사성을 느끼게 한다. 한자의 뜻을 조합해서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도록 유도한다. 예문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보여준다.</p> | 15분 |

| | |
|--|----------------------------------|
| <p>요. 예문: 의사가 환자를 진단했어요. (Bác sĩ đã chẩn đoán bệnh cho bệnh nhân.)</p> <p>(4) 치료: điều trị 치=trị - chữa + 료=liệu - trị liệu 뜻: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예문: 치료를 받으면 빨리 나아요. (Nếu được điều trị thì sẽ mau khỏi.)</p> <p>(5) 소화: tiêu hóa 소=tiêu - tiêu trừ + 화=hóa - biến đổi 뜻: 음식물이 몸에서 분해되어 흡수되는 과정을 말해요. 예문: 소화가 잘 되도록 천천히 먹으세요. (Hãy ăn chậm để tiêu hóa tốt.)</p> <p>(6) 수면: giấc ngủ 수=thuy - ngủ + 면=miên - nhắm mắt 뜻: 잠자는 상태를 말해요. 예문: 충분한 수면이 건강에 좋아요. (Giấc ngủ đầy đủ rất tốt cho sức khỏe.)</p> <p>T: “네, 바로 ‘tập trung’이에요. 발음이 정말 비슷하죠?” 집(集) = tập, 중(中) = trung (철판에서 단어의 초-중-종성 언어 간 대응을 색깔 펜이나 분필으로 밑줄을 친다. 다른 단어들을 계속 이어서 한다.) - 단어 ② 연구 = nghiên cứu 연(研) = nghiên / 구(究) = cứu - 단어 ③ 교류 = giao lưu 교(交) = giao / 류(流) = lưu - 의미가 비슷하지만 다를 수 있는 단어도 소개: T: 여러분,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모두 한자어를 많이 사용해서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요. 그런데, 발음은 비슷해도 뜻이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런 단어를 동음이의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 운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어에서는 '운동하다' 하면 어떤 뜻이에요? S: 몸을 움직이는 거요! 운동장, 헬스장 같은 데서요. T: 맞아요! 운동은 몸을 움직이는 ‘체육 활동’을 말해요. 그런데 베트남어에서는 ‘운 động’ 하면 꼭 체육 활동이 아니에요. 정치적 활동, 예: "vận động tranh cử" = 선거 운동. T: ◆ 또 하나, 기운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한국어에서 ‘기운이 없다’, ‘기운이 넘치다’ 라고 하면 무</p> | <p>학생들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다.</p> |
|--|----------------------------------|

| | | | |
|-----------|---|---|------------|
| | <p>슨 뜻이에요? S: 힘이 없어요 / 에너지가 많아요. T: 네, 맞아요! 한국어에서 여기서 기운은 '힘, 에너지, 컨디션' 같은 뜻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기운이 없어요.”=오늘 피곤하고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운을 차리세요!”=에너지를 다시 찾으세요, 힘내세요! 그런데 베트남어에서도 "기운"과 비슷한 발음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khí vận”이라는 말인데요, 이걸 베트남어에서 ‘시대의 분위기, 사회의 흐름’ 같은 추상적인 뜻이에요. 예를 들어: “khí vận của đất nước” = đất nước đang trong thời kỳ tốt hoặc xấu. → 일상 대화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국어 ‘기운’을 들으면, 베트남어 “khí vận”을 떠올려서 헷갈릴 수 있어요. 뜻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p> | | |
| <p>연습</p> | <p>-상황을 통한 의미 분석 및 추론 활동과 짧은 독해 및 토론 활동을 결합하여 학습자가 사고력을 기르고 실제 의사소통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p> <p>(1) 활동 1: 상황 읽고 어휘 추론 (과로 / 과식 / 진단 / 치료 / 소화 / 수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민수는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결국 몸살이 나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이것이 _____ 때문이라고 했어요. → 정답: 과로 • 2: 어제 친구랑 삼겹살, 치킨, 떡볶이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지금 배가 아프고 속이 더부룩해요. 아마 _____을(를) 한 것 같아요. → 정답: 과식 • 3: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먼저 위 내시경 _____을(를) 하자고 했어요. → 정답: 진단 • 4: 병원에서 위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도 먹고 꾸준히 _____을(를) 받고 있어요. → 정답: 치료 • 5: 나는 밥을 먹은 후에 항상 배가 아파요. 음식이 위에서 잘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_____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정답: 소화 • 6: 건강을 위해서는 물도 많이 마시고, 운동도 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한 _____이 중요해요. → 정답: 수면 | <p>학생이 틀리게 대답했을 때 바로 수정하기보다는 이유를 되묻는다: “왜 그렇게 생각 했어요?” → 학생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 새로운 어휘를 확장하기 위해 상황맥락을 활용한 다. 예를 들어: 과로 → 휴식, 피로 진단 → 검</p> | <p>10분</p> |

| | | | |
|-----------|---|--|------------|
| | <p>(2) 활동 2: 친구와 토론하기 T: 각자 1문장을 골라서 친구에게 설명하세요. 왜 그 단어가 정답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친구가 다른 단어를 말하면, 함께 비교해 보세요.</p> <p>(3) 활동 3: 나만의 문장 만들기 T: 배운 단어 중 2~3개를 골라서 나만의 경험을 쓰세요. (예: 과로했던 경험, 수면 부족했던 날 등) ◆ 예시: 저는 시험 기간에 너무 과로해서 머리가 아팠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p> | <p>사, 결과 학급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각 상황별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p> | |
| <p>활동</p> | <p>-어휘 의미를 문맥 속에서 활용하는 활동을 통해 강화한다. 추론 능력과 단어 구분 및 활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자가 점검 및 문맥을 통한 의미 추론 전략을 적용한다.</p> <p>(1) 활동 1: 문장 완성하기 (Điền từ vào chỗ trống) (과로 / 과식 / 진단 / 치료 / 소화 / 수면) _____ 과식 _____ 때문에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요. 밤을 새우고 일만 해서 _____ 과로 _____ 상태예요. 병원에서 정말 _____ 진단 _____ 을(를) 받았어요. 위가 약해서 _____ 소화 _____ 가 잘 안 돼요.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고 _____ 치료 _____ 을 받았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_____ 수면 _____ 이 필요해요.</p> <p>(2) 활동 2: 단어 연결하기 (Nối từ với nghĩa) 아래의 한국어 단어와 베트남어 의미를 연결해 보세요. 한국어 단어 베트남어 의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식 a. tiêu hóa 진단 b. chẩn đoán 소화 c. ăn quá nhiều 과로 d. điều trị 수면 e. giấc ngủ 치료 f. quá lao lực <p>✓ Đáp án: 1 - c, 2 - b, 3 - a, 4 - f, 5 - e, 6 - d</p> <p>(3) 활동 3: 짧은 글쓰기 (Viết đoạn ngắn) 다음 단어 중 2~3개를 사용해서 건강과 관련된 짧은 글을 써 보세요. 선택어휘: 과식 / 진단 / 치료 / 수면</p> <p>(4) 상황 대화 만들기 상황 1: 친구가 과식을 해서 속이 안 좋아요. 상황 2: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해요.</p> | <p>학생들은 과로와 과식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진단과 치료 같은 단어는 진료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그림이나 짧은 동영상 자료를 추가로 활용한다. 연습 시 학생들 간의 피드백을 장려하여 상호작용을 높인다.</p> | <p>10분</p> |

| | | | |
|-----|--|--|---|
| | 예: A: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B: 어제 과식했어요. 속이 안 좋아요. | | |
| 피드백 | - 개별 피드백: 교사는 학생 개인의 문장과 발표에서 잘한 점과 고쳐야 할 점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 그룹 피드백: 각 팀이 사용한 단어와 표현의 장단점을 함께 검토하고, 공통된 오류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격려한다. - 요점 정리: 한자어의 의미 차이를 인지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단어 선택과 반복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 | 5 |
| 마무리 | ◆ 1단계: 오늘 수업 내용 요약 ◆ 2단계: 숙제 안내 및 질의응답 | | 5 |

<표 37>를 살펴보면, 어휘의 한자어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학습자는 음과 의미 요소를 분리하여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휘를 유추하고 기억하는 전략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받는다. 본 수업의 특징은 한자어에 나타나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유사한 음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익숙함을 불러일으키고 연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동시에, ‘기운’이나 ‘운동’처럼 발음은 유사하지만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어를 구별하는 방법도 함께 지도하여, 학습자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한국어와 베트남어 간의 언어적 유사성, 특히 한자어에 대한 공통 기반을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의 어휘 암기력을 높이고 의미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발판이 된다. 개별 어휘를 단편적으로 암기하는 방식이 아닌, 어휘의 구조를 분석하고 모국어와의 연계를 통해 실제 맥락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어휘는 더 이상 단순한 정보 조각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된다.

이 지도안은 인식-대조-적용의 세 단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수업의 도입, 제시, 연습, 활동, 피드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어휘를 복습하고, 한국어와 베트남어 한자어 간의 음운적 유사성을 인지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음식-âm thực’, ‘학교-học hiệu’, ‘문화-văn hóa’와 같이 발음과 의미가 유사한 단어를 비교함으로써, 학습자는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어휘를 추론

할 수 있다. 이는 동음어 학습의 첫번째 단계인 인식 단계에 해당한다.

제시 단계에서는 새 단어(과로, 과식, 진단, 치료, 소화, 수면)를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제시하고 발음을 함께 읽으면서, 학습자가 동음동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구분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 “운동”은 체육 활동을 의미하지만, 베트남어 “vận động”은 정치적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분석 활동은 대조 단계의 핵심이다. 연습 단계에서는 상황별 문장 완성, 단어 선택, 토론, 글쓰기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문맥에 맞는 어휘 선택 능력을 강화한다. 학습자가 자신의 선택 이유를 설명하고 친구의 답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스스로 검증하며 동음이의어를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

활동 단계에서는 역할극, 글쓰기, 단어-의미 연결 등 실제 의사소통 중심 과제를 수행한다. 이는 적용 단계로, 학습자가 학습한 동음어를 실제 맥락에서 활용하면서 의미를 추론하고, 문맥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는 능력을 기른다. 특히 시각 자료와 상황 정보가 결합된 활동은 장기 기억과 실제 사용 능력 강화에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피드백 단계에서는 개별 및 그룹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의 오류를 점검하고, 한자어 의미 차이와 반복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단순 암기를 넘어, 비판적 사고와 맥락 기반 어휘 운용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본 수업 지도안은 음운 인식-의미 대조-실제 적용의 통합적 전략을 통해 학습자가 동음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의사소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적 교수 모형이다.

4.2.2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교육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한자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암기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학습자가 의미 구조를 스스로 분석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의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의미 투명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은 학습자의 인지적 배경을 고려하여 어휘의 이해와 장기 기억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급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교육 원리를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제시-연습-활용-피드백-마무리’의 수업 단계에 따라 구성된 한자어 수업 모형을 아래 <그림10>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그

림1

0>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한자어 수업의 모형

<그림10>을 살펴보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교수법은 학습자가 한자어의 의미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도입 단계에서는 높은 의미 투명성을 가진 단어 예시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기존 어휘와 연결한다. 다음으로 제시 단계에서는 각 음절의 의미와 결합 방식을 상세히 분석하여 단어의 전체 의미를 설명한다. 연습 단계에서는 음절 분석, 단어 짝짓기, 의미 추론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의미 추론 능력을 강화한다.

이어서 활동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그룹 토의, 상황극, 실제 문맥에서의 단어 활용 등을 통해 학습 내용을 심화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피드백 단계에서는 교사가 의미 이해나 발음에서 나타난 오류를 교정하고, 추가 설명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에서는 배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미 투명성 원리에 기반한 한자어 추가 탐색 과제를 부여하여 학습자의 자율 학습 능력을 촉진한다.

이처럼 본 수업 모형은 ‘단어를 외우는 수업’이 아니라, 단어의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활용하는 사고 중심 수업으로 자리매김한다. 각 단계는 의미 투명성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특히 중급 한국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어휘 분석력, 활용력, 확장력을 균형 있게 길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이 수업 모형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다음의 부분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의 이론적 구조와 단계별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한자어의 형태적 구조와 의미의 연계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자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어휘를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어휘 교육과 차별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적 모형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행 지도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베트남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학습자의 언어적 배경, 인지 수준, 학습 목표 등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교수요목 설계가 필요하다. 앞서 제안한 수업 모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차시 수업 실행 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 <표 38>과 같이 수업 지도안은 학습자의 점진적인 어휘 전략 형성과 한자어 구조 인식을 돕기 위해 단계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중급 수준의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표 45]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예시 학습 지도안

| 과(단원) | 제12주차 소중한 환경 | 대상자 | 베트남 중급 학습자 | 수업 시간 | 2교시 50분 |
|----------|---|-----|---------------|--|---------|
| 학습목 표 | 1. 학습자들이 한자어 ‘자연’과 ‘환경’ 관련 음운 체계와 의미를 이해한다. 2. 의미 투명성을 활용하여 한자어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어휘를 확장할 수 있다. 3. 마인드맵을 통해 ‘자연’과 ‘환경’ 관련 어휘를 연상하며 기억력을 강화한다. 4. 실제 상황에서 ‘자연과 환경’ 주제에 맞는 한자어를 활용하여 문장 만들기 기와 대화가 가능하다. | | | | |
| 학습자 료 | 텍스트 자료, 수업 PPT, 활동지 | | | | |
| 단계 | 교수·학습 내용 | | | 유의점 | 시간 |
| 2 교시 | | | | | |
| 도입 | <i>자연과 환경 주제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한다. 학생들이 간단한 한국어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도록 돕는다.</i> -학생들에게 자연과 환경을 보여주는 사진을 준비하고 화면이나 인쇄물로 보여준다. | | | 자연과 환경 관련 PPT에서 사진이나 프레시 양면 카드로 학습자의 흥미를 줄 | 5분 |

| | | | |
|----|--|---|-----|
| | <p>T: 안녕하세요! 지난주 시험을 잘 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기 사진 몇 장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산, 강, 숲, 쓰레기장, 오염된 환경 사진을 보여준다.</p> <p>T: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있나요? S: 호수/강/바다/산 이(가) 아름다워 보여요. -환경 오염에 대한 반영한 사진을 보여준다.</p> <p>S: 쓰레기가 많아서 환경이 나빠 보여요. T: 네, 환경 문제가 심각하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 환경은 어떤가요? S: 우리 고향에는 나무가 많아요. 공기도 좋아요. T: 좋아요! 나무, 공기 같은 단어를 기억해요. - 건강에 관련된 한자어를 제시하여 그 한자어의 구성성분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학습자들에게 물어본다.</p> <p>T: 그러면 여러분 ‘공기’는 베트남말이 ‘Không khí’라는 말이죠? 혹시 ‘공기’의 ‘공’와 ‘공기’의 ‘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아요?</p> | <p>기 위해 보여준다.</p> <p>기본 단어: 나무, 물, 공기, 산, 쓰레기, 환경</p> | |
| 제시 | <p>-교사가 어휘 10개를 슬라이드에 띄운다. 뜻을 설명하고 한자어 구성 분석을 한다. 의미 투명성에 집중하여 학습자가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예시 목록: 자연, 환경, 기후, 재해, 생태, 보호, 대기, 식물, 동물, 오염.</p> <p>T: 여러분, 화면에 있는 단어들이 보이나요? 모두 같이 크게 읽어 볼까요? -교사는 ‘자연’이라는 단어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각 음절과 한자의 뜻을 분석해 단어의 전체 의미를 스스로 추론하도록 지도한다.</p> <p>T: 자, 첫 번째 단어는 “자연”입니다. 여러분, “자연”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T: 이번에는 이 단어를 한자어로 분석해볼 거예요. ‘자’는 自, 베트남어로는 “tự”예요. → ‘스스로,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연’은 然, 베트남어로는 “nhiên”이에요. → ‘그렇다, 그렇게 되다’, 즉 “đúng như thế, vốn như vậy”라는 뜻입니다. -단어의 구성과 의미를 설명한 후, 교사는 열린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방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단어의 전체적인 의미를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해 보</p> | <p>의미가 명확하고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단어부터 시작한 후, 점차 추상적인 단어로 넘어간다.</p> <p>일방적인 설명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추측하고 말해보도록 유도한다.</p> <p>학습자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베트남어와의 비교를 활용한다.</p> <p>학습자가 발표를 어려워할 경우, 그림, 플래카드, 또는 간단한 객관식 질문 등을 활용하여 자</p> | 20분 |

| | |
|--|-----------------------|
| <p>도록 유도한다.</p> <p>T: 그러면 “자연”은 어떤 의미일까요?</p> <p>S: S: 음... tự nhiên...?</p> <p>T: 네, 맞아요!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것’, 즉 인위적이지 않은 상태, 자연의 상태를 말합니다.</p> <p>-교사는 어휘 확장을 위해 ‘자연’이 포함된 다른 단어들을 추가로 소개하며, 학생들이 어휘력을 넓히고 의미를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p> <p>T: 여러분, “자연”이 들어간 단어 뭐가 있을까요?</p> <p>S: 자연스럽다?</p> <p>T: 네, 맞아요!</p> <p>자연스럽다: một cách tự nhiên</p> <p>자연재해 (自然災害): thiên tai tự nhiên</p> <p>T: 두 번째 단어는 “환경”입니다.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것도 한자어로 볼게요.</p> <p>‘환’은 베트남어로 “hoàn”입니다.</p> <p>→ ‘둘레, 둥글게 감싸다’ 즉 “bao quanh, vòng quanh”이라는 뜻입니다.</p> <p>‘경’은 베트남어로 “cảnh”,</p> <p>→ ‘경계, 지역’ 즉 “ranh giới, khu vực”를 의미합니다.</p> <p>-교사는 학생들의 이해도와 추론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다.</p> <p>T: 그래서 “환경”은 무슨 뜻일까요?</p> <p>S: khu vực bao quanh...?</p> <p>T: 맞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 - 즉 환경입니다. 베트남어로는 “môi trường”이죠. 그럼 “환경”이 들어가는 단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p> <p>S: 환경오염?</p> <p>T: 네~ 좋아요.</p> <p>환경보호: bảo vệ môi trường</p> <p>환경오염: ô nhiễm môi trường</p> <p>....생략.....</p> <p>-교사는 나머지 단어들도 계속해서 설명한다. 모든 단어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PPT를 활용하여 각 단어의 구성 요소를 정리하며 분석한 내용을 종합한다.</p> | <p>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한다.</p> |
|--|-----------------------|

| | | | |
|-----------|---|--|-----|
| | <p>자연 (自然) - 자 (自): 스스로, tự mình - 연 (然): 그러하다, đúng như vậy → 자연: 스스로 그러한 것 → tự nhiên</p> <p>환경 (環境) - 환 (環): 둘러싸다, bao quanh - 경 (境): 경계, khu vực → 환경: 둘러싼 구역 → môi trường</p> | | |
| 연습 | <p>-활동 1: 문장 속 한자어 찾기 & 뜻 말하기: 학습자에게 간단한 문장을 제시하고, 그 안에 포함된 한자어를 찾아 구성 성분을 분석한 후 뜻을 말하도록 유도한다. 제시 문장: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어요.”</p> <p>-활동 2: 빈칸 채우기 (어휘 선택 문제): 학습자에게 문장을 제시하고, 괄호 안의 단어 중 적절한 것을 골라 빈칸을 채우게 한다. 예시 활동지:</p> <div data-bbox="371 834 899 1000"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공장들이 많아지면서 _____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 / 오염 / 생태)</p> <p>2. 이 지역은 _____가 부족해서 식물이 자라기 힘들다. (온도 / 대기 / 자원)</p> <p>3. 우리는 _____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해요. (환경 / 동물 / 자원)</p> </div> <p>-활동 3: 문장 만들기: 학습자가 오늘 배운 한자어 중 2~3개를 골라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말하거나 써 본다.</p> | 교사는 학습자 수준에 맞게 문장 길이와 난이도를 조절하고, 틀린 답변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정답으로 유도하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말로 표현이 어려운 학습자에게는 짝 활동이나 문장 템플릿을 지원하고, 활동 후 간단한 퀴즈나 게임으로 재미와 복습 효과를 높인다. | 10분 |
| 활용 | <p>-활동 1: 주제별 소그룹 토론: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자연과 환경 보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도록 한다.</p> <p>-활동 2: 역할극: 환경 문제 상황을 설정하고, 학습자들이 역할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를 만들어 본다.</p> <p>-활동 3: 창의적 과제 - 마인드맵 만들기: ‘자연과 환경’ 관련 단어들로 마인드맵을 만들며 어휘 연결과 의미 확장을 시도한다.</p> | | 10분 |
| 마무리 및 피드백 | <p>1. 학습 내용 요약 2. 퀴즈 및 질문 시간 예: “환경오염(環境汚染)은 무슨 뜻인가요?”, “자연(自然)의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3. 개인 피드백 및 과제 안내</p> | | 5분 |

<표 38>을 살펴보면, 본 수업은 중심으로 베트남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구성되었다. 학습 목표는 자연과 환경과 관련된 주요 한자어의 음운 체계와 의미를 이해하고, 의미 투명성을 활용하여 어휘 확장 및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학습자가 ‘자연(自然)’과 ‘환경(環境)’ 관련 한자어의 음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며, 다음 의미 투명성에 기반해 한자어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어휘 확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마인드맵 활동을 통해 자연과 환경 관련 어휘를 연상하고 기억력을 강화하며, 마지막으로 실제 상황에서 배운 한자어를 적용하여 문장 만들기과 대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먼저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목표 어휘를 개별 단어가 아닌 사진, 상황, 간단한 발화와 같은 실제적 맥락 속에서 처음으로 마주하도록 하여 인식 단계를 실현한다. 교사는 자연·환경을 묘사하는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학습자의 발화를 이끌어내며, 문장 안에 등장하는 주요 한자어를 굵게 강조하거나 질문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Noticing 기법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어휘를 이미 알고 있거나 친숙한 상황과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보는→알아차리는’ 과정으로 이동하며, 특히 의미 투명어와 비투명어를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어휘 인식의 정확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한다.

제시 단계에서는 전략의 두 번째 단계인 ‘분석(分析)’이 본격적으로 구현된다. 교사는 10개의 핵심 한자어를 제시한 뒤, 단어 전체 의미를 먼저 알려 학습자의 개념적 틀을 세우고, 그다음 각 음절을 이루는 한자의 뜻과 음을 분해하여 설명한다. 이때 자(自)-연(然), 환(環)-경(境)처럼 의미 투명성이 높은 예시를 중심으로 구성 성분의 역할을 명확하게 보여주어 형태소 구조를 해석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베트남어 대응 의미를 병행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배경 지식과 연계된 의식적 의미 파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분석 단계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형태소→의미→전체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사고 훈련이 되며, 이후 새로운 어휘 의미 추론의 발판을 제공한다.

연습 단계에서는 인식과 분석을 통해 확보한 형태소 해석 능력을 실제 문장에서 확인하도록 하여 분석에서 적용으로 이어지는 전이 단계가 나타난다. 학습자는 문장 속 한자어를 스스로 찾아 구성 성분을 다시 분석하고, 빈칸 채

우기 활동을 통해 새로운 문맥에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한다. 이를 통해 의미-형태 연결 규칙을 실제 언어 자료에 적용해 보는 첫 실험 단계가 이루어진다. 나아가 학습자가 직접 문장을 만들어 말하거나 쓰는 활동은 ‘형태소-의미 분석 결과를 능동적으로 재조합하여 사용해 보는 과정’이므로 적용 전략의 초기 형태로 기능한다.

활용 단계는 전략의 세 번째 요소인 ‘적용(適用)’이 가장 적극적으로 구현되는 부분이다. 학습자는 토론, 역할극, 마인드맵 작성 등을 통해 새롭게 확장된 어휘를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하면서 의미를 내면화한다. 특히 마인드맵 활동은 앞서 분석한 구성 성분을 기반으로 어휘 간 의미 네트워크를 스스로 구축하게 하는 전략적 활동으로, 학습자가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독립적으로 추론하고 확장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자연-환경-보호-오염-생태 등의 단어를 서로 연결하며 ‘환경보호’, ‘자연오염’ 등 새로운 조합의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은 적용 전략의 핵심 목표와 정확히 일치한다.

마무리·피드백 단계에서는 인식-분석-적용의 순환을 다시 확인한다. 교사는 퀴즈로 한자 성분 의미를 점검하고 어휘 개념을 정리하며, 학습자의 문장 사용을 평가한다. 이 반복 과정은 전략의 효과를 강화하고, 이후 새로운 한자어 학습에 필요한 전략적 어휘 능력을 지속적으로 길러 준다.

이 지도안은 단순 어휘 학습을 넘어 ① 문맥 기반 인식 → ② 형태소 중심 분석 → ③ 의미 추론 및 실전 적용이라는 구조적 흐름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학습자에게 한자어의 의미 구성 원리를 체계적으로 내면화시키고 실제 언어 상황에서의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V. 결론

본 논문은 베트남인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자어 교수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두 가지 주요 접근 방향에 중점을 두었고 한·베 동음어를 활용한 방법과 의미 투명성을 활용한 방법이다.

연구의 필요성은 한국어 어휘의 약 60-70%를 차지하는 한자어가 한국어의 의미 이해, 문화, 그리고 언어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한자어를 습득하고 기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특히 중급 단계에서는 어휘량을 확장하고 어휘의 구조, 의미 영역을 보다 깊이 이해해야 한다. 교수 방법이 학습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학습 동기 저하와 낮은 학습 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한·베 언어적 특성과 베트남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한 특수화된 교수법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모형을 제안하기에 앞서, 본 논문은 한자어 교육, 한·베 대조 연구, 그리고 개별 언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들은 중급 수준의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적 연구가 부족하며, 두 가지 교수법을 동시에 결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한자어의 체계를 세 가지 측면에서 대조하였다. 음운적 대응관계 두 언어의 초성, 중성, 종성 간의 대응 관계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감동'의 경우 ㄱ=c, ㅈ=a, ㅁ=m, ㅊ=d, ㅓ=ô, ㅇ=ng의 대응이 나타난다. 특히 베트남어에는 성조 체계가 존재하여, 성조가 없는 한국어 학습자의 인지와 기억 과정에서 별도의 지도 방법이 필요하다. 형태적 동형동의어, 동형이의어, 이음이의어를 비교하였으며, 본 논문은 특히 동음동의어와 동음이의어 유형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조적 한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단일어, 합성어, 접사 파생어)을 베트남어의 합성어 및 첩어 체계와 비교하여, 양 언어에서 한자어의 의미 확장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2.3 절에서는 한자어 학습에서 의미 투명성이 갖는 중요성을 논의하며, 형태·구조 분석을 활용한 전략적 어휘 학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3장에서는 김민정(2023)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학습자가 한국어 한자어를 학습할 때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두 가지 핵심 교수 방법을 도출하였다. 동음어를 활용한 방법은 익숙한 음운 지식을 활용하여 어휘를 인식하고 기억하도록 돕는 방법과 의미 투명성 활용한 방법은 어휘의 구성 요소와 구조적 관계를 바탕으로 의미를 이해하고 추론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 장에서는 베트남 학습자의 한자어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고, 교재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자어 교육의 원리와 교수요목을 제시하여 학습 목표·내용·절차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실제 적용 가능한 수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서울대학교 한국어 4A·4B』를 기반으로 주 1회 수업 형태의 예시 강의를 구성하고, 교수·학습 활동을 포함하였다. 교육의 원리를 바탕으로, 동음어 활용 교육 방안과 의미 투명성 활용 교육 방안을 별도로 제시하여, 두 방법의 실행 절차와 교수 전략, 기대 효과를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설계 과정은 제안된 교수법의 교육적 의의뿐 아니라 실제 적용 가능성과 효과 검증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베 동음어 및 의미의 투명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어휘 추론 능력과 장기 기억을 향상시키는 한자어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교육 방안은 단순한 이론적 제안이 아니라, 학습자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현행 교재를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수·학습안을 설계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의를 가진다.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한·베 동음어의 유사성과 의미 투명성을 중심으로 언어 간 대조적 접근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에 분류나 암기 전략에 머물던 한자어 교육 연구를 확장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모어 지식을 한국어 학습에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언어 간 전이 이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의미 투명성과 형태 인식을 기반으로 한 인지 중심 한자어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 암기를 넘어 의미 구조와 형태적 단서를 활용해 어휘를 추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의미 중심 외국어 교육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셋째, 학습자 요구 조사와 교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 방안을 설계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높였다. 특히 중급 교재에서 한자어 교육이 미흡함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향을 제시하여 한자어 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실천적 측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안된 교육 방안은 베트남 중급 학습자의 실제 요구와 수준을 반영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다. 조사 결과, 학습자는 한자어 학습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기존 수업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교재 분석과 교수·학습안 개발을 통해 즉시 적용 가능한 수업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통합 한국어 수업 내에서 한자어를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설계하였다. 셋째, 음·의미 대응 관계를 활용한 학습을 통해 어휘 추론 능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강화할 수 있어 장기적인 어휘 학습 역량 향상에 기여한다.

넷째, 프로젝트형 학습과 역할극을 통해 학습자가 한자어를 실제 의사소통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미 기억과 사용 능력을 높인다. 제시한 지도안은 교사가 학습자 수준과 목표에 따라 쉽게 변형할 수 있어 적용성과 유연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어 교사 연수와 교재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베트남 학습자 특성에 맞춘 교수법 개발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한·베 한자어 대조 분석을 통해 한국어 한자어 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베트남 한국어 교육에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였다. 동음 현상과 의미 투명성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여 실제 수업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으며, 제시된 예문과 수업안은 중급 학습자의 한자어 인식, 기억, 활용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 교수 원리와 모형을 제공함으로써 어휘 중심 수업 및 고급 어휘 교육 설계에 실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참여자 수와 지역적 범위가 제한적이고, 주로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업안에 활용된 한자어 자료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실험 수업 기간이 짧아 장기적 효과 검증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초급·고급 학습자, 자율 학습자를 포함하여 적용 범위를 확

대하고, 전문 분야 한자어를 추가하여 교육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온라인 학습 도구나 언어 학습 게임을 접목하여 자기 주도 학습 능력과 흥미를 높이고, 장기적 실험과 정량적 분석을 통해 제안된 교수법의 지속적 학습 효과와 실용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연구는 한·베의 음운적·의미적 대응 관계를 활용한 교수법이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에서 매우 효과적인 접근임을 입증하였다. 제안된 교육 방법은 학습자의 한자어 기억력과 의미 이해 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언어 대조적 사고력과 의미 추론 능력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 교육 방법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고세정. (2014). “베트남 한자어와 한국 한자어의 차이에 대한 소고”. 『동방 문학비교 연구』. Vol.4, 동방문학연구회, 7-24.
- 강서영. (2007).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적 연어사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규철. (1997). “한국어의 단어 형성”. 『국어학』. 29, 국어학회, 243-308.
- 김일병. (2000). “국어 합성어의 구조와 형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경. (2008). “동아시아 한자어 대조 연구 -한국, 일본, 베트남어의 한자어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8, 이중언어학회, 227-269.
- 김민정. (2021). “한자문화권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어 오류 및 사용 양상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무림. (1991).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 김무림·김유범·최미현. (2017). 『현대국어 한자음』. 한국문화사.
- 김미정. (2004). “중국인을 위한 한국 한자어 학습 사전 개발의 기초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중. (2004). 『한자의 세계』. 신아사.
- 김태헌. (2009). “한국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의 발음과 의미의 유사성과 이질성 정도에 관한 고찰”. 『인문과학연구』. 2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86-106.
- 기비림. (2017). “중·한 한자어 비교 연구 -한국어능력시험 중의 한자어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명희. (2007).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서울:태학사.
- 도티튀. (2018). “한국 한자음과 베트남 한자음의 대조 연구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이느응우엣. (2015). “한국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의 동형이의어 교수·학습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금현. (2003). “한국어 어휘교육을 위한 한자어 학습방안”. 『이중언어학』 . 23, 이중언어학회, 13-23.
- 박영순. (2004). 『한국어 의미론』 .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종갑. (2003). 『토론식 강의를 위한 국어 의미론』 . 박이정 도서출판.
- 박종갑·레뚜언선. (2009).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한자어 어휘 대조 연구”. 『민족문화논총』 . Vol.4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309-329.
- 배주채. (2008). 『국어음운론의 체계화』 . 한국문화사.
- 배주채. (2018), 『국어음운론의 개설』 . 서울: 신구문화사.
- 범금구. (2016). “중국 내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 방안 연구: 동형이의어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재기·조항범·문금현·조남호·노명희·이선영. (2016). 『국어어휘론개설』 . 박이정 출판사.
- 손유진·장혜진. (2021).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한자어 대응 분석을 통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어 교육 방안 연구 - 『함께 배워요 한국어 1』 의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 76, 국어교육학회, 35-36.
- 안소진. (2009). “한자어 구성 음절의 특징에 대하여: 고빈도 2음절 한자어를 대상으로”. 『형태론』 . 11, 형태론, 43-59.
- 오은희. (2009).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추측전략 분석 연구: 한자권-비한자권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응웬홍프엉타오. (2020). “한국어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 단어 형성법 대조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숙. (2003).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분석 및 교육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현. (2009). “韓國語와 베트남語의 同形 漢字語 比較研究”.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희. (2008). “외국인을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해영. (2001).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 『한국어 교육』 . 12,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199-232.
- 레뚜안선. (2009). “한국어와 베트남어 한자어의 대조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수. (1988). “한자어 단어형성의 특성”. 『어문연구』 . 18,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어문연구회, 69-82.
- 최형용. (2017). “단어 형성과 형태소”. 『국어학』 . 81, 국어학회, 351-391.
- 팜티옥. (2010). “한국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 비교 연구: 양국의 한자 어휘 및 한자 음운 체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김화. (2018).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목록 선정 및 한자어 학습법의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부남. (2002). “단어 형성법을 통한 어휘력 신장 지도”.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인교. (2003). “국내·외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 2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87-329.
- 마이느응우엣. (2015). “한국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의 동형이의어 교수·학습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반두. (2017).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 한자어 과생 접두사 교육 연구: 베트남 내 대학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Ma Jinshan. (20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Tran Thi Van. (2022).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교재 개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 16, 한국어교육연구학회, 167-192.
- Ngoc Tuyen. (2019). “한자 수용 양상과 한자 어소 의미 인지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국외 문헌

- 조명석. (2003). “So sánh lớp từ Hán-Hàn trong tiếng Hàn và lớp từ Hán-Việt trong tiếng Việt”. 호치민 국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Nation I.S.P.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mitt N. (2008). “Instructed second language vocabulary learning”. 『Language Teaching Research』 . 2(3), 329-363.
- Oxford R. L.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Newbury House Publishers.
- Đào Duy Anh. (1932). 『Hán Việt Từ Điển』 . NXB Hồng Đức.
- La Văn Thanh. (2010). “Nghiên cứu đặc điểm các tổ hợp song tiết Hán Việt (có đối chiếu với tiếng Hán)”.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Lê Đình Khấn. (2010). 『Từ Vựng Gốc Hán Trong Tiếng Việt』 . NXB Đà Nẵng, 351-365.
- Lê Xuân Thai. (1990). 『Từ ngữ Hán Việt tiếp nhận và sáng tạo』 . NXB Khoa học Xã hội. 76-89.
- Mai Ngọc Chừ·Vũ Đức Nghiệu·Hoàng Trọng Phiến. (1997). 『Cơ sở ngôn ngữ học và tiếng Việt』 , NXB Giáo Dục.
- Nguyễn Lân. (2002). 『Từ điển từ và ngữ Hán Việt』 . Nhà Xuất Bản Bách Khoa.
- Nguyễn Ngọc San. (2003). 『Tìm hiểu tiếng Việt lịch sử』 . Nhà Xuất Bản Đại học Sư Phạm, 15-36.
- Nguyễn Tài Cẩn. (1995). 『Giáo trình lịch sử ngữ âm tiếng Việt』 . Nhà Xuất Bản Giáo Dục.
- Nguyễn Văn Khang. (2007). 『Từ ngoại lai trong tiếng Việt』 . Nhà

Xuất Bản Tổng Hợp.

Phan Ngọc. (2000). 『Triết học Trung Hoa』 . Nhà Xuất Bản Thế Giới.

Thiều Chừ. (2009). 『Tự điển Hán-Việt』 . NXB Văn hóa thông tin.

3. 한국어 교재]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5). 『서울대 한국어 3A, 3B』 .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5). 『서울대 한국어 4A, 4B』 . 서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14). 『연세한국어 3-1, 3-2』 .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14). 『연세한국어 4-1, 4-2』 . 연세대학교 출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2013).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3』 .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2013).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4』 . 한국국제교류재단.

4. 인터넷 자료]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네이버 국어사전. <https://hanja.dict.naver.com/#/main>

베트남 한자 사전. https://hvdic.thivien.net/#google_vignette

ABSTRACT

A Study on Sino–Korean Vocabulary Teaching
Methods for Intermediate Vietnamese Learners
–Focusing on Homophones and Semantic Transparency –

Phan, Thu Thao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effective methods for teaching Sino–Korean vocabulary to intermediate Vietnamese learners, focusing on instructional approaches that utilize Korean–Vietnamese homophones and the semantic transparency of Sino–Korean words. Although Sino–based vocabulary constitutes a large proportion of both Korean and Vietnamese and is central to Korean language use, its instruction in Vietnam remains limited and underdeveloped.

Current teaching practices rely mainly on rote memorization and surface–level phonetic similarity, often resulting in passive learning and errors caused by homophones.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explores systematic uses of homophones and semantic–transparency–based

instruction, in which learners analyze the meanings and pronunciations of constituent morphemes. These approaches aim to enhance comprehension, retention, and the ability to infer unfamiliar Sino–Korean vocabulary.

This thesis consists of four main chapters. Chapter 1 outlines the research purpose, significance, methods, and related studies. Chapter 2 establishes the theoretical framework by examining Sino–Korean and Sino–Vietnamese vocabulary and introducing the concept of semantic transparency. Chapter 3 analyzes learner difficulties, instructional needs, and Korean textbooks commonly used in Vietnam, highlighting limitations in current practices. Chapter 4 proposes practical teaching plans, including instructional principles, teaching models, and sample lesson plans.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study’s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Vietnam.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Sino–Korean vocabulary, Sino–Vietnamese vocabulary, intermediate learners, instructional methods, homophones, semantic transparency